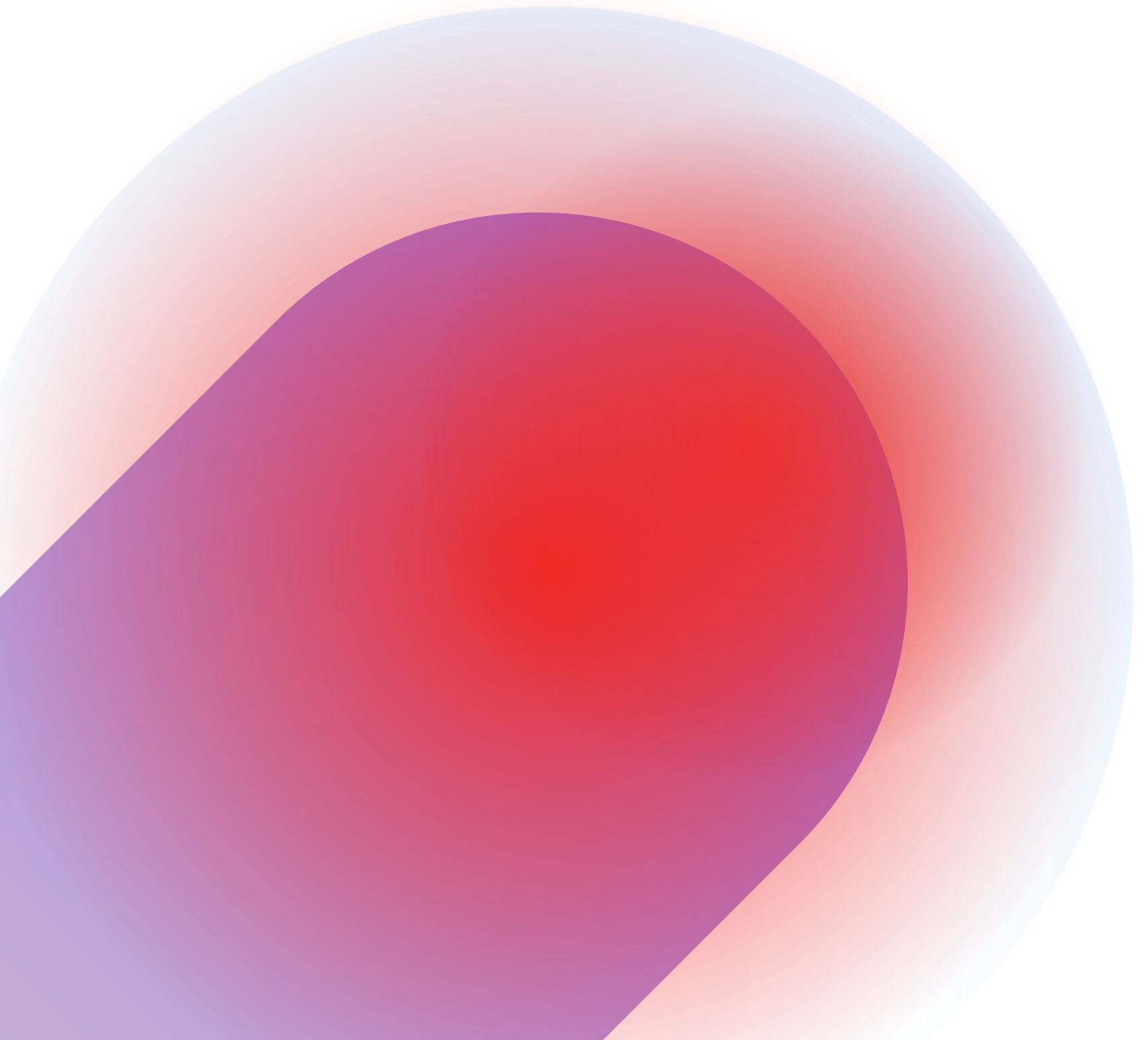


2027

# Headmaster

사회·문화 320제

N제



00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항제를 앞두고 ㉠ 진해 일대 총 36만 그루의 왕벚나무 꽃이 만개했다. 창원시는 ㉡ 예년보다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 미리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 해군 부대를 개방하는 등 일부 군항제 행사를 앞당겨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주말 동안 진해로 진입하는 주요 외곽 도로에서 ㉣ 축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 부산과 진해에서는 지난 20일 벚꽃이 개화했다. 기상청이 벚꽃 개화 시기를 관측한 1973년 이후 가장 빨리 벚꽃이 피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불가능하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002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빛과 소리의 축제다. ㉠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폭죽을 터뜨릴 때 만들어진다. ㉡ 화약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금색 등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 하늘을 밝히게끔 한다. 불꽃의 크기와 형태는 폭죽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 전문가들은 정교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패턴을 연출한다. 사람들은 축제나 기념일에 모여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이 장관을 보며 ㉤ 희망과 새 출발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당위적 규범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003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몸의 대사는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총합으로 정의되며, 음식물이 소화된 후 에너지원으로 변환될 때 활성화된다. 섭취한 영양소는 ㉡ 분해 과정을 거쳐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자들은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과 호르몬의 역할을 분석하여 ㉣ 비만,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최근에는 ㉤ 개인의 유전자와 대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가 불가능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당위적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04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에 있는 섭지코지의 '코지'는 ㉠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형성되어 ㉡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지형을 지칭하는 곳의 제주 방언이다. ㉢ 해돋이로 유명한 성산일출봉이 지척에 있어 섭지코지를 스쳐 지나가기 쉬우나 ㉣ 해안 절경을 즐기기로는 제주도에서 최고의 위치로 인정받고 있다. 해안 절벽에서 내려다보이는 기둥 모양의 선녀바위에는 옛날 용왕의 아들이 이곳에 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고 반해서 선녀를 따라 승천하려다 ㉤ 용왕의 노여움을 사 바위로 굳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어 내려온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가 불가능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당위적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005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국과 몽골 지역의 강한 바람과 사막화로 인해 ㉡ 황사가 타 국가에 유입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는 황사의 이동 경로와 농도를 예측하여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황사 경보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황사 경보제는 ㉣ 대기 중 미세먼지가 확산하는 양상에 따라 그 농도를 측정하고, 해당 수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 외출 자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없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006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매립지와 소각 시설이 환경에 주는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 지속 가능한 패션 문화를 장려하고 의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토양의 오염과 ㉢ 강 하류 지역의 조류 서식지 변화 등 ㉣ 환경이 받는 영향을 수치화한 환경 영향 지수 제도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 섬유가 분해되는 속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질 오염 등을 측정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수치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00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진 남아메리카의 아타카마 사막에 ㉡ 최근 한랭 전선이 머물면서 해당 지역은 이틀간 5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 이례적인 한파와 강설 현상이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와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후 이상 현상 하에서 주거 환경과 교통망의 붕괴로 ㉤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른다.

008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마존의 한 늪지대에 사는 붉은부리 물총새는 ㉠ 가족 단위의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집단 내 ㉡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는 ㉢ 날카로운 가시가 가득한 ‘독가시 덩굴’이 자주 자라는데, 어린 새가 이 덩굴에 잘못 빠지면 붉은부리 물총새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 어린 새를 꺼내 준 뒤, ㉣ 부리로 독가시를 제거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관찰한 연구자들은 이 물총새의 협력적 구조 행동이 ㉤ 집단 전체의 생존을 높이는 적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당위 규범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없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각한 산림 훼손과 이상 기후로 인해 ㉠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생물 다양성 감소와 토양 황폐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 '토양 발자국'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토양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 토양 훼손의 총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 생태계가 회복하는 데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척도로 볼 수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없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깊은 밤 사냥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부엉이에 관한 전설은 ㉡ 부엉이의 크고 둥근 눈을 신비롭게 형상화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부엉이의 큰 눈은 ㉢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극대화하며, 그 덕에 부엉이는 ㉣ 어두운 숲 속에서도 작은 설치류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신비로움과 지혜로 연결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 부엉이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없다.

01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 바다의 날’은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가자들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바다는 그 자체가 가진 ㉢해양 생물을 지탱하는 터전으로서의 가치로 인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대기의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것 역시 바다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또한 바다는 인간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채취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12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람들 간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각 개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활성화된다.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적 기관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 상호 작용을 하며 협력하고 소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며, 이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각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하도록 도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한다.

— <보 기> —

ㄱ. 사회 규범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 고 본다.

ㄴ.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성을 중시한다.

ㄷ. 상징을 매개로 한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ㄹ.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013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소득 격차 현상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갑: 소득 격차는 높은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닌,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배분되는 것이기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이미 그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올려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을: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소득 격차는 이것이 실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통해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 누군가는 직업을 가짐에 있어 그에 따라오는 소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직업과 일상과의 양립, 또 누군가는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각자는 각자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나름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소득 격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본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개인보다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병의 관점은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 014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범죄는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에 사회 문제로 규정됩니다.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종의 사회 통제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도울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범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이는 사회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는 지점이자, 사회 계급에 따라 범죄의 발생 유인이 차등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병: 범죄는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천주교를 믿는 것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었죠.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이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동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01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갑: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는 이를 지내는 사람이 어떤 이유를 따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족을 만나는 것, 의례를 지키는 것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을: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는 기득권 집단인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따르는 질서를 신세대에게 강요하여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세대가 기득권 집단이 된다면 제사 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병: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는 조상을 모시는 의례를 통해 가족 간, 그리고 친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안정보다 사회 변동을 중시한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 ⑤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016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갑: 팬데믹은 하나의 허상과도 같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그 많은 제재와 규제 아래에 놓여야 했고, 그로부터 유래된 코로나 블루 현상은 현재까지 망령처럼 남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을: 코로나19는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에 사회 문제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적인 치료와 방역은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숙제와도 같죠.

병: 팬데믹 현상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팬데믹 현상의 원인을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할당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그 이외의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⑤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017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며 학업 저하, 건강 악화, 대인관계 피상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갑: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는 사회 제도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지도와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결국 이는 사회 전체가 올바른 역할을 회복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게임·SNS 산업의 형태를 취한 지배 집단은 막대한 광고와 시스템 설계를 통해 한 개인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청소년은 그대로 종속된 것입니다.  
 병: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는 또래 집단 간 교류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친구 관계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개체로,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교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부여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중시한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병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018

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구분	해당 관점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A, B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 (가)	A
	C

- ① A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본다.
- ② B는 학교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 ③ C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강제력에 주목한다.
- ④ A, C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⑤ ‘개인의 행동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19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교사: A~C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하며,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합니다.  
 을: B는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며,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합니다.  
 교사: 갑의 설명에는 A 외에 B의 내용도 있으며, 을의 설명에는 B의 내용이 아닌 A와 C의 내용만 있네요.

- ① A는 사회 규범이 특정 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본다.
- ② B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 ③ C는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의 상호 의존성에 관심을 둔다.
- ④ A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B는 C와 달리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0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교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갑: A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을: B는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병: A, C는 모두 사회 구조에 대한 인간의 자율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 C는 B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봅니다.  
 교사: ①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잘 설명했네요.

- ① ㉠은 갑이다.
- ② A는 B와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정한 분배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
- ③ B는 C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 ④ C는 A와 달리 사회에 내재한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 ⑤ A, B는 C와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021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특정 인물이 하는 행동 또는 그가 가지는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존경이나 권위라는 인식을 내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보 기> —

- ㄱ.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ㄴ.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ㄷ.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ㄹ.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02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아래는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네 가지 진술로, 옳은 진술의 개수는 ① 옳지 않은 진술의 개수보다 많다.

1번	A는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본다.
2번	C는 B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3번	B,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번	(가)

— <보 기> —

- ㄱ. ①은 4번 진술이다.
- ㄴ. A는 B와 달리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본다.
- ㄷ. B는 C와 달리 사회화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 수단이라고 본다.
- ㄹ. 'B는 A와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2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아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예'의 개수가 가장 많은 관점은 A, 가장 적은 관점은 C이다.

질문 1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질문 2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질문 3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가?
질문 4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주목하는가?
질문 5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두는가?

- ① 질문 1은 질문 2와 달리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 ② 질문 4와 질문 5는 모두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 ③ A는 B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는 C와 달리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에 주목한다.
- ⑤ C는 A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024

표는 A~C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특징	비교 결과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 A, C와 달리 B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 B와 C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은 2개이다.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힘을 중시한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에 주목한다.	

- ① A는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초점을 둔다.
- ② B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 ③ C는 사회 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④ A는 B와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⑤ B는 C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025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질문	분석 결과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가?	· A가 '예'로 답할 질문은 3개이다. · B가 '아니오', C가 '예'로 답할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 ① A는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② B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③ C는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④ A는 B와 달리 사회 유지에 필요한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⑤ B는 C와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02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교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3가지 중 1가지를 서로 다르게 배정했습니다. 각 학생은 배정받은 관점의 특징 한 가지와, 비판점 한 가지를 제시해 보세요.

갑: A의 특징으로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있으며, A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을: B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는 것이 있으며, B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병: C의 특징으로는 사회 집단 간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있으며, C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의 학생은 모두 옳게, ① 한 명의 학생은 비판점을 옳지 않게, 한 명의 학생은 모두 옳지 않게 제시했네요.

- ① ㉠은 '갑'이다.
- ② A는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 ③ B는 C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C는 A와 달리 사회 체계보다 개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A, B는 C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A는 B, C와 달리 사회 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가?	예	예
B는 A,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
(나)	예	㉡
점수	2점	4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각 질문당 옳은 답변을 쓴 경우는 1점, 틀린 답변을 쓴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이 '아니요'라면, (나)에는 'C는 A, B와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이 '예'라면, (가)에는 'A는 C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가)에 'B는 C와 달리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보는가?'가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 (나)에 'C는 A와 달리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가)에 'A, C는 B와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가?'가 들어간다면, 'A는 C와 달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가?'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두 집합 ㉠과 ㉡은 각각 1, 2, 3의 번호가 부여된 세 가지 진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과 ㉡에서 옳지 않은 진술에 부여된 번호는 서로 같지 않다.

	번호	진술
㉠	2	A, C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C는 A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한다.
㉡	1	A는 C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2	C는 A와 달리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3	(가)

### <보 기>

- 옳지 않은 진술의 개수는 ㉠이 ㉡보다 많다.
- A는 B와 달리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 B는 C와 달리 인간은 상황 정의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 'B,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A는 C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예	예
C는 B와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가?	㉠	예
B는 A와 달리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아니요	아니요
(가)	예	아니요
점수	3점	3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 ㄱ.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 ㄴ. A는 B와 달리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 ㄷ. B는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 ㄹ. 'A는 B와 달리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자료 1>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특징

1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에는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3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4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사회 제도를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 본다.
6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7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료 2> A~C에 해당하는 <자료 1>의 특징 수 (단위: 개수)

구분	A 해당		A 해당 ×	
	B 해당	B 해당 ×	B 해당	B 해당 ×
C 해당	㉠	0	2	㉡
C 해당 ×	㉢	㉣	1	0

- ① ㉠과 ㉡의 합은 ㉢과 ㉣의 합과 같다.
- ② 3번 특징은 5번 특징과 달리 B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 ③ 6번 특징은 2번 특징과 달리 C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 ④ A는 B와 달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본다.
- ⑤ B는 C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031

갑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유연 근무제가 직장인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 직원들 중 1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면담 내용에는 유연 근무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유연 근무제 시행 전후 업무 성과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보 기> —

- ㄱ. 2차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 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ㄷ.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수집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
- ㄹ.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2

자료 수집 방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활용된 사례	B가 활용된 사례
갑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경기 침체와 정신 질환 발생률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로 했다. 갑은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자료를 모아 정신 질환의 종류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을은 한 국가의 소수 민족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이 영위하는 축제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했다. 을은 해당 국가로 직접 이동하여 소수 민족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집하였다.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를 얻기에 유리하다.
- ㄴ. A는 B와 달리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 ㄷ. B는 A에 비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 ㄹ. B는 A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3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A를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이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갑은 ○○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 이용 빈도와 목적 등을 묻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을은 B를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을은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통해 수업을 이어 나가는 양상,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불편 등에 대해 관찰하였다.

- ① A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② A는 주로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에 활용된다.
- ③ B는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유리하다.
- ④ B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 ⑤ A와 B는 모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034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A를 활용하여 주간 근무 시간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무 시간과 행복 수준을 묻는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 을은 B를 활용하여 소음 환경이 업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 집단은 소음이 있는, 다른 집단은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병은 C를 활용하여 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1개월간 생활하며 그들이 겪는 위험 상황을 관찰하였다.

- ① A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 ② B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 ③ C는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 ④ A는 B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⑤ B는 C와 달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035

자료 수집 방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A, C는 B와 달리 자료 수집 시 주로 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참인 진술이며, 'C는 A, B와 달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에 유리하다.'는 거짓인 진술이다.

- ① A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② B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
- ③ C는 문맹자를 상대로 한 활용이 곤란하다.
- ④ A는 B와 달리 언어적 도구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
- ⑤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036

표는 질문을 통해 자료 수집 방법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구분	A	B	C	D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질문과 응답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	아니요	예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A는 조사 대상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③ B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④ C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용이하다.
- ⑤ D는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용이하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 갑은 A를 사용하여 관찰자의 존재가 학습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 고등학교의 자습실에 관찰자를 배치한 뒤, 자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자의 존재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을은 B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겪는 학습 과정에서의 부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을은 □□ 고등학교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각자가 생각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2>

	(가)	
A	(나)	B
	(다)	

- ① (가) - 실제성이 높은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② (가) -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 ③ (나) -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④ (다) -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 ⑤ (다) -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제]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작성하세요.

학생	자료 수집 방법	해당 방법이 활용된 사례
갑	질문지법	(가)
을	면접법	(나)
병	실험법	(다)
정	㉠	자유 학기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 성적표를 수집하였다.
무	㉡	◇◇지역 소방관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한 소방서에서 일주일간 소방관들과 같이 생활하며 일지를 작성하였다.

[교사의 평가] 갑, 정, 무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고, 을은 ㉠, 병은 ㉡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어오.

- ① ㉠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시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은 2차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③ ‘백색 소음의 유무가 작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직장인들 중 한 집단에만 백색 소음을 듣게 한 뒤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지역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 중 10명을 선정하여 그들과 해당 제도의 공정성과 찬반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가출 청소년 모임에 참가하여 한 달간 그들의 생활 양상과 환경을 관찰하였다.’는 (다)에 들어갈 수 있다.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압박 면접이 개인의 긴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직전 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10명을 선정한 뒤 그들에게 심장 박동수 측정 기능이 있는 전자 시계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후 갑은 그들 중 5명을 대상으로는 일반 면접을,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는 압박 면접을 시행한 뒤 각 학생들의 심장 박동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을은 학습 현장에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는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시 소재 각 고등학교의 직전 시행 모의 고사 평균 성적을 참고한 다음, 성적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와 가장 낮은 고등학교에 각각 방문하여 해당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해당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각 1주일간 수업을 참관하며 조사하였다.
- 교사의 설명: 갑은 A와 B, 을은 B와 C를 활용하였습니다.

- ① A는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② B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 ③ C는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 ④ A는 B와 달리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변인의 효과를 측정한다.
- ⑤ B는 C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교사: 아래의 세 가지 사례에서 활용된 2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을 각각 제시해 보세요.

사례	학생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
갑은 운동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 고등학교 1학년 두 개의 학급 중 한 학급 학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시키고, 다른 학급과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운동을 한 학생들과 심층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심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A, B
을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 고등학교를 찾아가 사교육을 받거나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과 면담을 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자신감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B, C
병은 자유 학기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OO 중학교의 한 학급에서 두 달 동안 자유 학기제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였다. 그리고 자유 학기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리 제작한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C, D

교사: 갑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옳게 제시했으나, 을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옳지 않게 제시했네요. 병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가) 제시했습니다.

<보기>

- ㄱ. (가)에 들어갈 것은 '모두 옳게'이다.
- ㄴ. A는 B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ㄷ. B는 C와 달리 양적 자료의 수집에 활용된다.
- ㄹ. C는 D에 비해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각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작성하세요.

학생	자료 수집 방법	해당 방법이 활용된 사례
갑	㉠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동의를 얻어 직전 치러진 시험 성적을 제공받음.
을	㉡	□□회사의 직장인 100명을 상대로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근무 의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함.
병	질문지법	◇◇공장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백색 소음이 있는, 다른 집단은 없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함.
정	면접법	(가)
무	참여 관찰법	(나)

교사의 평가: 모두 서로 다른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했으나, 배정받은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제시한 학생은 없군요.

- ① ㉠과 달리 ㉡은 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과 달리 ㉠은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③ 병은 갑이 배정받은, 갑은 을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작성하였다.
- ④ ‘△△중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대화의 형식으로 물어봄.’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소방서 소방관들과 6개월간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작업 환경을 살펴보고 기록함.’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자료 수집 방법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중 하나임.)

교사: 자료 수집 방법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하였습니다. 각 모듬은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 <1 모듬> 운동에 따른 행복도 차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당 운동 시간과 행복 수준을 묻는 문항에 답하게 한 것은 A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2 모듬>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무르며 유아들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한 것은 B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3 모듬>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한 집단은 음악이 있는,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단어를 학습한 후 평가 문항에 답하게 한 것은 C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4 모듬>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양상 연구를 위해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구조화된 질문에 답하게 한 것은 D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5 모듬> 사형 제도 폐지에 다른 강력 범죄 발생률 변화 정도 연구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은 E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교사: <3 모듬>을 제외하면 모두 옳지 않게 발표했네요. <1 모듬>은 <4 모듬>이, <4 모듬>은 <2 모듬>이, <2 모듬>은 <5 모듬>이, <5 모듬>은 <1 모듬>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 ① A는 2차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 ② B는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법이다.
- ③ C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 ④ D는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 ⑤ E는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방법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교류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성인 10명을 모집하여 그들을 각각 5명씩 A, B 집단으로 나눈 뒤, 1주일의 기간 동안 ㉢ A 집단은 대면 소통만을, ㉣ B 집단은 비대면 소통만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후 갑은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 상호 의존성 정도, ㉥ 시간과 경험의 공유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B 집단에 비해 A 집단의 구성원 간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가설이 수용되었다.

- ① ㉢은 ㉣과 달리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② ㉡은 모집단이다.
- ③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 ④ '대면 소통은 비대면 소통에 비해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 ⑤ '비대면 소통은 대면 소통과 달리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관련 연구를 검토한 뒤, 갑은 ㉡ 인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관용 정신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갑은 ㉢ 가설 검증을 위해 ◇◇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봉사 활동의 지속 정도, 관용 정신 지수, 공동체 의식 지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용 정신 지수와 공동체 의식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많거나 높다. 갑은 봉사 활동의 지속 정도에 따라 ㉣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용 정신 지수는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집단에서 53점, 중간 집단에서 62점, 낮은 집단에서 8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 지수는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집단에서 79점, 중간 집단에서 71점, 낮은 집단에서 65점으로 나타났다.

- ① ㉠ 단계와 ㉢ 단계에서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③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한다.
- ④ 연구 결과, <가설 1>은 검증되지 않았다.
- ⑤ 연구 결과, <가설 2>는 수용되었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구자 갑은 전체 근무 시간 중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이 ㉠ 직장인의 ㉡ 직장 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가설을 설정한 뒤 ㉢ IT 기업 직원 중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 내용에는 전체 근무 시간 중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뿐만 아니라 ㉣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 ㉤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갑은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는 하락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이에 따라 갑은 자신이 설정한 ㉥ 가설을 모두 수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렸다.

< 보 기 >

- ㄱ. ㉠은 모집단, ㉡은 표본 집단에 해당한다.
- ㄴ. ㉢, ㉣은 모두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ㄷ. '재택 근무 시간의 비중은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 ㄹ.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직장인의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갑은 낮은 업무 몰입도의 원인을 ㉠ 화상 회의 중심 소통과 채팅 중심 소통의 두 가지로 추측한 뒤 □□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진행 중인 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평소 업무 몰입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갑은 ㉡ 업무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직원 50명을 A 집단,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직원 50명을 B 집단으로 나눈 뒤 A 집단을 무작위로 25명씩 A1, A2로 나누고, 같은 방식으로 B 집단을 B1, B2로 나누었다. 이어 갑은 4주간 A1과 B1은 소통에 있어 화상 회의의 방식을, A2와 B2는 채팅의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뒤, 각 집단의 업무 몰입도는 원격 근무 장소에 사전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녹화한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라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 몰입도에 있어 A1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나, B1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하락이 나타났고, A2와 B2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①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②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한다.
- ③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 ④ ㉢은 '화상 회의 중심 소통은 업무 몰입도에 있어 B 집단과 달리 A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 ⑤ ㉣은 '채팅 중심 소통은 업무 몰입도에 있어 A 집단과 달리 B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감시자의 존재는 청소년의 규칙 준수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의 ㉠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무작위로 세 모둠으로 구분한 뒤, 모둠 A와 B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 탈출 게임 형식의 활동을 1일 차와 2일 차에 수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 ‘제한 구역을 넘지 않기, 지정된 도구만 사용하기’ 등의 규칙을 설정하여 준수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모둠 C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모둠 B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이후 갑이 ㉢ 사전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모둠 A와 B의 활동 수행 양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둠 A와 모둠 B의 1일 차 규칙 준수 행동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고, 모둠 A의 1일 차 규칙 준수 행동 정도와 ㉣ 2일 차 규칙 준수 행동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모둠 B의 1일 차 규칙 준수 행동 정도에 비해 ㉤ 2일 차 규칙 준수 행동 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 ① 갑은 그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② 모둠 A, B는 모둠 C와 달리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 ③ ㉡은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 ④ ㉢은 갑이 수집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 ⑤ ㉣과 ㉤ 간 차이에 의해 ㉠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 유형이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갑은 SNS의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고등학생 300명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한 후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그들의 SNS 사용 빈도와 목적을 조사하였다. 이후 갑은 연구 참가자를 무작위로 100명씩 A~C 모둠에 배정한 후, A 모둠은 SNS를 통해 ㉡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활동을, B 모둠은 SNS를 통해 ㉢ 일상을 꾸미고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C 모둠은 SNS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게 하였다. 30분이 지난 후 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신이 수행한 활동에서 SNS 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한 뒤 ㉣ 실험 종료를 알리고, 모든 참가자에게 다음 실험에 사용할 자료 정리를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자료 정리를 도와준 참가자의 비율은 A 모둠이 B 모둠보다 높게, C 모둠보다 낮게 나타났다.

- ① ㉠은 사전 검사에 해당한다.
- ② A~C 모둠은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 ③ ㉡과 ㉢은 모두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결과이다.
- ④ ㉣ 이후의 단계에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 ⑤ 다음 연구는 ‘정보 공유 중심의 SNS 활용은 일상 공유 중심의 SNS 활용과 달리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구자 갑은 ㉠ A국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에 ㉡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갑은 ㉣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 ‘최근 1년 내 투표를 한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효능감 지수(5점 만점)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갑은 A국의 ◇◇시 거주민 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최근 1년 내 투표 여부, 정치적 효능감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유무와 최근 1년 내 투표 유무에 따라 응답자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효능감 지수의 평균 점수는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 집단에서 4.2점,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이 모두 없는 응답자 집단에서 2.1점,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은 있으나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3.4점,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은 없으나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은 있는 집단에서 3.0점인 것으로 도출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갑은 그가 세운 가설을 ㉥ 검증하였다.

————— <보 기> —————

ㄱ. ㉠은 종속 변수, ㉡과 ㉢은 독립 변수이다.  
 ㄴ. 갑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시행하였다.  
 ㄷ.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ㄹ. ㉥에는 ㉣과 ㉤의 수용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2~05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스마트폰 알림이 고등학생의 학습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 고등학교 2학년생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 10명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한 뒤, 이들을 무작위로 A, B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은 스마트폰 알림이 2분 간격으로, B 집단은 10분 간격으로 울리는 환경 하에서 1시간 동안 동일한 난이도의 학습 과제를 1시간 동안 수행하게 하였다. 갑은 실험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집단 별로 미리 섭외한 행동 관찰자 2명이 실시간으로 ㉡ 시선의 흐트러짐 또는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할 등 주의 분산 여부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의의 분산 정도는 A 집단이 B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을은 현대인이 스마트폰 알림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을은 20대 직장인과 대학생 각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그들을 대상으로 ㉢ 스마트폰 알림에 대한 감정적 반응, 알림을 끄거나 무시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그들 중 2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을은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 면담 이후 일주일 동안 알림 수신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인터뷰와 일기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 스마트폰 알림에 대한 반응 패턴을 분석한 을은 알림이 대상자들에게 있어 외부의 통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감이나 연결감의 신호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 052

위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에서 독립 변수는 '스마트폰 알림의 횟수'이다.
- ② A 집단은 실험 집단에, B 집단은 통제 집단에 해당한다.
- ③ 갑의 연구에서 ㉠과 을의 연구에서 ㉡은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④ ㉢ 이후 진행된 을의 연구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 ⑤ ㉡은 을이 수집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 053

위 연구에서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과 달리 을은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유대 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 ③ 을과 달리 갑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권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인의 복종 수준의 변화'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갑은 ㉠ 직장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직장인 90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무작위로 A 집단, B 집단, C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갑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 다른 참가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점점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하라는 내용의 과제를 준 뒤 각 집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치를 하였다.

- A 집단: 흰 가운을 입은 실험심리학자를 권위자로 배치하여 해당 권위자에게 과제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도록 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형 권위자' 조건이었다.
- B 집단: 군복 차림의 군인을 권위자로 배치하여 해당 권위자에게 과제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도록 하였다. 이는 압박감을 바탕으로 한 '위협적 권위자' 조건이었다.
- C 집단: 캐주얼한 복장의 남성을 권위자로 배치하여 해당 권위자에게 과제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도록 하였다. 이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친근형 권위자' 조건이었다.

실험 결과, ㉢ 최대 전기 자극 단계까지 도달한 참가자 비율은 A 집단이 65%, B 집단이 80%, C 집단이 40%로 나타났다. 또한 ㉣ 실험에 따른 정서적 불안의 정도는 B 집단이 가장 높았고, A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C 집단은 중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갑은 그가 세운 가설을 모두 수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결론을 내렸다.

- ① ㉠은 사전 검사에 해당한다.
- ② A~C 집단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 ③ ㉢과 ㉣은 모두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다.
- ④ '전문성은 개인의 복종 수준에 친밀감보다 강한 영향을, 압박감보다 약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 ⑤ '권위자의 유형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 □□시에 거주 중인 주민 300명을 무작위로 모집한 뒤 그들을 100명씩 A~C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 아래와 같은 처치를 진행하였다.

- A 집단: 주변 인물들이 모두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 '작은 부정도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공간에 자리하게 하였다.
- B 집단: 주변 인물들이 모두 '조금 눈감아도 되는 거지', '성과만 좋으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효율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공간에 자리하게 하였다.
- C 집단: 주변 인물들이 특별한 가치 판단을 유도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화가 반복되며 특정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공간에 자리하게 하였다.

이후 갑은 세 집단 모두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여 ㉡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목격하게 한 뒤 부정행위 목격 여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모두에게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변한 참가자 비율은 A 집단에서 21%, B 집단에서 10%, C 집단에서 16%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설치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참가자 비율은 A 집단에서 6%, B 집단에서 9%, C 집단에서 6%로 나타났다.

- ① ㉠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 ② 갑은 그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 ③ ㉡은 독립 변인에 대한 처치에 해당한다.
- ④ 갑의 연구는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은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 ⑤ 갑의 연구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환경은 개인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056~057]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자 갑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게임 이용 원인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이에 갑은 매일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 4명과 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이 ㉠ 게임 이용 중 느꼈던 몰입 상태와 학업 태도 변화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게임 이용 원인을 ㉡ 스트레스 해소, ㉢ 사회적 관계, ㉣ 성취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후 갑은 게임을 주기적으로 하는 청소년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한 뒤,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는 지난 일주일간 게임을 통해 느낀 안정 수준으로, 사회적 관계는 게임 속 친구나 지인과 나눈 대화 빈도로, 성취욕은 지난 일주일간 게임 내 목표 달성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는 ㉤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성취욕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해소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해 그의 연구에서 성취욕, 스트레스 해소가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이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을은 ㉥ 갑의 연구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 동기가 확보된 1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취욕을 이유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게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학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성취욕이 학업 성취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을은 스트레스 해소가 게임 이용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학생들은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트레스 해소가 학업 성취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 056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갑의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의 결과에 해당한다.
- ② 갑의 연구에 따르면 ㉡, ㉢과 달리 ㉣은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④ ㉥은 갑과 을의 연구에서 모두 표본 집단이다.
- ⑤ 을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는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위 연구에서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과 달리 을은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③ 을과 달리 갑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통제된 상황 하에서 변인 처치가 이루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경쟁 상황이 협력적 과업 수행 방식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한 후 ㉠ 그들을 무작위로 두 모둠으로 구분하였다. 1일 차에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동일한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일자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참가자들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단순히 의견을 나누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발언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일 차에 갑은 각 모둠에게 전날과 동일한 과제를 다시 제시함에 더해 경쟁 모둠의 존재와 과제를 먼저 해결한 모둠에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해당 일자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 참가자들의 발언량은 전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제 수행과 직결되는 ㉢ 평가적·비판적 발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또한 두 모둠 모두에 있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일 차에 비해 2일 차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 ①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한다.
- ② 독립 변수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처치되었다.
- ③ ㉡과 달리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④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 ⑤ 다음 연구는 '경쟁 상황은 과업 수행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059~06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자 갑은 중학생들의 ㉠ 환경 보호 행동과 친환경 소비 의도에 학교 교육과 가정 환경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갑은 ㉡ 가설을 설정한 후 ○○시 소재 중학교 3곳에서 진행되었던 환경 교육 자료를 수집한 뒤 총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환경 교육과 가정 내 부모의 행동이 각각 친환경 소비 의도와 환경 보호 행동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 친환경 소비 의도에는 학교 교육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 보호 행동 의지에는 가정 내 부모의 일상적 실천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갑은 그의 가설을 수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렸다.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하여 ㉢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 강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였다. 을은 프로그램을 완성한 뒤 자신이 개발한 수업은 기존의 수업에 비해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에 더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 가설을 세웠다. 이후 을은 □□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각각 50명씩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고, 3개월 동안 A 집단에는 자신이 개발한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고, B 집단에는 기존의 이론 중심 환경 교육 수업을 지속하였다. 실험 전후 을은 갑이 조사한 것과 같은 설문 항목을 통해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 A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가 ㉥ B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보다 더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059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일치한다.
- ② ‘학교 교육은 가정 환경과 달리 친환경 소비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에 적절하다.
- ③ 을은 사전 검사와 달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④ A 집단은 실험 집단에, B 집단은 통제 집단에 해당한다.
- ⑤ ㉣은 실험 전후 ㉤의 변동폭과 ㉥의 변동폭 간 차이로 인해 수용될 것이다.

## 060



위 연구에서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을과 달리 갑은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② 을과 달리 갑은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갑과 달리 을은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2차 자료의 수집에 용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061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구조의 압력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아무리 각 개인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사회 속에서 희석되며, 반대로 개인이 가진 낮은 능력 또한 사회라는 암막 뒤에 숨겨진다. 결국 이는 개인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보 기> —————

- ㄱ.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 ㄴ.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 ㄷ. 개인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 ㄹ.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2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세대를 따라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신념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서 접근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을 구성하는 종교적 전통, 정치적 세계관, 언어 등은 개인적 차원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 및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각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 <보 기> —————

- ㄱ.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 ㄴ.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ㄷ. 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ㄹ.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는 수많은 개인들의 정치적·행정적 행위를 추상화해서 부르는 명칭일 뿐, 독립된 실체는 아니다. 또한 ‘계급’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경제적 지위나 이해관계가 유사한 개인들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회 개념은 개인의 인식과 언어적 구성에 의한 것일 뿐, 실재하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보 기>

- ㄱ.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 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한다.
- ㄷ.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ㄹ.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와 구조에서 찾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년기 아동의 사회화는 개별 아동이 주변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아동은 부모, 교사, 친구 등 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언어, 규범, 역할 등을 학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에게 형성된 기대,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관습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화는 그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보 기>

- ㄱ.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 ㄴ.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고 본다.
- ㄹ.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5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과 같다. 강물은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 흐르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은 개별 물방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그 구조와 규범, 제도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다. 개인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보 기>

- ㄱ.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 ㄴ.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ㄷ.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ㄹ.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6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이 아닌 각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다. 사회라고 불리는 것들은 결국 각 개인의 선택과 행동,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이 변하면 사회도 변하며,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이루는 제도나 규범 또한 본질적으로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합의에 불과하다.

<보 기>

- ㄱ. 사회가 개인에 비하여 우월한 존재라고 본다.
- ㄴ. 사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실재한다고 본다.
- ㄷ.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사적 이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7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청소년 비행’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나, 어떤 행위가 비행으로 규정되는지는 시대와 문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집단에서는 ‘개성’으로, 다른 집단에서는 ‘일탈’로 여겨지며, 이는 ‘비행’이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람들의 의미 부여를 통해 구성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 <보 기> —————
- ㄱ.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ㄴ.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ㄹ.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8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는 마치 여러 조각이 모여 만들어진 퍼즐과도 같다. 퍼즐은 그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뿐이다.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그림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각 퍼즐 조각에 대응되는 개인들의 집합을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 <보 기> —————
- ㄱ.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 ㄴ.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ㄷ.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ㄹ.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각 개인이 가진 특성 자체를 놓고 살펴본다면 그들은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각자가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개인이라는 행위체가 그 외의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기능한다.

— <보 기> —

- ㄱ.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 ㄴ.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 ㄹ.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혁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장 자율성’은 시장이 국가나 집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해당 개념의 존재성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개인들의 교환 행위를 넘어선 법과 제도, 사회 규범 속에서 작동하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회가 만든 규칙과 집단적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해당 개념은 허구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보 기> —

- ㄱ.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ㄴ.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위치해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ㄹ.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071

다음은 질문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A	B
개인의 발전을 곧 사회의 발전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 ① A는 B와 달리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 ② A는 B와 달리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개인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 ④ B는 A와 달리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⑤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072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기계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 간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품은 기계를 구성하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기계는 각 부품이 가지지 못한 속성까지 가지게 됩니다.

을: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원자와 사물 간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기에, 원자의 특성 이상의 무언가를 고유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 ②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 ③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한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에서 찾는다.
-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음 글에서 비판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고 그 한계를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라는 것을 망각한 시선에 불과하다. '사회 구조', 즉 '공동체'는 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 개개인의 이익을 전부 합한 것일 뿐이다.

— <보 기> —

ㄱ.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외재성을 가진다고 본다.  
 ㄴ.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ㄷ.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ㄹ. 사적 이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성명: ○○○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을 각각 3가지씩 제시하시오. (단, 옳은 답을 쓴 경우 하나당 1점, 틀린 답을 쓴 경우 하나당 0점을 부여함.)

관점	A	B
답변	· 사회가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고 보이지 않는다. · 사적 이익의 총합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같다고 본다. · _____ (가)	· 사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실재한다고 본다. ·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외재성을 가진다고 본다. · _____ (나)
점수	4점	

- ① A는 B와 달리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B는 A와 달리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③ A와 B는 모두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된다고 본다.  
 ④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⑤ '사회가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07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십시오.

대답	대답에 맞는 질문	채점 결과
예	A는 B와 달리 [가] 라고/고 보는가?	㉠
아니요	B는 A와 달리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라고/고 보는가?	0점

\* 교사는 완성한 질문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질문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ㄴ. (가)에 '사회는 개인에게 외재성을 가진다'가 들어간다면, ㉠은 '1점'이다.  
 ㄷ. ㉠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의 구속성을 중시해야 한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07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중 하나임.)

<서술형 1>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십시오. (각 1점, 총 2점)  
 <서술형 2> B와 구분되는 A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십시오. (각 1점, 총 2점)

<학생의 답안 및 채점 결과>

문항	답안	채점 결과
<서술형 1>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
	(가)	
<서술형 2>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의해 구속된다고 본다.	
	(나)	

\* 교사는 답안별로 채점하고 답안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보 기>

ㄱ. ㉠에 '1점'이 들어간다면, A는 사회 실재론, B는 사회 명목론이다.  
 ㄴ. (가)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재한다고 본다.'가 들어간다면, ㉠에는 '4점'이 들어갈 수 없다.  
 ㄷ. ㉠에 '3점'이 들어간다면,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ㄹ. (가)에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가 들어가고 (나)에 '사회 문제 해결 시 제도 개혁보다 의식 개혁을 중시한다.'가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남으로 태어나 학창 시절 ㉡ 학교에서부터 ㉢ 모범을 보여 능력의 두각을 나타내던 갑은 ㉣ 회사에 취직한 후 ㉤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승진 가도를 이어 나갔다. 어느 날 갑은 유치원에 ㉥ 딸을 데리러 가던 중 ㉦ 회사의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할지 ㉧ 고민하게 되었다.

- ① ㉠과 ㉢은 모두 갑의 귀속 지위이다.
- ② ㉡과 ㉣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③ ㉢과 ㉤은 모두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 ④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 ⑤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07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등학교에 다니던 갑은 학업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 아버지가 운영하던 ㉢ 소규모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갑은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였던 을을 만났고, 을이 입고 있던 ㉣ 소방관 제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갑은 ㉤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 소방학교에서 기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 소방서에 발령받아 근무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① ㉠에서는 ㉢과 달리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 ② ㉡은 ㉣과 달리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④ ㉥은 갑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 ⑤ ㉦은 갑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갑은 여러 차례 문학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 ㉡ 대학 문학 동아리 선배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소설집 출간에 도전하였다. 갑은 첫 작품임에도 사회적 비극을 소재로 한 단편 소설을 통해 인간 내면의 아픔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을은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작품들은 전문 문예지에 실리며 인정받았고, 그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을은 갑을 자신의 문학 프로젝트에 참여시킬지 ㉣ 고민하고 있다.

- ① ㉠과 ㉢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은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 ③ ㉢은 을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 ④ 갑은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경험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였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형 광고대행사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 기획자 갑은 최근 ㉡ 오랜 근속과 성과를 인정받아 자신이 속한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대행사의 새로운 친환경 브랜드 론칭 캠페인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으나, 해당 일정이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과 겹치게 되어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 고민 중이다. 한편 사회 불평등과 정치 구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 뒤 졸업 후에는 시사 전문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노동, 복지, 기후 등 의제를 다룬 기사로 주목받은 을은 ㉣ 진보주의 기자의 지향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 한 진보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되었다. 을은 이를 ㉥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정당의 강경 노선이 자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 갈등 중이다.

- ① ㉠은 갑의, ㉢은 을의 성취 지위이다.
- ② ㉡은 갑의 역할에 해당한다.
- ③ ㉢은 갑의, ㉤은 을의 역할 갈등이다.
- ④ ㉥은 을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 ⑤ ㉥은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08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은 관광 관련 기업에 입사하고자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지역 축제 기획을 도맡아 온 작은 문화 기획사에서 인턴을 제안받았다. 회사의 작은 규모에 잠깐 망설였지만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고려해 갑은 인턴을 수락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입사 시 가지고 있던 목적을 실현했다는 생각에 갑은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 을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IT 대기업에 입사하여 최신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 측은 을에게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고, 강한 윤리적 갈등을 느낀 을은 고민 끝에 해당 기능의 문제점을 사내 제안서로 정식 제출하고, 내부 기술 윤리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져 프로그램 구조가 변경되었고, 을은 사내 윤리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보 기>

ㄱ. 갑과 달리 을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  
 ㄴ. 갑과 을은 모두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ㄷ. 을과 달리 갑은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84

사회 조직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임.)

· A는 모두 B에 해당한다.  
 · A의 구성원은 모두 C의 구성원이다.

- ① A는 C와 달리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② C는 A와 달리 B에 해당할 수 없다.
- ③ 모든 A는 C에 해당한다.
- ④ ‘시민 단체’는 B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노동조합’은 A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085

다음은 고등학생 갑의 하루 일정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시 40분~12시 30분: ㉠ 학교 수업
- 13시 30분~14시 30분: ㉡ 교내 학생회 주관 행사 참석
- 16시 30분~17시 30분: ㉢ 학교 운영 위원회 참관
- 18시 00분~19시 00분: ㉣ 가족과 함께 외식
- 19시 30분: 20시 30분: ㉤ 학교 연합 환경 보호 단체 활동

- ① ㉠은 ㉣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② ㉡은 ㉣과 달리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③ ㉢은 ㉠과 달리 갑의 내집단에 해당한다.
- ④ ㉣은 ㉢과 달리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⑤ ㉤은 ㉡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08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임.)

표는 사회 집단 ㉠~㉣이 A~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A	B	C
㉠	○	×	○
㉡	×	×	○
㉢	×	○	×

\*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보 기> —————

ㄱ. 모든 A는 B에 해당한다.  
 ㄴ. A와 B는 모두 C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사내 테니스 동호회'는 ㉠에 해당할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은 ㉡이 아닌 ㉢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교수: □□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은 강의가 끝난 후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갑: 병과 함께 활동 중인 총학생회 회의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 합니다.  
 을: 제가 속한 환경 단체에서 주관하는 ◇◇ 캠프에 참여한 후, 헬스장에 가려 합니다.  
 병: 갑이 이야기한 총학생회 회의를 마친 후, 같은 대학 축구 동아리 회원 을을 끌고 축구를 하려 합니다.

- ① 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을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② 병이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갑이 속한 공동 사회의 개수와 같다.
- ③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갑과 병이 함께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을과 병이 함께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갑이 속한 1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자발적 결사체와 병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회사 직원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저는 시민단체 회의에 참여한 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을: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모임에 참여한 뒤, 병과 함께 사내 노동조합의 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도 시간이 남으면 오랜만에 헬스를 하러 가겠습니다.  
 병: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진 뒤, 사내 게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갑 팀장님도 게임 동아리 활동 있는 것 잊지 않으셨죠?

- ① 갑의 발화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의 발화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1개 많다.
- ② 병의 발화에 나타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보다 1개 적다.
- ③ 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보다 2개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⑤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동 사회의 개수보다 1개 많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인생은 한 방> 대본

[장면 1] (내레이션): 이번회는 젊은 나이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집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들어볼까요?

[장면 2] 갑: △△ 기업을 창업해 CEO로 활동 중입니다. 기업이 안정화된 지금 크게 할 일은 없고, 여유 시간에는 주로 골프 동아리에서 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대학을 다닐 때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지만, 나름 만족합니다.

[장면 3] 을: □□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쭉 가지고 있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 행복하네요. 그리고 세상 참 좁은 게, 며칠 전 같은 고등학교 출신 총동창회에서 얼굴을 본 병이 저기 있네요?

[장면 4] 병: ○○ 은행의 지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갑과 같은 대학을 나온 뒤 서로 소식이 끊어진 채 살았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방송이 끝난 뒤 제가 활동하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봐야겠네요.

- ① [장면 1]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장면 2]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② [장면 3]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③ 갑이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와 같다.
- ④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과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모두 존재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웹드라마 '나락도 락이다' 시나리오	
[장면 1]	서울 외곽, 지하에 숨은 작은 카페. 독서 모임에 들락거리던 공식생 갑이 문제집과 소설책을 든 채로 들어오다, 운동복 차림으로 셀카를 찍는 헬스 동호회 회원 을과 마주친다. 조심스레 서로의 현재를 묻던 중, 갑의 대학 동기인 병이 카페에 들어온다.
[장면 2]	을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병, 서로의 이름을 교환하고 말을 놓을 새도 없이, 같은 편입 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정과 무가 나타난다. 인디밴드에서 활동하기에 기타를 멘 채 비에 젖은 전단지들 들고 있는 무의 모습에 순간 병씨는 갑과 을.
[장면 3]	같은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을과 정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원래 친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사람. 하지만 이는 각자의 신세 한탄에 가깝다. 그러던 중 나락에 빠진 김에 자신의 '나락 밴드'에 들어오라고 모두에게 제의하는 무. 모두들 이를 받아들인다.

- ① [장면 1]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장면 2]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② [장면 3]에 나타난 사회 집단의 개수는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③ 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을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무가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와 같다.
- ⑤ 갑과 정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과 을과 정이 함께 속한 공식 조직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지니어스> 대본

[장면 1] 사회자: 이번 회에서는 ○○대학교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대표로 소개를 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장면 2] 갑: 안녕하세요!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갑이라고 합니다. 경영 대학원에서 인턴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을의 소개로 본 프로그램에 출연자로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진짜로 될 줄은 몰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장면 3] 병: 제가 □□방송국에 촬영하러 오다니, 아직도 안 믿기네요. 매일 반복되는 총학생회 회의, 회사 인턴에 치여 무료해지던 일상에 드디어 한 줄기 재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장면 4] 무: 갑의 제안에 특별한 생각 없이 참가했는데, 여기서 같은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을과 같은 동창회 소속 정을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매일 느끼는 건데, 세상 참 좁은 거 같아요.

- ① 갑의 소개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병의 소개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1개 적다.
- ② 무의 소개에 나타난 2차 집단의 개수는 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③ 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④ 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무가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⑤ 갑과 을이 모두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정과 무가 모두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1개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형제 사이인 갑~병이 사회에서 일련의 일들을 겪어 나가는 사례를 모둠별로 이어서 창작해 보세요.

<1 모둠> 전달 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갑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을의 대학 등록금과 병의 고등학교 학비를 생각하며 버팁니다.

<2 모둠> 시험 기간, 대책없이 20학점을 수강신청한 을은 밴드부 연습과 총학생회 회의를 마친 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불현 듯 생각난 과외 보강 일정에 을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3 모둠> 올해 수능을 치르는 병은 학원 상담을 마친 뒤 학교 기숙사로 이동합니다. 같은 축구 동아리 친구들이 놀자고 제안하나, 병은 공부를 해야 하기에 이에 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 <보 기> —

ㄱ.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는 병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ㄴ. 을이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1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의 2배이다.

ㄷ. <2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3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0부작 드라마 <이상과 이하> 시나리오	
1회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한 갑은 직장 동료 을 만나 사내 노동조합에서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장의 등장에 아무 이야기도 안한 척 자리를 옮긴다. 고된 직장 생활이지만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 정이 등록금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버텨 나간다.
2회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한 정은 학문이 맞지 않아 입시에 다시 도전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던 중 같은 대학 테니스 동아리 소속의 고등학교 동창 병이 다가오고, 그는 정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조언을 준다. 하지만 정에게 이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기에 할 수 있는 소리일 뿐이다.
3회	갑은 아들 정이 총학생회 활동 중 학교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갑은 법조계에 인맥이 있는 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을은 자신이 속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갑과 을.

<보 기>

- ㄱ. 1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2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ㄴ. 3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2차 집단의 개수는 을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와 같다.
- ㄷ.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와 같다.
- ㄹ.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과 을이 동시에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와 같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러브라인> 편집본 자막**

사회자: 인연의 끈, <러브라인>! 이번 회에는 총 다섯 분의 참가자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원하시는 분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남겨 주실 수 있나요?

갑: 을과 같이 □□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공학을 전공 중이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산업공학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여유 시간에는 여행 연합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활동 중인 정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병: ○○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해 이쪽으로 확고하게 진로를 정할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해 다른 길을 찾아볼까도 고민 중이네요. 며칠 전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에게 관련하여 조언을 들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무: 현재 5급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을과 같은 고시 스테디에서 공부 중입니다. 합격만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기약없는 수험 생활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갑과 함께 주말마다 활동 중인 축구 동호회에서의 활동은 삶의 애환을 녹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 ① 갑의 발화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병의 발화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와 같다.
- ② 무의 발화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와 같다.
- ③ 을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무가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1개 많다.
- ④ 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정 또는 무가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1개 적다.
- ⑤ 갑 또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개수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버려진 공간의 재탄생,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

건축가 갑은 방치된 공장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의 계획에 맞서, 공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재개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 공간을 복합 문화 단지로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사내 자전거 소모임에서 알게 된 한 사업가와 같이 자신의 구상을 가상현실 모델로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 이었고, 이는 곧 SNS 상에서의 강력한 여론이 되어 공장 보존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그의 재개발안은 채택되었고, 해당 장소는 지역 경제와 동호회를 살리는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남게 되었다.

— <보 기> —

ㄱ. 자료에 적혀 있는 갑의 성취 지위의 개수는 전체 성취 지위의 개수보다 1개 적다.  
 ㄴ.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보다 1개 많다.  
 ㄷ. 자료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적혀 있다.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3개 많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A는 단순 반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구성원의 자율성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반면 B는 정부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의성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 <보 기> —

ㄱ. A는 B에 비해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한다.  
 ㄴ. A는 B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ㄷ. B는 A와 달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ㄹ. B는 A에 비해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구분	A	B
성과보다 경력에 따른 신분 보장을 중시하는가?	예	아니오
(가)	예	예

- ① A는 B에 비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 ② A는 B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지배적인 사회에 적합하다.
- ③ B는 A에 비해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④ B는 A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강조한다.
- 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98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근대 산업 사회는 모든 행위의 연속이 조직체의 목표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도록 명백하게 규정된 활동 유형을 지닌 A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A는 전반적인 효율성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자기 오류에 빠진 A의 대안으로 제안된 새로운 사회 조직 운영 원리가 바로 B이다.

- ① A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B는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 ③ A는 B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높다.
- ④ B는 A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 ⑤ A와 B는 모두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A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방식은 주요 의사결정을 현장 관리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고, 고객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구조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사결정이 상층부에 집중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중시하는 B에 따른 방식과는 운영 철학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 ㄴ.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 ㄷ. B는 A와 달리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ㄹ. B는 A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A는 수직적인 위계 서열 구조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를 의미하는 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형태로, 수평적인 조직 체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 ㄴ. A는 B와 달리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ㄷ. B는 A에 비해 구성원 간 역할 구분이 확실하다.
- ㄹ. B는 A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1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각자가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스스로 팀장을 선출하는 등 유연한 환경 하에서 근무하는 을을 부러워한다. 반면 ◇◇ 회사에서 근무하는 을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각자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환경 하에서 근무하는 갑을 부러워한다. □□ 회사는 A, ◇◇ 회사는 B에 따라 운영된다.

<보 기>

- ㄱ.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 ㄴ. A는 B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ㄷ. B는 A에 비해 경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ㄹ. B는 A에 비해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2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 회사에 재직 중이던 갑은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실제 성과보다는 절차 이행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창의성 및 자율성 저해에 염증을 느껴 □□ 회사로 이직하였다. 한편 □□ 회사에 재직 중이던 을은 수평적, 자율적인 구조로 인한 조직 통제와 조율의 비효율성, 모호해진 책임과 권한의 경계로 인한 역할의 불분명화에 염증을 느껴 ○○ 회사로 이직하였다. □□ 회사는 A, ○○ 회사는 B에 따라 운영된다.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ㄴ. A는 B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ㄷ. B는 A에 비해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크다.
- ㄹ. B는 A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A에 따라 운영되는 ○○ 기업에서 근무하는 갑은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옷을 챙겨입고, ㉠ 아내에게 딸의 등교를 부탁한 뒤 가까스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 사전에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상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 문 앞에 붙어있는 '외근 중' 안내판을 보고 빈손으로 자리에 돌아갔다. 반면 B에 따라 운영되는 □□ 기업에서 근무하는 을은 자동차로 ㉣ 아들의 등굣길을 함께한 뒤 ㉤ 근처 카페에서 잠시 업무 자료를 검토한 후 출근한 뒤 시간을 기록하였다. ㉥ 최근 회사에서 도입한 실험적 프로젝트에 팀장으로 지명된 을은 사내 공모를 통해 팀원들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첫 회의에서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 ① A에 비해 B는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강조된다.
- ② B에 비해 A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높다.
- ③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④ ㉡은 갑의, ㉤은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 ⑤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은 을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아래의 네 가지 진술 중 A와 달리 B가 '예'로 답할 질문의 개수는 B와 달리 A가 '예'로 답할 질문의 개수보다 적다.

질문 1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질문 2	경력에 비해 능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가?
질문 3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가?
질문 4	(가)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 ㄴ. B는 A와 달리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ㄷ. '업무 체계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연구 보고서>

- 연구 주제: 배우자 간 선호하는 조직 운영 방식 비교
- 조사 대상: 부부 100쌍(남성, 여성 각 100명)
- 조사 방법: 전형적인 조직 운영 방식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함. (단,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음.)
- 조사 결과
  -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하고, 여성은 B를 A보다 1.5배 선택함.
  -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B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임.
- 결과 분석: A를 선택한 사람은 '구성원이 가진 업무 재량권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됨.

<보 기>

- ㄱ.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방식을 부부가 함께 선택한 경우는 30쌍이다.
- ㄴ.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방식을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와 같다.
- ㄷ. 목적 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한 방식을 선택한 남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와 같다.
- ㄹ.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방식을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여성 수는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남성 수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일탈 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A는 B, C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참이다. 또한 'A, C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는 거짓이다.

- ① A는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② B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③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의 학습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A는 B와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⑤ B는 C와 달리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구분	A	B	C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	㉠	㉡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	㉠

\* ㉠, ㉣은 각각 '예', '아니요' 중 하나임.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A는 B와 달리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③ B는 C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C는 A와 달리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 ⑤ A, B는 C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은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갑: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전과자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을: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수감 기간 중 반성과 교화를 기대하나, 수감자들은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범죄 수법과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을 학습하여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병: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과 상관없이,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아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 결과 형성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②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갑,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⑤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일탈 이론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교사: 일탈 행동을 하게 된 가상의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1 모둠>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범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된 갑은 결국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회의 낙오자 취급을 받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모둠>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던 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 출소 후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 모둠> 전쟁이 끝난 후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으로 방황하던 병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줄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사람들로 부터 받은 범죄자로서의 취급에 낙담한 그는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교사: 갑의 일탈 행동은 A와 B, 을의 일탈 행동은 B와 C, 병의 일탈 행동은 A와 D를 통해 설명할 수 있네요.

- ① A와 달리 B는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② B와 달리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 ③ C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D와 달리 A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 ⑤ A, C는 B, D와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학생별 학습 과제>

학생	과제
갑	A의 관점에서 주어진 질문에 옳게 답변하기
을	B의 관점에서 주어진 질문에 옳게 답변하기
병	C의 관점에서 주어진 질문에 옳게 답변하기

<과제 수행 및 채점 결과>

구분	학생		
	갑	을	병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	예	예	아니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예
(가)	아니요	예	아니요
점수	2점	3점	1점

\* 교사는 답변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B는 C와 달리 일탈의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마련을 강조한다.

ㄷ.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ㄹ.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두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일탈 행동 사례>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선이자 인생의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국가에서 태어난 갑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으나,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고자 갑은 절도를 저질렀고, 결국 발각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출소 후 갑은 일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범죄를 이어 온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불법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범죄에 뛰어들게 되었다.

군 의무 복무 중 전쟁이 일어나 수 년간 파병 생활을 이어 나가야만 했던 을은 제대 이후 사회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였다. 그러던 중 을은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말에 넘어가 불법 도박 총판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당해 전과가 남게 되었다.

<교사의 해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일탈 행동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을의 일탈 행동은 B가 아니라 C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A는 B와 달리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② B는 C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③ C는 A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④ A는 B,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 ⑤ C는 A, B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교사: 두 가지의 일탈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각자 만들어 보세요.

갑: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며 범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되어 결국 범죄에 가담해 수감생활을 한 후, 출소 이후 급격히 변화한 사회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으로 방황하다 다시 범죄자가 된 사례는 A와 B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는 시선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 또한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 들어가 다른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 재범을 저지른 사례는 B와 D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로 부터 날아오는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B와 D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갑은 두 가지 일탈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을은 두 가지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었네요. 병은 (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① '두 가지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 ③ B와 달리 C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C와 달리 D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 ⑤ D와 달리 A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성취도 평가>

※ 다음의 세 가지 사례에 일탈 이론을 각각 올바르게 연결하기 (단, 옳게 연결한 이론은 1점, 옳지 않게 연결한 이론은 0점을 부여함.)

구분	사례	답안	채점 결과
문항 1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했으나 실패하여 청부 폭행에 손을 댄 사례	A	0점
	절도로 교도소를 다녀온 뒤 범죄자라는 사회의 인식을 못 이겨 다시 절도를 저지른 사례	B	
	내전 중인 국가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규범을 배우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사례	C	
문항 2	계속해서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경쟁 회사에 입사해 기존 회사의 기밀을 넘긴 사례	B	2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된 뒤 이에 따른 부정적 평판에 체념해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례	C	
	불법 도박을 일삼던 친구의 권유에 자신도 불법 도박을 시작한 사례	D	

- ① 문항 2에서 옳지 않게 연결한 이론은 제도적 수단의 제공을 일탈의 대책으로 보는 이론이다.
- ② A는 B와 달리 일탈의 원인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제시한다.
- ③ B는 C와 달리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④ C는 D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의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시한다.
- ⑤ D는 A와 달리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일탈 이론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일탈 행동 사례>

오랜 기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사회에서 성장한 갑은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어떠한 행동이 옳고 어떠한 행동이 그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한 갑은 내전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화된 후에도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절도 등 범죄 행각을 이어 나갔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도소 내에서 갑은 다른 수감자로부터 범죄 기술을 배워 출소할 날만을 기다렸고, 출소 후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의 문턱을 다시 밟게 되었다.

학창 시절 모범생으로 불리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을은 이를 시기한 친구의 무고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고, 관련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은 성적을 올리는 등 만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했으나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시험 시간에 자신과 유사한 성적대에 위치해 교과 등급을 놓고 경쟁하던 자신을 무고한 친구의 책상 서랍에 커닝 페이퍼를 넣어놓아 부정 행위로서 적발되어 0점 처리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교사의 평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교도소 수감 이전 일탈 행동은 A를 통해, 교도소 수감 이후 일탈 행동은 C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이후 을의 일탈 행동은 D가 아닌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B는 A와 달리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②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보다 일탈 행동 자체를 중시한다.
- ③ D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 ④ A는 D와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 ⑤ A, C는 B, D와 달리 일탈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일탈 이론 A~D 중 제시된 특징을 갖는 일탈 이론만을 답란에 있는 대로 서술하십시오. (각 특징에 대해 옳은 답을 쓴 경우 1점, 옳지 않은 답을 쓴 경우 0점을 부여함.)

구분	답란	
	갑	을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제시한다.	㉠ A, C	C
일탈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 과정에 주목한다.	C, D	B, C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A, B, C	A, C, D
일탈 행동이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B	㉡ B
채점 결과	2점	2점

- ① A와 달리 B는 개인 간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 ② B와 달리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의 습득 과정에 주목한다.
- ③ C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D와 달리 A는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⑤ ㉠에 대한 채점 결과와 ㉡에 대한 채점 결과는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 제시된 일탈 이론 두 가지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일탈 행위 사례를 서술하십시오. (한 가지 일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서술당 1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함.)

일탈 이론	사례	점수
A, B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었던 갑은 미성년자의 몸으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자 했으나 매번 실패하였고, 결국 학교를 자퇴한 뒤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자신과 같이 학교를 자퇴한 친구들을 모아 절도 등 범죄 행위를 지속하였다.	1점
B, C	내전으로 인해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서 자라난 을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내전이 끝난 후 출소한 뒤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했으나 전과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취업에 성공할 수 없어 결국 자신에게 익숙한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0점
C, D	신생 독립 국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병은 그 나이대에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해, 유명무실했던 규범조차 그나마 습득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범죄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과가 생긴 병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기지 못해 자연스럽게 범죄를 이어 나갔다.	1점

- ① 첫 번째 사례에서 옳지 않게 활용된 일탈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양상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 ② 세 번째 사례에서 옳지 않게 활용된 일탈 이론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아노미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 ③ A는 B와 달리 낙인으로서의 일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일탈의 대책으로 강조한다.
- ④ B는 C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의 기술이 습득된다고 본다.
- ⑤ C는 D와 달리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의 대책으로 강조한다.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질문과 교사의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단원 확인 평가〉		
※ 제시된 3가지 일탈 이론 중 한 가지 일탈 이론만 '예'로 답할 질문을 작성하시오.		
일탈 이론	질문	평가 결과
A, B, C	일탈 행동이 상호 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하는가?	맞음
A, B, D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	틀림
A, C, D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	㉠
B, C, D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틀림

- ① ㉠에 들어갈 것은 '맞음'이다.
- ② A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 ③ B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④ C는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⑤ D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자료 1> 갑~병의 일탈 행동 사례

갑	범죄자 친구와 같이 생활하며 관련 기술을 배워 그가 저지르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감 생활 이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이기지 못해 다시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음.
을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될 방법을 찾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출소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 끝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
병	학창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들어간 소년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운 뒤 사회로 나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다시 범죄 행위를 하게 됨.

<자료 2> 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교사의 채점 결과

구분	A	B	C	D	채점 결과
갑	㉠ x	x	○	x	1점
을	x	㉡ ○	x	x	3점
병	○	x	○	x	0점

\* 옳게 응답한 적용할 수 있는/없는 이론 1개당 1점을 부여하고, 만점은 4점임.

- ① ㉠에 대한 채점 결과와 ㉡에 대한 채점 결과는 같다.
- ② A는 B와 달리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③ B는 C와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 ④ C는 D와 달리 일탈 집단과의 교류로 일탈이 학습된다고 본다.
- ⑤ D는 A와 달리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발생에 관심을 둔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요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점수	질문	답변		
		갑	을	병
1점	A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예
2점	D는 C와 달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2점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아니요	아니요
3점	B는 D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채점 결과		4점	5점	3점

\* 교사는 답변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답변에는 각 질문에 배정된 점수를, 옳지 않은 답변에는 0점을 부여함.

-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 A는 B와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 B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이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 C는 D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D는 A와 달리 아노미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요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교사: 아래 사례에 대해 일탈 이론 A~D를 적절하게 적용해 보세요.

일탈 행동 사례	
갑	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갑은 갑작스런 실직 이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 갑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와중, 동창회에서 만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곧 그들을 따라 갑은 불법 도박에 점차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로서 얻은 수익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요즘은 정직하게 살기 어렵다"는 말에 점점 공감하게 되었고, 결국 사이트 관리자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을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를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학벌도, 자본도 부족했기에 성공을 위한 도전을 연달아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사기 행위를 통해 빠르게 돈을 벌고자 결심하였다. 마음 한 켠 죄책감은 "이렇게라도 성공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 합리화되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받고 사회에서 배제되자, 을은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며 더 대담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학생: ㉠ 회사를 그만둔 직후 갑의 일탈 행동에는 B를, ㉡ 동창회에 나간 이후 갑의 일탈 행동에는 D를, ㉢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을의 일탈 행동에는 C를, ㉣ 체포된 후 을의 일탈 행동에는 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네 가지 일탈 이론 중 한 가지를 잘못 적용해서 설명했네요.

- 일탈 이론을 잘못 적용한 설명은 ㉢이다.
- A는 B와 달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B는 C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C는 D와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제시한다.
- D는 A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자료 1> 일탈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번호	질문
1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2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3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
4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5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

<자료 2> 각 질문에 대한 A~D의 답변 결과

구분	A	B	C	D
㉠		아니요	예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예		아니요
㉣	예			예
㉤	예	예	예	

\* ㉠~㉤은 1번 질문~5번 질문 중 하나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① 음영 처리된 부분 중 '아니요'가 들어갈 칸의 수는 '예'가 들어갈 칸의 수의 3배이다.
- ② ㉠은 3번 질문, ㉢은 1번 질문이다.
- ③ A는 B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④ B는 C와 달리 중상층 계층보다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C는 D와 달리 일탈 행동에 따른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 122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건강 염려증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현대인 사이에서는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관련 산업과 식이 요법 등이 소개된 온라인 채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정신 건강 관련 진료를 받는 의료 산업 분야 역시 급부상하고 있다.

— <보 기> —

- ㄱ.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 ㄴ.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이다.
- ㄷ.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이다.
- ㄹ. 문화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2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유성, 변동성, 전체성 중 하나임.)

문화의 속성	사례
A	1990년대 후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당시 패션이 사라지고 30년이 지나 새로운 패션이 유행하고 있음.
B	세탁기의 발명은 가사 노동 방식, 여성의 사회 진출, 가옥 구조 등에 연쇄적 변화를 가지고 왔음.
C	(가)

- ① A는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 준다.
- ② B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점점 풍부해짐을 보여 준다.
- ③ C는 문화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보여 준다.
- ④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A보다 C로 설명하기 적합하다.
- ⑤ ‘중세 시대에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던 기사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칼을 뽑지 않겠다는 의미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김’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124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국가에서는 누군가가 성인임을 인정받으려면 발에 줄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서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 B 국가에서 공유되는 조개 목걸이와 팔찌는 타 국가 거주민에게는 평범한 장신구로 보이지만, 해당 국가 거주민에게는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

- 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② 문화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
- ③ 구성원 간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끔 유도한다.
- ④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짐에 따라 문화 요소들이 풍부해진다.
- ⑤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가져온다.

## 125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 (가) 우리나라에서 장작불은 과거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을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보일러 등이 널리 보급된 현재 장작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냉장고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냉장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음식의 대량 저장이 가능해졌고, 이는 매일 시장을 보던 습관의 소멸을 불러왔다. 또한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기능은 식생활의 다양화를 추동했다.

- ①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 ②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
- ③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한다.
- ④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⑤ 문화는 구성원 간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한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는 신년이 되면 신사를 찾아가 ㉠ '오미쿠지'를 뽑는 문화가 있다. ㉡ 오미쿠지는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종이 쪽지로, 사람들은 ㉢ 신사 내 설치된 상자에서 막대기나 쪽지를 하나 뽑고, 거기에 적힌 글귀를 통해 그 해의 전반적인 운세를 점친다. 최근에는 ㉣ 오미쿠지의 내용도 시대 흐름에 맞게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통적인 문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영어로 적힌 오미쿠지, 디지털 화면으로 운세를 보여주는 오미쿠지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에는 ㉤ 사람들이 가진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나름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본능이 깔려 있다.

- ① ㉠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은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③ ㉢은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 준다.
- ④ ㉣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 준다.
- ⑤ ㉤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총체임을 보여 준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촌 벌목 공동체 문화>

산촌에 거주하는 벌목꾼들은 작업 초기 ㉡ 노련한 벌목꾼이나 선배 일꾼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벌목 기술과 산림 지식을 익힌다. 이러한 전수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 산림 생태계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함께 배운다. 벌목꾼들은 도끼, 톱과 같은 ㉣ 벌목 도구를 사용하며,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지 않고 ㉤ 일정한 간격과 시기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나무를 베는 생태 친화적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매년 작업에 들어가기 전 산신제라는 의례를 통해 자연과 조상의 가호를 기원하는데, ㉥ 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익숙한 전통이며, 지역의 공동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 벌목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 규범, 경제 활동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

- ① ㉠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 ㉣은 모두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④ ㉣, ㉤에는 모두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⑤ ㉦에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주 한지 제작 문화**

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려 섬유를 고르게 풀어 낸 뒤, 발(簾)\*이라는 틀에 뜨는 ㉠ 방법을 통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장인은 ㉡ 종이 제작 기술뿐 아니라 한지를 다루는 가치와 태도를 익힌다.

장인들은 ㉢ 잣물, 닥풀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한지를 제작하는데, 한지는 ㉣ 강하면서도 통풍이 잘 되어 창호지나 서적뿐 아니라 의복, 예술품에도 널리 쓰인다. 또한 장인들은 ㉤ 한지를 만들기 전 고사를 지내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이러한 고사는 ㉥ 단순한 의례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한지는 구성원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공동체 문화를 함께 담아낸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닥나무: 한지 제작에 주로 쓰이는 나무  
\*\* 발: 한지 제작 시 물에 뜬 섬유를 건져내는 데 사용하는 틀

- ① ㉠은 비물질문화이다.
- ② ㉡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에는 ㉣과 달리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④ ㉤과 ㉥에는 모두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로서의 총체라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⑤ ㉦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이 나타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원 평가 과제>

성명: ○○○

\* ‘자전거’를 주제로 한 서로 다른 문화의 속성이 부각된 5가지 사례에 각 문화의 속성 5가지 중 하나를 적합하게 연결하기

번호	사례	문화의 속성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전거에 전동 보조, 라이트,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추가됨	A
2	(가)	공유성
3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워 나감	B
4	(나)	축적성
5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외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보기 어려워짐	C

교사의 평가: 세 가지 사례에만 부각된 문화의 속성을 적절하게 연결함.

- ① ‘자전거의 보급은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의 유행과 밀접하게 연관됨’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전동 자전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헬멧을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짐’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 향유하게 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 ④ B는 C와 달리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그 형태나 구성 요소, 의미가 변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 ⑤ C는 A와 달리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가) 전통 시장은 한때 낡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로 인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 시장만의 활기찬 분위기와 인간적인 소통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전통 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지고 있다.

(나) 과거 사회에서는 질병을 신의 벌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여 주술적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기에, 의학 기술의 발전과 후대로의 전수, 그에 따른 병원 중심의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문화는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진다.
- ②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 ③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한다.
- ④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된다.
- ⑤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다음 사례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촉진된 공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사회 구조, 특히 친족 문화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과거 근거리의 농촌 지역에서 살던 친족들이 도시로 감에 따라 대부분 흩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끈끈한 친족 문화도 사라졌으며,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무속 신앙도 사라졌다.

———— <보 기> ————

ㄱ.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의미가 변화한다.

ㄴ.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ㄷ.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향유되는 생활 양식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중 하나임.)

교사: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3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갑: 성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각종 공적 사무의 처리 절차를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C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 현대의 한글은 과거의 한글에 비해 여러 가지 자·모음이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 결과물이라는 것은 D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외발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E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을을 제외하면 모두 옳지 않게 발표했습니다. 갑은 누구나 알게 된다는 점에서 C라고, 병은 이전에 비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E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무엇이 '부각'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갑이 발표한 사례는 A, 병이 발표한 사례는 B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 ① A는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② B는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③ C는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④ D는 문화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⑤ E는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짐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중 하나임.)

교사: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하였습니다. 각 모둠은 게임과 관련하여 배정 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1 모둠> PC방을 찾는 사람이 줄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2 모둠> 특정 게임을 잘 하는 법을 친구에게 배워 실력을 늘리고 더 높은 랭크에 위치하는 것은 B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3 모둠> 기존의 게임에 증강 현실, AI 등의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어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C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4 모둠>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신규 게임 중 이를 활용하는 게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D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학생: 선생님, <4 모둠>이 발표한 사례는 D가 아니라 E가 부각된 것 아니에요?

교사: <4 모둠>이 발표한 사례는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E가 부각된 게 맞으며,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D가 아닌 A도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D가 부각된 사례는 정작 <2 모둠>이 발표했네요. ㉠ 한 개의 모둠을 제외하면 모두 옳지 않게 발표했습니다.

- ① ㉠은 <3 모둠>이다.
- ② A는 B와 달리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③ B는 C와 달리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④ C는 D와 달리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⑤ D는 E와 달리 문화의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중 하나임.)

교사: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듈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하였습니다. 각 모듈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음악 문화에서 찾아 발표해 봅시다.  
 <1 모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사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2 모듈> 발성법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수강생이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해 발성법을 배우는 것은 B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3 모듈> 이전과 달리 MP3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은 C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4 모듈> AI 관련 기술의 성장이 음악 작곡에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D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5 모듈> 음악 청취 어플리케이션에 공유, 댓글 달기 등 새로운 기능이 점점 추가되는 것은 E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교사: <3 모듈>의 사례는 이전에는 MP3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함축하기에 C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전과 달리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4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이 옳지 않게 발표했습니다.

- ①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B가 아니라 A이다.
- ② 문화가 시간이 지나며 그 내용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B가 아니라 C이다.
- ③ <3모듈>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④ <4모듈>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⑤ <5모듈>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중 하나임.)

교사: 문화의 속성 A~E 중 2가지를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갑: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에 한 번 밥이나 먹자는 말을 진짜 밥을 먹자는 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A, 과거에는 길거리에 신문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C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을: 원래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은 B, 어린 시절에 글자와 단어, 문장과 문법을 배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D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병: 특정 세대가 은어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사용하며 소통하는 것은 E, 스마트폰의 개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정: 대입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인터넷 강의 시장의 확대로 이어진 것은 B, 초기의 김치가 다양한 양념이 추가되며 다채로운 맛을 가지게 된 것은 C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교사: 갑~정 모두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옳게,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옳지 않게 발표했네요.

- ① 갑이 옳지 않게 발표한 사례는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이다.
- ② 병이 옳지 않게 발표한 사례는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이다.
- ③ A는 C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한다.
- ④ B는 D와 달리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한다.
- ⑤ C는 E와 달리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다음은 문화의 속성 A~E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이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 학습성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병
A는 문화가 한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가?	예	아니요	예
B는 문화가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가?	아니요	예	예
C는 문화가 전승되며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풍부해지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
D는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가?	예	아니요	예
E는 문화는 시간이 흐르며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점수	4점	3점	3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이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 ①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②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것은 A가 아닌 B의 사례이다.
- ③ 어린이가 수저를 사용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B가 아닌 C의 사례이다.
- ④ 이전과는 달리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C가 아닌 D의 사례이다.
- ⑤ 포크 숟가락 등 시간이 지나며 수저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D가 아닌 E의 사례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중 하나임.)

<단원말 평가 문항>

※ 제시된 1~3번 사례에 대해 문화의 속성 A~E가 부각되었으면 해당 칸에 ○, 부각되지 않았으면 해당 칸에 ×를 표기하시오.

<사례>

1번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전통 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굶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반면, 질병의 원인을 과학에 근거하여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찾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아픈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
2번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 아니리, 발림을 섞은 전통 민속악이다. 최근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한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판소리의 이야기가 갖는 서사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리듬과 흥겨운 춤이 더해져 판소리와 랩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3번	이앙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법은 기존 농법을 대체하였고, 농업인들은 속속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사라졌다. 주민들이 서로간 일을 돕던 문화는 어느새 상호 교류 없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며, 사라진 공동체 의식의 빈자리는 어느새 개인주의와 고립주의가 차지하게 되었다.

<답안 및 채점 결과>

구분	A	B	C	D	E	채점 결과
1번	×	○	×	○	×	13점
2번	○	×	×	○	○	
3번	×	×	×	×	○	

※ 교사는 표기별로 채점하고 표기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보 기>

ㄱ. 1번 사례에 대해 틀리게 표기한 속성과 2번 사례에 대해 틀리게 표기한 속성은 다르다.

ㄴ.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은 A가 아닌 C이다.

ㄷ.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B가 아닌 E이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D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13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구분	A	B	C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	㉡	㉢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	㉤	㉥

\* ㉠, ㉡은 각각 '예', '아니요' 중 하나임.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② A는 B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 ④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폄하한다.
- ⑤ C는 A, B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139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A국에 여행을 갔는데 신호등이 없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국은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를 본받아야 합니다.  
 을: A국의 교통 문화는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했을 때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훨씬 우월합니다. 우리도 자유를 중시하는 A국의 교통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병: A국은 A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름의 교통 체계가 존재하고, 이는 각 사회의 실정에 맞게 정착된 것이므로 모두 존중이 필요합니다.

- ① 갑의 태도는 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 ② 을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 ③ 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④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
- ⑤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타 문화를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려 한다.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A국 사람들은 연장자 앞에서 음료를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셔. 나이에 따라 예의를 중시하는 A국 사람들의 훌륭한 문화를 우리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

을: 굳이 음료를 마시면서까지 과도하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히려 A국 사람들이 편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병: A국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도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훌륭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 ① 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의 태도는 자문화와 다른 문화의 공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병의 태도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서로 다른 문화 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⑤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국에서는 최연장자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수저를 들지 않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래? 이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해.

을: 아니지. ○○국의 예의를 갖추는 문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이지. 넌 그 생각 좀 고쳐먹고 좀 예의 갖추고 살아라.

병: ○○국의 문화도, 우리나라의 문화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왜 그 문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 번 살펴보는 거야.

- ① 갑의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을의 태도는 타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을의 태도와 달리 갑의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을의 태도와 달리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행자: 승강기에서 타인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기는 A국의 문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봅시다.

갑: 과연 이걸 문화라고 불러야 할까요? 개인주의가 점점 주류가 되어가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국의 해당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과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을: 오히려 개인주의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기에 해당 문화가 더 빛나는 게 아닐까요? 잘못된 상황에 수긍하기만 하는 우리의 문화는 A국의 문화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병: 우리나라의 문화나, A국의 문화가 각 국가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어느 문화가 더 낫고, 또 어느 문화가 더 뒤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 ① 갑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 받는다.
- ② 을의 태도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 ③ 병의 태도는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④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 ⑤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는 A와 B를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다.
-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 는 A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 ①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③ B는 C와 달리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C는 A와 달리 국수주의로 인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 ⑤ A, C는 B와 달리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4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질문 [가]에 대한 A와 B의 응답은 서로 다르고, B와 C의 응답은 서로 같다. 단,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 또는 '아니요'이다.

<보 기>  
ㄱ. A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B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ㄷ.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중국의 중화사상을 예시로 들 수 있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교사: 문화 이해 태도 A~C 중 한 가지를 서로 다르게 선택한 뒤, 각 태도의 특징 한 가지와 비판점 한 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갑: A의 특징으로는 자기 문화를 타문화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비판점으로는 국수주의에 빠져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을: B의 특징으로는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비판점으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병: C의 특징으로는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비판점으로는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은 모두 적절히, ㉠ 한 명은 비판점을 적절하지 않게, 한 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게 제시했네요.

- ① ㉠은 병이다.  
② A는 B와 달리 다른 문화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③ B는 C와 달리 다른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한다.  
④ C는 A와 달리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⑤ A는 B, C와 달리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 (가)에 대한 '예', '아니오'에 대한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 (나)에 대한 '예', '아니오'에 대한 응답을 통해 A와 C를 구분할 수 있지만,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 ①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B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C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타문화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인가?'가 (가)에 들어가고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가 (나)에 들어간다면,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⑤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가?'가 (가)에 들어가고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가?'가 (나)에 들어간다면, B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문화 이해 태도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에 대한 '예', '아니오'의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 ① A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가)에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 우열을 가린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C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가)에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A가 문화 상대주의이고 (가)에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가?'가 들어간다면,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⑤ B가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가)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가?'가 들어간다면,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50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우리나라에서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 ① A는 C와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B가 될 수 있다.
- ② 모든 A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C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한 사회에서 C를 공유하는 사람은 B를 공유하지 않는다.
- ④ B는 모든 A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A, C는 B와 달리 한 사회 내 특정 집단만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5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사례>

T 시기 갑국 내에서 ○○ 의복은 일부 급진적인 조직의 청년들이 체제 저항의 상징으로 착용하는 의복이었기에, 해당 시기 ○○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던 중 T+1 시기 갑국 내에서 체제 붕괴가 일어나 ○○ 의복은 저항의 상징이 사라진, 그냥 청년 계층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이 되었다. 그리고 T+2 시기 이후 ○○ 의복은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갑국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늘 입는 의복이 되었다.

교사: ○○ 의복은 T 시기엔 (가) 해당하고, T+1 시기에는 A에만, T+2 시기에는 C에만 해당하는 문화입니다.

- ① (가)에 들어갈 것은 ‘B에만’이다.
- ② 모든 B는 A에 해당하나, 모든 A가 B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A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간 동질감 형성에 기여한다.
- ④ A는 B와 달리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이다.
- ⑤ C는 A, B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이다.

## 15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는 시기별 갑국에 존재하는 ◇◇ 문화, □□ 문화, ☆☆ 문화가 A~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구분	◇◇ 문화	□□ 문화	☆☆ 문화
t 시기	A, C	B	B
t+1 시기	A	A, C	A

- ① A는 B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동일감을 제공한다.
- ② C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t 시기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갑국에서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 ④ t+1 시기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갑국에서 반 문화에 해당한다.
- ⑤ 주어진 문화 중 갑국에서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하위 문화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15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교사: 문화 양상 A~C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각자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갑: 모든 A는 B에 해당하지만, 모든 B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사투리는 C의 사례입니다.  
 병: A는 C와 달리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정: B는 A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동일감을 제공합니다.  
 교사: ① 두 명의 학생이 옳지 않게 발표했네요.

- ① ㉠은 갑, 정이다.
- ②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없다.
- ③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는 C가 아닌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B를 공유하는 사람은 A를 공유하지 않는다.
- ⑤ A는 C와 달리 한 사회 내 특정 집단만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5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각 질문에 대한 A~C의 응답을 모두 적은 후, 그 중 일부 응답을 보이지 않게 가린 것이다.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반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중 하나이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와 '아니오'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인가?	아니오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인가?		예	
(가)	㉠	㉡	㉢

<보 기>

- ㄱ. 음영 처리된 부분 중 '예'가 들어갈 칸의 수는 '아니오'가 들어갈 칸의 수보다 적다.
- ㄴ. A와 B는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C로 변동될 수 있다.
- ㄷ. ㉡에 들어갈 응답과 ㉠, ㉢에 들어갈 응답이 서로 다르다면,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ㄹ. '한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 ㉡에 들어갈 응답과 ㉢에 들어갈 응답은 서로 다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자료는 갑국의 문화 ㉠~㉢이 t 시기와 t+1 시기에 A~C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A	B	C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① t 시기에 ㉠은 갑국의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② t+1 시기에 ㉡은 갑국의 반문화에 해당한다.
- ③ t 시기와 t+1 시기 모두에서 ㉢은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t 시기 주류 문화에 해당하면서 t+1 시기 반문화에 해당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 ⑤ t 시기와 t+1 시기 모두에 갑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표는 갑국에 존재하는 문화 1~문화 3이 시기 1과 시기 2에 A~C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시기 1			시기 2		
	문화 1	문화 2	문화 3	문화 1	문화 2	문화 3
A	○	×	×	×	○	×
B	×	○	×	×	×	○
C	○	×	○	○	○	×

\*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① 모든 C는 A에 해당하나, 모든 A가 C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B는 C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이다.
- ③ 문화 1~문화 3 중 시기 1과 시기 2 모두에서 갑국의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 ④ 시기 2와 달리 시기 1에 문화 1은 갑국 전체 구성원 간 문화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문화이다.
- ⑤ 시기 1과 달리 시기 2에 문화 2는 갑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문화 양상 탐구 사례>

1980년대 일부 예술 집단에서 주로 향유되던 (가) 문화는 폐공장 벽면이나 지하철 외벽에 대담한 색채와 기호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낙서 예술로 이루어졌다. 당시 해당 문화는 불법성과 사회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도시의 회색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찾던 사람들로부터 (가) 문화는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덜어내게 되면서 해당 문화는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도 활용되며 대중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자리잡았다.

1950년대 (나)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잡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나) 문화는 성차별적 사고에 근거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압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제도와 교육 영역에서 점차 폐기되었다. 거기에 해당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고정적 성 관념을 주류 사회에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문화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보수주의적 퇴행으로 간주되었다.

갑: (가) 문화는 1980년대에는 B에, 2000년대 이후에는 A에 해당하는 문화입니다.

을: (나) 문화는 1950년대와 달리 1970년대 이후에  ㉠에 해당하는 문화입니다.

교사: 모두 옳게 설명하였습니다.

- ① ㉠에 들어갈 것은 'C'이다.
- ② A는 C에 비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한다.
- ③ B와 달리 C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는 문화는 C의 예시에 해당한다.
- ⑤ A는 B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이다.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의 '오토바이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갑국의 퇴역 군인들은 오토바이를 타며 함께 모이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군대식 전우애와 모험심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있어 오토바이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고, 해당 문화는 청년들의 젊음과 혈기왕성함을 상징하는 주류 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잡지와 영화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일부 오토바이 클럽들이 폭력 사건과 범죄에 연루되면서 오토바이 문화 역시 주류 사회 질서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계가 점차 고착화되며 언론과 경찰은 오토바이 클럽에 속한 사람들을 무법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클럽에 속한 사람들 역시 해당 시선을 받아들여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오토바이 문화는 주류 사회에 대한 저항과 일탈을 상징하는 문화가 되었다.

<보기>

- ㄱ.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주류 문화였다.
- ㄴ. 1950년대 후반에 하위문화였다.
- ㄷ. 반문화로 규정됨에 따라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표는 갑국에 존재하는 문화 1~문화 3이 (가) 시기와 (나) 시기에 각각 A~C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가) 시기		
		A	B	C
(나) 시기	A	문화 2		문화 3
	B		문화 1	문화 1
	C		문화 1	

- ① A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 ② B는 A보다 사회 전체의 문화 동질성을 높이는 데 더 크게 기여한다.
- ③ (가) 시기와 (나) 시기 모두에서 갑국의 반문화에 해당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 ④ 우리 사회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문화는 (가) 시기 문화 3의 사례로 들 수 있다.
- ⑤ 조직폭력배의 범죄 문화는 (가) 시기와 (나) 시기 문화 2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는 ㉠ 식사 중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전통적 문화가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그러던 중 한 교육자가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갑국의 A 지역 학교 급식 시간에 '식사 대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 했지만 교사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 전통적 침묵 식사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A 지역 사람들을 가족 질서를 해치는 자들로 여기며 비난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역 학교와 가정서 ㉣ 대화가 늘어난 이후 학생들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가족 내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갑국 전역에서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서서히 받아들여졌고, ㉤ 결국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되었다.

- ① ㉠에는 강압에 의한 일시적 사회 통합의 양상이 나타난다.
- ② ㉡은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의 목적을 가진 하위문화이다.
- ③ ㉢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간 변동 속도 차에 따른 결과이다.
- ④ ㉣은 하위문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 ⑤ ㉤에는 주류 문화가 그 성격을 잃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문제>

번호	문제	
1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십시오.	
2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십시오.	
3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십시오.	

<서술형 평가 문제>

번호	문제	점수
1	1.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2.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사투리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다. 3.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1점
2	1.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다. 2. 전체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3. (가)	2점
3	1.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이다. 2.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의 소속감 고취에 기여한다. 3. 우리나라에서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다.	㉠

\*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한 사회 내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유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A와 달리 모든 C는 B에 해당한다.  
 ㉣. A는 B와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C가 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 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임.)

갑국 내에는 문화 1~문화 5까지 총 5개의 문화만이 존재한다. <자료 1>은 각 문화 양상당 갑국 내 해당하는 문화의 개수를, <자료 2>는 각 문화가 해당하는 양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1> 문화 양상당 해당하는 문화의 개수

구분	A	B	C
개수	1	2	3

<자료 2> 각 문화가 해당하는 양상에 대한 정보

- 문화 1~문화 3, 문화 3~문화 5 각각에서 주류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문화가 모두 존재한다.
- 문화 2~문화 4 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문화 1과 문화 3은 모두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② 문화 2는 문화 4와 달리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 ③ 문화 1~문화 5 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개수는 주류 문화의 개수보다 적다.
- ④ A, C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 ⑤ B는 A, C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 지역의 인구는 비슷함.)

<자료 1> 문화 1~문화 6에 대한 각 지역의 향유 여부

구분	문화 1	문화 2	문화 3	문화 4	문화 5	문화 6
A 지역	○	○	○	×	○	×
B 지역	×	○	×	○	○	○
C 지역	×	○	○	○	○	×

<자료 2> 각 지역이 향유하는 문화 양상에 대한 진술

-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반문화의 수의 2배임.
- B 지역은 C 지역과 달리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향유함.

- ① 문화 1은 문화 4와 달리 반문화이다.
- ② 문화 6은 문화 3과 달리 하위문화이다.
- ③ B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C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와 같다.
- ④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B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와 같다.
- ⑤ C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A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은 갑국의 A 권역 거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가장 선호하는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며, <자료 2>는 문화 양상별로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A 권역에서 주어진 문화 이외 다른 문화는 향유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료 1> 각 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단위: 명)

□□ 문화	800	○○ 문화	600
△△ 문화	500	◇◇ 문화	200
▽▽ 문화	800	☆☆ 문화	200

<자료 2> 문화 양상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단위: 명)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1,600	㉠	600

- ① ㉠에 들어갈 값은 '1,500'이다.
- ② A 권역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는 700명이다.
- ③ 갑국에서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반문화에 해당한다.
- ④ 갑국에서 △△ 문화와 달리 ○○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⑤ 갑국에서 □□ 문화와 달리 ▽▽ 문화는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가 강조된다.
- ② 연령에 따른 사회 집단 간 단절을 유발한다.
- ③ 문화 수용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 ④ 성 역할, 인종 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 ⑤ 이윤 추구가 예술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어 내용이 획일화된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 사회 대중문화의 순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중문화는 성차별, 환경 오염 등 과거에는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무시되던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다룬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주제들이 재조명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고, 이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결과를 낳는다. 콘텐츠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달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

- ① 창의 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 ②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를 통한 인식 확대
- ③ 자기 표현 및 정체성 탐색을 위한 도구 제공
- ④ 교육적 요소의 전달을 통한 사회화 기능 수행
- 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의 마련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비하고 따라 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특정 국가의 언어나 패션, 식생활 등을 모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수용 과정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의 의미나 맥락이 무시된 채 단편적인 요소만 차용되면서 해당 문화가 오해되거나 곡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통 의식주나 언어를 촌스럽다고 여기고 외국식 표현과 생활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태도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가)

- ① 개별 국가 간 문화적 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
- ② 문화 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 ③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이 왜곡될 수 있다.
- ④ 우수한 타 문화에 대한 수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 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방영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들은 비슷한 서사 구조를 반복한다. 대부분 첫 만남에서 갈등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점차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따른다. 배경도 대개 도심의 직장, 카페, 병원 등으로 설정되며, 인물의 직업이나 성격에도 큰 차이가 없다. 시청자들은 이런 전개를 이미 예상하고 있음에도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이는 콘텐츠의 제작자들이 예상한 바와 정확하게 합치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이자, 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① 대중문화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의 소비자들은 때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다.
- ③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구한다.
- ④ 대중문화의 유행은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며, 짧은 주기로 트렌드가 순환된다.
- ⑤ 대중문화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제작되어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중시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발명, 발견,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임.)

구분	A	B	C	D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드는 요인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	㉡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② 전구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A가 아닌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자연에서 석탄을 찾아낸 것은 B가 아닌 C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SNS를 통해 한류가 외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C가 아닌 D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외국의 종교 교리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은 D가 아닌 A의 사례에 해당한다.

문화 접변 결과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사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식민 통치가 장기 간 이어짐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 언어를 잃고 통치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
- (나)의 사례: 한 국가의 대중음악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달되면서 두 국가의 음악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 등장함.
- (다)의 사례: 한 국가의 건축 양식을 배운 다른 국가의 건축가들이 자국에 귀환함에 따라 두 국가의 건축 양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

- ① (가)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② (나)에서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③ (다)는 전파된 문화 요소가 변형되어 정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강제성을 띤 외부 사회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그 결과로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문화 요소가 등장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국은 을국과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을국의 건축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갑국의 건축가들이 해당 기술을 대거 활용하게 되면서 갑국 내 건축물의 양식은 보다 다양해졌다.
- 병국은 자국 내 파견을 나와 있던 정국의 의사들이 가진 의료 기술에 영감을 받아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고, 해당 약은 효과가 떨어지던 기존의 약의 갑국 내 유통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 <보 기> —
- ㄱ. 갑국은 병국과 달리 직접 전파를 경험하였다.
  - ㄴ. 갑국과 병국은 모두 문화 공존을 경험하였다.
  - ㄷ. 병국은 갑국과 달리 자극 전파를 경험하였다.
  - ㄹ. 병국은 갑국과 달리 문화 동화를 경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에 해당함.)

교사: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2개씩 찾아 제시해 보세요.

구분	제시한 사례
A	· 자국 내에서 새롭게 찾아낸 석탄 연료를 기존에 활용되던 연료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식민 통치 시절에 사용된 외국어를 현재에도 고유한 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B	· 전통 복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양에서 들어온 복식이 차지한 경우 · 고유의 가옥 형태가 사라지고 외국의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된 경우
C	· 타국에서 넘어온 팝 음악과 전통적인 민속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 경우 · 전통 음식 문화와 외국 음식 문화가 결합해 제3의 음식 문화가 나타난 경우

교사: 전체 중 ①2개의 사례를 잘못 제시했네요.

- ① ㉠은 각각 A와 B의 사례 중 존재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그 결과로 가진다.
- ③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쉽다.
- ④ C는 A와 달리 전통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 ⑤ A, C는 B와 달리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통적으로 손으로 빚은 도자기를 식기로 사용해 온 갑국에 교역을 통해 을국의 친환경 대나무 식기가 전파되었다. 이에 갑국의 장인들은 자국의 도자기와 을국의 대나무 식기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식기를 개발하였고, 이는 갑국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도자기를 완전히 대체한 식기가 되었다.

(나) 오랫동안 특정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혼례를 치러 온 병국에 다큐멘터리를 통해 정국의 간소화된 시민 혼례 절차가 전해지면서, 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해당 절차는 인기를 끌게 되었다. 병국 정부는 해당 절차를 바탕으로 한 혼례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이는 병국 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이 나타났다.
- ②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③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자국 전파에 의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문화 접변으로 인해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발명, 발견, 직접 전파, 자국 전파 중 하나임.)

<자료 1>은 문화 변동 요인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정리한 것이고, <자료 2>는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과 을국 서로 간의 문화 변동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료 1>

구분	A	B	C	D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아니요	예	아니요	예
변동의 결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기는가?	㉠	㉡	아니요	예

<자료 2>

구분	변동 전 요소	1차 문화 변동		2차 문화 변동	
		변동 요인	변동 후 요소	변동 요인	변동 후 요소
갑국	a	A	a, c	B	a, c, e
을국	b	D	b, d	C	c, d

<보 기>

- ㄱ.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ㄴ. c는 b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요소에 해당한다.
- ㄷ. 1차 문화 변동 결과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ㄹ.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막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물 저장용 가죽 부대를 사용해 온 A국에 교역을 통해 B국의 접이식 실리콘 물통이 들어오면서 A국 내에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B국과의 교역을 통해 접이식 실리콘 물통과 자외선 살균 기술을 접한 C국은 이를 결합한 자외선 살균 물통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물 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한 C국 농촌 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물통 중 하나가 되었다. C국은 이를 A국과 B국에도 수출하였고, 이는 A국 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B국 내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곧 사장되었다.

- ①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② B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③ C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④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⑤ C국에서는 A, B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갑국에서는 예로부터 피부병이나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재를 달여 만든 연고를 사용해 왔고, 이는 입소문을 탄 끝에 갑국 상인들에 의해 을국에 수출되었다. 을국의 약사들은 시장에 유통되던 해당 연고를 건조한 날씨로 갈라지는 손발의 보습제로 개량하였고, 이는 을국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 되었다.
- (나) 병국에서는 강한 햇볕과 먼지를 피하기 위해 머리와 얼굴을 감싸는 스카프를 착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병국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며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국의 한 디자이너는 해당 스카프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액세서리를 만들었고, 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 ① (가)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
- ② (나)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③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
-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의 한 기업은 강이나 웅덩이의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 주는 소형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였다. 해당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국에 알려졌고, B국의 한 스타트업은 갑국에 직접 방문한 뒤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더 빠르게 정수할 수 있는 펌프식 정수기를 개발하였다. 한편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국의 한 기술자는 손잡이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는 A국과 B국의 유통사에 수출되어 세 국가 모두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 ①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③ C국에서는 A, B국과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④ A~C국에서는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⑤ B국에서는 A, C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개발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 출신의 미식가 A는 갑국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과일주를 개발하였고, 이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기존에 판매되던 갑국의 와인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A는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 최대의 와인 소비국인 을국에 진출을 시도했으나, 을국의 전통 와인 생산자 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로비의 방식으로 A의 과일주가 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A는 완제품 대신 과일주 제조의 핵심 기술인 발효 균주와 제조법을 을국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는 을국의 공장식 주류 생산 체계와 결합해 새로운 주류 시장을 개척하였다. A는 해당 주류를 고향인 갑국에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갑국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류 중 하나가 되었다.

- ① 갑국에서 직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 ② 을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 ③ 갑국에서 문화 동화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④ 갑국에서 비물질문화, 을국에서 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의 한 장인은 자국의 방식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결합하여 손목시계를 만들었고, 해당 시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A국에 진출해 있던 B국의 한 사업가는 이를 자국의 본사에 보내 시장 내 유통하였다. 이후 A국의 시계는 B국의 문화적 정서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었고, 한 B국 유통사는 이에 마케팅 아이디어를 얻어 해당 시계를 입수해 A국과 C국에 수출하였다. 그 결과 두 국가 모두에서 이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확산해 기존 전자시계의 지위를 위협하였으나, 정작 B국 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채 단종되었다.

- ①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②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③ B국에서는 A, C국과 달리 문화 병존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A국의 문화 요소는 C국에 전파되지 않았다.
- ⑤ B국에서는 A, C국과 달리 자국 전파가 나타났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각각 다른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나타난 사례를 1가지씩 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변동의 요인 5가지를 각 사례에 옳게 연결해 볼까요?

사례	요인
어두운 곳에서도 불빛을 밝히기 위해 손전등을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	A
자연에서 우연히 화석 연료를 찾아내 사용하게 되는 경우	B
(가)	직접 전파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 자국으로 확산한 경우	발견
(나)	자극 전파

교사: 모든 사례에 대해 문화 변동의 요인을 옳지 않게 연결했네요.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 ㄴ. B는 A와 달리 '목화솜을 찾아낸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 ㄷ. '타국의 전통 음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음료를 만든 경우'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ㄹ. '난민으로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즐기는 경우'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밈(Meme)을 중심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DM)이 유행하였고, 해당 밈은 B국으로 확산되어 B국의 젊은 음악가들은 EDM을 자국의 전통 악기 리듬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댄스 챌린지의 형태로 B국 내에서 유행하였고 B국의 댄서들은 A국과 C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공연 자체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이에 활용된 음악은 곧 A국과 C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C국에서는 자국의 음악이 B국 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B국의 음악에 대한 의식적인 배척으로 이어져 B국의 음악은 급속도로 C국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① A국과 B국에서는 모두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②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③ A국에서는 B,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④ C국에서는 A, B국과 달리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⑤ A~C국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국과 을국의 학자들은 국제 학술 회의를 통해 빈번히 교류하였다. 갑국의 천문학 지식은 을국 학자들이 자국에 맞는 역법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되었고, 을국의 철학 사상은 갑국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갑국의 전통 사상과 융합되어 새로운 학파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추후 을국 학자들은 서적을 통해 수입된 해당 학파를 주류 철학 사상으로 받아들이었다.

(나) 정국은 병국을 오랜 시간 동안 식민 지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을 통해 병국 내에 전래된 정국의 악기는 병국의 전통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연주 방식이 탄생하게끔 하였다. 이후 병국은 정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병국 사람들은 정국 사람들의 의복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에 자국의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깨달아 자국의 의복을 버리고 해당 의복만을 입기 시작하였다.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난다.
- ②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의 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예술 문화를 유지해 온 A국에 인터넷 영상을 통해 B국의 전자 음악이 전해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끌었고, 이후 A국의 한 예술가가 다른 형태의 전자 음악을 개발해 음원 시장에 유통하면서 A국의 전통 음악은 향유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C국의 한 기획사가 A, B국에서 자국 가수들의 무대를 선보였고, A국과 B국 모두에서 이들이 선보인 음악은 큰 인기를 얻었다. 해당 공연 영상은 SNS를 통해 C국 내에 확산하였고, 이로부터 영감을 얻은 C국의 예술가들은 활발한 음악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편 B국에서는 A국의 한 장인이 공연에서 선보였던 전통 선율을 활용한 명상용 음악 콘텐츠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A국에서 사라진 음악이 B국에서 현대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① A국에서는 B, C국과 달리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② A,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③ A~C국에서는 모두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④ C국에서는 A, B국과 달리 문화의 내재적 변동이 나타났다.
- ⑤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병국의 문화 요소별 변동 사례>

<의복 문화>

갑국 의류 디자이너들은 을국에 방문하여 자국의 의복을 전파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을국의 의복을 손에 든 채 귀국한 뒤 자국과 을국의 의복을 혼합한 새로운 의복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한편 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입국한 병국 의류 디자이너들은 갖은 시도 끝에 결국 실패라는 결과를 손에 안고 귀국하였다.

<음악 문화>

을국의 한 작곡가는 자국의 전통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으며, 이후 갑국과 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순회하며 투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갑국과 병국 또한 해당 장르의 음악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갑국에서 해당 장르에 특화된 이어폰이 다시금 유행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음식 문화>

병국에서는 갑국에서 방영된 셰프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크게 히트하였고, 이를 본 병국 요리사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갑국의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자국 내에서 같은 음식을 판매하던 갑국 출신 요리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을국에도 진출하여 음식을 판매하였으나 이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 ① 의복 문화에 있어 갑국에는 을국과 병국의 문화가 모두 전파되었다.
- ② 음악 문화에 있어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③ 음식 문화에 있어 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④ 음악 문화에서는 의복 문화에서와 달리 자국 전파가 발생한 양상이 나타난다.
- ⑤ 의복 문화에서는 음식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한 양상이 나타난다.

185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직업 간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기에 차등 분배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평온하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 직업별 중요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직업 간 차등 보상의 정당성 또한 그러하다.

———— <보 기> ————

- ㄱ.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 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ㄷ.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 ㄹ.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6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노동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은 상충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있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항상 자본가에 비해 약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들이 자본가에 의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보 기> ————

- ㄱ.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 ㄴ.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ㄷ.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 ㄹ.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 비례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87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에서 각 직업은 그 기능에 따라 각자만의 중요도를 가진다. 하지만 해당 중요도는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이 임의로 정한 것이며, 해당 '기능' 역시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회에서 높은 기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제한된다.

### <보 기>

- ㄱ.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 ㄴ.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재생산의 수단으로 본다.
- ㄷ. 균등 분배가 인재의 배치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ㄹ.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88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노동 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자본가가 만든 불합리한 노동력의 평가 기준에 할당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임금 체계를 만들었고, 이로써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을 극대화한다.

### <보 기>

- ㄱ.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 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 ㄷ.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본다.
-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이 성취동기 유발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 사회에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희소 가치의 분배 구조가 만연해 있고, 그렇기에 각 개인은 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아닌 가정 배경에 의거해 가치를 분배받게 됩니다.

을: 아닙니다.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모두에게 동등하기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 정도와 상관이 없다고 본다.
-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누군가가 얻게 되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양은 그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달려 있으며, 사회에 기여한 정도는 자신의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그가 투자한 노력의 양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각자에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향한 노력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는 곧 자원 생산의 한계점을 마주한 뒤 이를 둘러싼 무의미한 갈등 끝에 결국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 <보 기> —

- ㄱ.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 ㄴ.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 ㄷ.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본다.
- ㄹ.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임.)

다음 자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구분	A	B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 차이를 부정하는가?		예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		
응답 '아니요'의 개수	2개	㉠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하다고 보는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1개'이다.  
 ㄷ. ㉠에 '0개'가 들어간다면,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 자료는 갑~병국의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이다. 갑~병국 중 두 국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며,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병국
A	50	10	20
B	40	60	50
C	10	30	30

- ① 병국의 상층 비율은 을국의 상층 비율의 2배이다.  
 ②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③ 중층 비율 대비 하층 비율의 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④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⑤ 을, 병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19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단, 갑국의 t년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단위: %)

구분	t년	t+20년	t+40년
A	20	40	50
B	50	50	20
C	30	10	30

— <보 기> —

- ㄱ. t년의 하층 인구는 t+40년의 중층 인구와 동일하다.
- ㄴ. t+40년의 계층 구조는 t년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 ㄷ. t+20년은 t+40년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 ㄹ. 중층 인구 대비 상층 인구의 비는 t년이 t+20년의 6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된다.

구분	A	B	C
t년	10	50	40
t+10년	30	50	20
t+20년	20	20	60

\* A에서 C로의 이동과 C에서 B로의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임.

- ① t년 하층 인구 비율은 t+20년 중층 인구 비율의 2.5배이다.
- ② t+20년 상층 인구 비율은 t+10년 중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 ③ t년은 t+10년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 ④ t+10년은 t+20년과 달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 ⑤ t년과 t+10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19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됨.)

표는 A국 국민 갑~정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 을과 병의 최초 계층 위치는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본인의 부모 계층과 비교한 본인의 최초 계층 위치	높음	낮음	같음	낮음
본인의 최초 계층과 비교한 본인의 현재 계층 위치	높음	같음	낮음	낮음

<보 기>

- ㄱ. 갑의 부모 계층 위치는 정의 현재 계층 위치와 같다.
- ㄴ. 을의 최초 계층 위치는 갑의 현재 계층 위치보다 낮다.
- ㄷ. 병의 부모 계층 위치는 정의 최초 계층 위치보다 높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9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표는 갑~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갑~병국은 모두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단위: %)

구분	A	B	C
갑국	10	50	40
을국	20	30	50
병국	30	10	60

- ① A가 상층이고 C가 하층이라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 ② B가 중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 ③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면, 을국의 중층 비율은 병국의 상층 비율과 같다.
-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면, 갑국의 중층 비율은 병국의 상층 비율과 같다.
- ⑤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하층 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조건>

1. 갑국 t년의 상층 인구는 중층 인구의 3배, 하층 인구의 0.5배이다.
2. A 시기는 t년 대비 t+30년, B 시기는 t+30년 대비 t+50년으로 계층별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갑국은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계층별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상층 인구 비율	감소	증가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중층 인구 비율의 비	증가	변화 없음
전체 인구	증가	감소

- ① A 시기에는 하층 인구 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② B 시기에는 하층 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 ③ t+30년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면, t+30년의 하층 인구 비율은 t년의 상층 인구 비율보다 낮을 것이다.
- ④ t+50년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면, t+50년의 하층 인구 비율은 t년의 하층 인구 비율보다 높을 것이다.
- ⑤ 중층 인구 수는 A 시기에 증가하고, B 시기에 감소할 것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서 세대 간 대물림을 한 중층 인구는 을국에서 세대 간 대물림을 한 하층 인구와 동일하다. 단, 계층은 A, B, C로만 구분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갑국>

구분		부모 세대		
		A	B	C
자녀 세대	A	■■■■	■■■	■■■■
	B	■■■	■■■■■	■
	C	■■■	■■■	■■■

<을국>

구분		부모 세대		
		A	B	C
자녀 세대	A	■■■■	■■■	■■■■
	B	■■■	■■■■■	■
	C	■■■■	■	■■■

\* ■는 해당 계층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각 ■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함.

- ①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와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모두 다이아몬드형이다.
- ②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
- ③ 부모 세대 하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 ④ 부모 세대 상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 ⑤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표는 현재 연령이 50세인 갑국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30년 전 최초 계층을 기준으로 그들의 세대 내 이동 양상을 파악한 것이다. 대상자 중 최초 계층이 상층인 사람은 20명, 중층인 사람은 30명, 하층인 사람은 50명이다. 단, 갑국의 계층은 A~C로만 구분한다.

이동 양상	해당 사람 수	이동 양상	해당 사람 수
A → B	5명	A → C	10명
B → A	15명	B → C	20명
C → A	10명	C → B	15명

- ① 30년 전 하층인 인구는 현재 중층인 인구와 같다.
- ② 30년 전 상층인 인구는 현재 하층인 인구와 같다.
- ③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현재 중층인 인구는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현재 하층인 인구와 같다.
- ④ 세대 내 이동을 하지 않은 현재 하층인 인구는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30년 전 상층인 인구와 같다.
- ⑤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30년 전 하층인 인구는 세대 내 이동을 하지 않은 30년 전 중층인 인구의 5배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표는 갑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단, 부모 세대의 상층 비율과 중층 비율은 같으며,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존재한다.

A	B	C
□□□□□□□□	□□□□□■	□□□□■

\* 네모(□, □, ■)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네모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함.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0,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1,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2인 사람을 나타냄.  
 \*\*\* 세대 간 이동 거리는 동일 계층 간에는 0,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간에는 1이고 상층과 하층 간에는 2임.

- ①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과 같다.
- ②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 ③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와 달리 피라미드형이다.
- ④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의 수의 1.5배이다.
- ⑤ 부모 세대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하층 중 중층이 가장 낮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와 세대 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

(단위: %p)

구분	A - B	B - C
부모 세대	20	10
자녀 세대	-10	10

<자료 2>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 현황

(단위: %)

구분	상승 이동	하강 이동
A	0	40
B	55	20
C	80	0

- ①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와 같다.
- ②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의 2배이다.
- ③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 인구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녀 인구의 2배이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인구의 비는 상층과 하층이 같다.
- ⑤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과 중층 인구 비율의 합은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과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은 현재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와 t년 후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두 가지 예측 결과이고, <자료 2>는 각 예측별로 현재 갑국 인구 중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상대적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에서 현재와 t년 사이 인구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료 1>

구분	현재	[예측 1]	[예측 2]
$\frac{A+C}{B+C}$	$\frac{5}{8}$	$\frac{2}{3}$	$\frac{6}{7}$
$\frac{A+C}{A+B}$	$\frac{5}{7}$	$\frac{6}{5}$	$\frac{6}{7}$

<자료 2>

구분	상대적 비의 값	
	[예측 1]	[예측 2]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B 인구 수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	2.5	6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C 인구 수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	2	5

\*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임.  
\*\*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비율은 유지하지 못할 인구의 비율에 비해 [예측 1]에서는 10%p 크고 [예측 2]에서는 20%p 큼.

- ①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인구 비율은 현재의 상층 인구 비율의 40%이다.
- ② [예측 2]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 ③ [예측 1]대로 된 경우와 [예측 2]대로 된 경우 모두 t년 후 하강 이동을 할 인구가 상승 이동을 할 인구보다 많다.
- ④ [예측 2]대로 된 경우와 달리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중층일 인구 중 현재 하층인 인구가 상층인 인구보다 적다.
- ⑤ [예측 1]대로 된 경우와 달리 [예측 2]대로 된 경우 t년 후 세대 내 이동으로 상층이 될 인구는 하층이 될 인구보다 많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자료 1>은 ○○국의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가), 그리고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현재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나)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갑~정의 계층적 위치 이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상층과 중층 또는 중층과 하층 간 거리는 1, 상층과 하층 간 거리는 2이며, 상승 이동일 경우 +, 하강 이동일 경우 -로 표현한다. 단, ○○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계층	상대적 비	
	(가)	(나)
A	1.0	0.4
B	3.0	2.0
C	0.5	1.5

<자료 2>

구분	부모 세대 계층 → 최초 계층	최초 계층 → 현재 계층
갑	+2	-1
을	-1	-1
병	-2	+1
정	+1	+1

\* 자녀 세대 최초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임.

- ①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 현재 하층 비율과 같다.
- ② 자녀 세대 현재 계층은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 ③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을의 최초 계층과 달리 C이다.
- ④ 병의 현재 계층은 정의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A이다.
- ⑤ 을의 부모 세대 계층은 정의 최초 계층과 달리 B이다.

다음 자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갑은 인종 차별적인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SNS 활동을 하고 있다.
- 을은 국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을은 자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 ① 갑은 을과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겪고 있다.
- ②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선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5

다음 자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국에서 A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주류 집단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A 종교가 이단으로 규정된 후 그들은 이교도로 간주되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 을국에서 B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탄압되었으나, 쿠데타를 통해 B쪽이 정권을 잡은 후 그들은 역으로 타 부족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 ①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수에 따라 규정된다.
- ② 한 개인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할 수 있다.
- ③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 ⑤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된다.

## 20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형성 평가>

※ A는 신체·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제시된 '질문'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십시오.

대답	대답에 맞는 질문	채점 결과
예	A는 <input type="text" value="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겪는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니요	A는 <input type="text" value="(가)"/> 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교사는 완성된 질문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질문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 <보 기>

- ㄱ. A는 해당 집단원의 수로 결정된다.
- ㄴ. (가)에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가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ㄷ. ㉠에 들어갈 것이 '1점'이라면, '수적 열세에 의해 규정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이들의 건강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건강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이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을국의 한 지자체는 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 대상을 ‘최근 2년 이내 퇴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아로 3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 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 ② 한 개인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 ③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다.
- ④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치 않은 형태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외국인 근로자인 갑국 국민 A는 자녀가 태어나자 여러 학교에 입학 상담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학교 측은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미숙할 수 있다는 점에 학습 분위기의 저하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였다. 이에 A는 국가 인권 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센터는 해당 학교들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 (나) 특정 육류를 먹지 않는 소수 종교를 믿는 B는 회사 워크숍에 참여했으나, 식사 메뉴가 모두 해당 육류를 포함한 단일 메뉴로 제공되어 A는 워크숍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에 A는 사내 고충 처리 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모든 단체 행사에서 개인의 신념과 특성을 고려한 식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 <보 기> —

ㄱ. A와 달리 B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ㄴ. B와 달리 A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ㄷ. (가)와 달리 (나)에는 역차별의 사례가 나타난다.  
 ㄹ. (나)와 달리 (가)에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사례가 나타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여성 A는 그로 인해 겪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A의 초등학교 친구 B는 트랜스젠더로서 겪은 차별,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A에게 이야기했고, A는 그를 이주 여성 출신 심리상담가 C에게 연결시켰다. 언어 차별과 문화 장벽을 견뎌야 했던 C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B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고, 상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D를 B에게 소개했다. D는 성소수자와 이주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해당 단체의 청년 멘토로 B를 추천하였다. 이후 A~D는 뜻을 함께하여 이주민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난 E는 D가 상담하던 이주자 청년으로, 거듭된 취업 실패 후 기술을 배워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고, A~D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실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 ① A와 B는 모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C는 D와 달리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③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④ D는 B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⑤ A와 C는 동일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다.

다음 자료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각 장애인 출신 A는 학창 시절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공공 영상과 교육 콘텐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할당제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강의 내용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A는 조별 과제가 포함된 강의에서 같은 조로 이주 배경 학생 B와 성소수자 학생 C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각자가 겪은 차별 사례를 모아 조별 과제 레포트를 작성해 강의에 제출하였다. 과제를 본 교수 D는 그들에게 학내 인권 포럼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A~C는 포럼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E를 만나게 되었다. E는 학창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이름과 생김새로 인해 차별받아온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로부터 이주 전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을 떠올린 B는 그에게 사회적 차별을 겪은 이들의 재사회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다.

- ① B는 A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A와 E는 모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③ D는 차별 방지를 위한 규범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④ A는 C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
- ⑤ B와 E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2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지역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지역별·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역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A 지역 남성(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다른 지역의 남성(여성) 평균 임금을 나타낸다. 단, A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0이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남성	100	120	90	150
여성	100	140	80	110

$$\text{*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평균 임금} - \text{여성 평균 임금}}{\text{남성 평균 임금}} \times 100$$

<보 기>

- ㄱ. B 지역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보다 적다.
- ㄴ. A 지역 여성 평균 임금 대비 D 지역 남성 평균 임金的 비율은 200% 이하이다.
- ㄷ.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 대비 C 지역 여성 평균 임金の 비율은 50% 이상이다.
- ㄹ. A~D 지역 중 여성 평균 임금이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보다 많은 지역은 한 지역뿐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에서 노동 중인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갑국에서 노동 중인 노동자 유형별 평균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150	170	140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80	100	120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	70	60	80

- ①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23년이 2019년보다 적다.
- ②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비는 2021년이 2023년보다 크다.
- ③ 2023년에 갑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와 을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는 같다.
- ④ 2년 전 대비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증가액은 2021년과 2023년이 같다.
-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크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구자 갑은 A~C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성비 불균형은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자료 1> A~C 지역 성별 노동자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320	370	360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260	㉠	280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300	350	330

<자료 2> A~C 지역 노동자 성비 불균형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성비 불균형	㉡	20	㉢

\* 성비 불균형 =  $\frac{(\text{남성 수} - \text{여성 수})}{(\text{남성 수} + \text{여성 수})} \times 100$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성별 근로자 임금 총액 / 성별 근로자 수

—————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보다 작다.  
 ㄴ. ㉠에 들어갈 값은 A 지역과 C 지역을 합친 지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작다.  
 ㄷ. C 지역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은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의 1.5배 미만이다.  
 ㄹ. A 지역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이 B 지역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과 같다면, B 지역 남성 노동자 수는 A 지역 여성 노동자 수의 3배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년 대비 갑국 남/여성 인구 증감표>

구분		2022	2023
증/감	남성	증가	감소
	여성	감소	증가

<취업 시 발생하는 성차별의 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나이	결혼	학력	외모	기타	
2021	남성	23.5	26.2	21.1	22.5	6.7
	여성	26.3	28.2	17.9	29.8	7.8
2022	남성	21.6	23.7	22.3	25.7	6.7
	여성	24.4	27.0	22.6	19.5	6.5
2023	남성	22.1	22.5	21.8	27.4	6.2
	여성	27.3	31.5	15.2	20.1	5.9

\* 설문 조사는 전수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무응답은 없다.

————— <보 기> —————

ㄱ. 2022년의 조사에서 결혼에 응답한 남성 수는 2021년의 조사에서 외모에 응답한 남성 수보다 많다.  
 ㄴ.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여성 수는 2022년의 조사에서 나이에 응답한 여성 수보다 적다.  
 ㄷ.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 전체 인구 대비 기타에 응답한 인구의 비율은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ㄹ. 2022년과 달리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 대비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별 노동 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는 갑국의 산업별 노동자 성비와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산업 구조는 1차~3차 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산업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다.

구분	노동자 성비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	
		남성	여성
1차 산업	75	86	70
2차 산업	125	91	105
3차 산업	150	111	①
전체 산업	125	100	100

\* 노동자 성비: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  
 \*\*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 남성(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산업별 남성(여성) 노동자의 상대적 평균 임금임.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 100  
 \*\*\*\* 남성(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 = 남성(여성) 노동자 수 × 남성(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 ① ①에 들어갈 값은 110이다.
- ② 3차 산업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적다.
- ③ 2차 산업 여성 노동자 수는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수의 2배이다.
- ④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3차 산업이 1차 산업의 5배 미만이다.
- ⑤ 1차 산업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2차 산업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의 25% 이상이다.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임.)

영화 ◇◇◇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A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좌절한다. 한편 웹소설 ○○○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B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매일같이 일을 하러 나가나, 기본적인 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 ①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 ④ A는 B와 달리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할 때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217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임.)

A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식량, 주거, 의복,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요소가 결핍되어 삶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B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그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사회적 참여와 소속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①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 ②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③ B는 A와 달리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⑤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A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B에 해당한다.

## 218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임.)

A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A 가구로 분류한다. 한편 B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B 가구로 분류한다.

- ① A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는 가구와 달리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③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 ④ B는 A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⑤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A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B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A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한 가구의 ㉠가장인 주인공 갑은 매일 ㉡일터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나, ㉢그의 손에 쥐어지는 건 하루하루의 의식주를 해결 하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적은 돈이다. 한편, 20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웹툰 □□□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B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갓 취직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 주인공인 을은 ㉣회사를 위해 매일 꾀은 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하나, 회사의 고위직 부모를 둔 다른 ㉤사원들에 밀려 ㉥매번 승진에 실패하며 좌절한다.

- ①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 ② B는 A와 달리 중위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은 귀속 지위에,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④ ㉢은 갑의, ㉣은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 ⑤ ㉤은 갑의, ㉥은 을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빈곤은 개인이 사회의 상대적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의 결핍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하루 한 끼의 식사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의복,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갖지 못한 상태가 바로 빈곤인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해당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ㄷ.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22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임.)

그림은 갑국의 t년과 t+10년 A 인가와 B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단, t년 갑국은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 소득보다 높다.

구분		A 인가와 B 인구의 상대적 크기									
t년	A 인구	■	■	■	■	■	■	■	■	■	■
	B 인구	■	■	■	■	■	■	■	■	■	■
t+10년	A 인구	■	■	■	■	■	■	■	■	■	■
	B 인구	■	■	■	■	■	■	■	■	■	■

- ① A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B를 판단하는 기준선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 ②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 ③ 갑국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달리 t+10년이 t년보다 높다.
- ④ 갑국의 t+10년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
- ⑤ 갑국의 t년 상대적 빈곤 인구 대비 절대적 빈곤 인구의 비는 t+10년 절대적 빈곤 인구 대비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보다 작다.

## 22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자료는 각 연도별로 갑국의 유형별 빈곤 가구 비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단, A와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단위: %)

구분	t년	t+1년	t+2년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25	20	15
B와 달리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10	5	0

\* 제시된 연도 중 두 연도에서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높다.

— <보 기> —

- ㄱ.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60%이다.
- ㄴ. t+1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37.5%이다.
- ㄷ.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t+1년과 t+2년이 같다.
- ㄹ. 주어진 기간 동안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절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상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선정한다. 갑국은 국가중앙위원회에서 매년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갑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의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갑국의 빈곤 관련 지표>

구분	최저 생계비 (월 소득)	중위 소득 (월 소득)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t년	㉠	3,000달러	8%	8%
t+1년	1,800달러	3,400달러	㉡	9%
t+2년	2,000달러	㉢	6%	7%

\*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으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도 같다.

-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3배보다 크다.
- ㉡에 들어갈 값은 t년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보다 작다.
- t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t+2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많다.
-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t+1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적다.
-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각각 7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으로 판정한다. 갑국과 을국 정부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각각 다음과 같은 월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은 중복될 수 있다.

<자료 1> 갑국과 을국의 가구별 월 소득

(단위: 달러)

갑국	가구	A1	B1	C1	D1	E1	F1	G1
월 소득		900	1,200	1,700	2,500	2,800	3,200	4,000
을국	가구	A2	B2	C2	D2	E2	F2	G2
월 소득		800	1,000	1,200	2,400	2,700	3,300	3,600

<자료 2> 갑국과 을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

(단위: 달러)

구분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교육 지원금	
갑국	절대적 빈곤 가구	500	300	
	상대적 빈곤 가구			600
을국	절대적 빈곤 가구	600		
	상대적 빈곤 가구		400	300

\*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갑국의 1.5배이며,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 월 소득의 총합은 갑국이 을국의 70%이다.  
\*\* 가구 월 총소득: 월 소득 + 정부 지원금

- 갑국과 을국 모두 상대적 빈곤과 달리 절대적 빈곤에만 속하는 가구가 있다.
- 을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갑국의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이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
- 갑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총합은 을국의 80%이다.
-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 월 총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한 복지병 발생의 위험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더 크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나)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각 분위별 (가), (나) 수급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분	(고소득) ← 소득 크기에 따른 구분 → (저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가)	10	15	30	30	50
(나)	0	0	0	20	30

\* 총소득 = 민간 소득 + (가) 수급액 + (나) 수급액  
 \*\* 각 분위별 가구 수는 동일하며, 평균 총소득은 모두 다름.

- ① 2분위의 경우 민간 소득이 총소득의 과반을 차지한다.
- ② 가구당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평균 수급액은 4분위가 3분위보다 적다.
- ③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분위가 낮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2분위 가구 수급 총액은 1분위 가구 수급 총액보다 적다.
- ⑤ 주어진 소득 분위 중 총소득에서 민간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분위는 한 개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성별 인구 중 (가),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8	11	9	9	14	ⓐ
(나)	50	65	ⓑ	60	50	55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A 지역의 남성 수와 B 지역의 여성 수는 같음.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5배이다.
- 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남성 수급자 수와 여성 수급자 수의 차이는 B 지역보다 A 지역이 크다.
- ㄷ.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A 지역 전체 수급자 수는 B 지역 여성 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ㄹ.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 대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의 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 특징 비교

구분	(가)	(나)
공통점	㉠	
차이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전체
(가)	36	32	34	34
(나)	13	㉢	14	12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A 지역 인구는 C 지역 인구의 2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 ㉡에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이 적절하다.
- ② ㉢에 들어갈 값은 '11'이다.
- ③ A 지역의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갑국 전체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와 같다.
- ④ A~C 지역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에서 가장 적다.
- ⑤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A~C 지역 중 B 지역에서 가장 크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고, A는 B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표>는 갑국의 지역별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급자 수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같고, B 수급자 중 A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25%, (나) 지역이 40%이다.

<갑국의 지역별 A, B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 또는 B 수급자	55	75
중복 수급자	5	10

— <보 기> —

- ㄱ. 비(非)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의 4배 미만이다.
- ㄴ.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같다.
- ㄷ.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일반적인 특징 비교

구분	(가)	(나)
공통점	㉠	
차이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됨	㉡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가) 수급자 비율	60	64
비(非)수급자 비율	30	24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임.  
 \*\* (나) 수급자 중 (가) 수급자 비율은 A, B 지역 모두 50%임.

- ①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 ㉡에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됨.’이 적절하다.
- ②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낮다.
- ④ A 지역의 비(非)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A 지역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비(非) 수급자 수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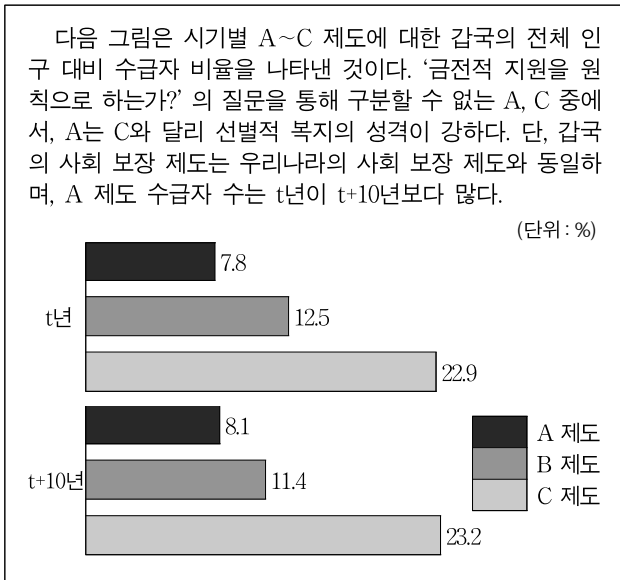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정부가 조세로 전액 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갑국이 도입을 고려중인 근로 장려금 제도는 A안과 B안이 있으며, 그림은 A안과 B안의 근로 장려금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 ① A안에서 연 소득이 6,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3,000달러이다.
- ② B안에서 근로 장려금은 연 소득이 9,000달러인 가구보다 24,000달러인 가구가 많다.
- ③ 연 소득이 10,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A안보다 B안이 많다.
- ④ 연 소득이 15,000달러인 가구의 B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은 A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의 1.5배이다.
- ⑤ 갑국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갑국은 B안보다 A안의 도입을 선호할 것이다.

###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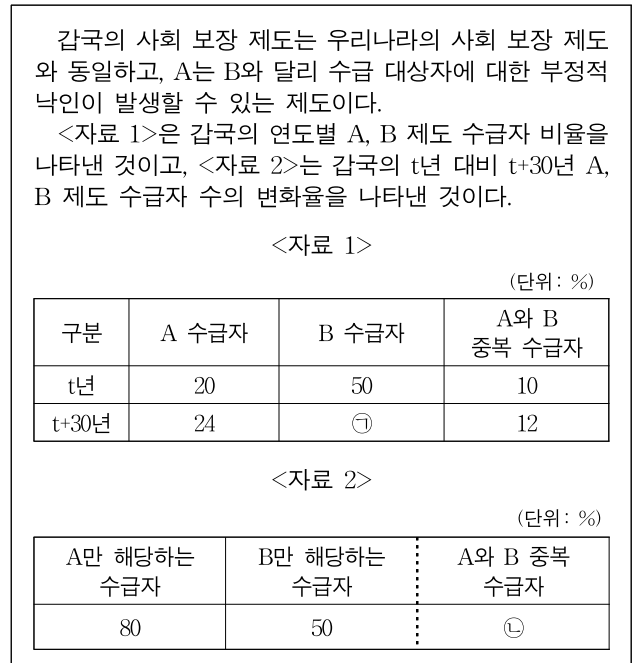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 ①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이다.
-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비율은 0.3% 증가하였다.
- ③ 비금전적 지원이 적용되는 제도의 t년 수급자 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t+10년 수급자 수의 50%보다 많다.
- ④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적다.
- ⑤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보다 높다.

### 23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1.5배 미만이다.
-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만 해당하는 t년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30년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t+30년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t년 수급자 수의 4배 이상이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만 해당하는 t+30년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t년 수급자 수의 0.5배 이상이다.
- ⑤ 비(非)수급자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낮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이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33	㉠	34
(나) 수급자	14	11	13
(가)와 (나) 중복 수급자	㉡	8	㉢

\* A 지역의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의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의 4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은 ㉡과 ㉢의 합이 3배이다.
- ②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보다 적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B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가), (나) 두 제도 모두의 비(非)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낮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C는 A와 달리 민간 부문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이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3중 수혜자 비율은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두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과 같다.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56	29	33
A와 B 중복 수혜자	B와 C 중복 수혜자	A와 C 중복 수혜자
12	11	10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40%이다.
- ②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의 1.5배이다.
- ③ 3중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1.5배이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이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과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24	18	20
(나) 수급자	45	⑦	43
(가)와 (나) 중복 수급자	⑧	8	⑨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A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수의 2 배임.

- ① ⑦은 ⑧과 ⑨의 합의 3배이다.
- ②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③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B 지역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 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보다 많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A: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 B: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C: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A~C 수혜자 비율

(단위 : %)

A 단독 수혜자	B 단독 수혜자	C 단독 수혜자
42	12	20
A와 B 중복 수혜자	B와 C 중복 수혜자	A와 C 중복 수혜자
9	9	12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단독 수혜자: A, B, C 중 1개의 혜택을 받는 사람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8%임.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57%이다.
- ② 3중 수혜자 수와 비(非)수혜자 수는 같다.
- ③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제도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3중 수혜자 수와 같다.
- ④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제도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0.5배이다.
-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는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단독 수혜자 수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일반적인 특징 비교

구분	(가)	(나)
공통점	㉠	
차이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함	㉡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 수급자 비율	16	30	18
(나) 수급자 비율	54	56	44
비(非)수급자 비율	36	32	50

\* 중복 수급자 수는 A~C 지역이 모두 같음.

- ①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함’,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이 적절하다.
-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적다.
- ③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C 지역의 3배이다.
- ⑤ (가)와 (나) 중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과 C 지역보다 높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A와 C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C이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A,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며,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단위 :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중복 수혜자	3중 수혜자
35	27	60	30	5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②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3중 수혜자 수의 2배보다 많다.
- ③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보다 적다.
- ④ 비(非)수혜자의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0.5배보다 적다.
-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이며,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나)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가) 수급자	45	42	47	45
(나) 수급자	21	18	25	Ⓣ
(가)와 (나) 중복 수급자	9	Ⓛ	13	Ⓢ

\* A~C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의 비는 각각 2:3:6이다.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과 Ⓢ의 합은 Ⓣ보다 크다.
- ②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C 지역 중 C 지역이 가장 높다.
- ④ (가)와 (나) 두 제도 모두의 비(非)수급자 수는 C 지역이 A 지역의 3배보다 많다.
- 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대비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는 A~C 지역 중 B 지역이 가장 크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1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C만 존재하고,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B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 C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상담이나 돌봄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는 각 제도의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비(非)수혜자의 수는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제도의 중복 수혜자 수와 같다.

(단위 :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8	16	10
A와 B 중복 수혜자	B와 C 중복 수혜자	A와 C 중복 수혜자
40	80	20

-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 ②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 ③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2배보다 많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 ⑤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A와 C 중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중 A~C의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A와 C 중복 수혜자 중 B의 수혜자 수와 B의 비(非) 수혜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수혜자 비율	26	28	53
A 또는 B 수혜자	B 또는 C 수혜자		A 또는 C 수혜자
	47	72	73

\* 2중 수혜자: A, B, C 중 2개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2중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와 같다.
- ② 3중 수혜자 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0.2배이다.
- ③ 비(非)수혜자 수는 수급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수혜자 수의 0.5배이다.
- ④ 두 가지 이상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 ⑤ 공공 부조 또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나)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에서 실업자의 생계 보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연도별 (가), (나) 제도 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가) 수급자	(나) 수급자	제도 수급자
t년	전체 인구	12	73	75
	빈곤 인구	60	80	①
t+20년	전체 인구	10	60	64
	빈곤 인구	75	②	80

\* 제도 수급자: (가) 또는 (나)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갑국의 t+2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1.5배이고, 두 연도 모두에서 빈곤 인구가 아닌 (가) 수급자는 존재하지 않음.

- ① ①에 들어갈 값은 ②에 들어갈 값의 1.5배이다.
-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t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t+20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③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t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는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의 10배보다 많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t년 전체 인구 중복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빈곤 인구 비(非)수급자 수는 t+20년이 t년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나)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가) 수급자 중 (나) 수급자	40	⑦	45
(가) 또는 (나) 수급자 중 (나) 수급자	80	75	78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A, B 지역 모두에서 전체 인구 대비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로 같음.

- ① ⑦에 들어갈 값은 60이다.
- ②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와 같다.
- ③ 전체 인구 대비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가 B 지역보다 높다.
- ④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 ⑤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비(非)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B와 C 중, B는 C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와 중복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중복 수혜자는 주어진 두 가지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을 나타내며, 제도 수혜자는 두 가지 제도 중 적어도 한 가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나타낸다. 단, 비(非)수혜자 수는 3중 수혜자 수와 같다.

(단위 : %)

구분	제도 수혜자	중복 수혜자
A와 B	80	16
B와 C	70	18
A와 C	59	15

\* 중복 수혜자 :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보다 많다.
- ③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3배 이상이다.
- ④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보다 적다.
- ⑤ 한 가지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B: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C: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에 따라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A~C 제도의 연도별 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각 제도 수혜자			중복 수혜자			비(非) 수혜자
	A	B	C	A, B	B, C	A, C	
t년	35	23	51	10	9	16	20
t+20년	37	30	54	12	12	11	10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비(非)수혜자의 수는 t년과 t+20년이 동일함.

- t년에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t+20년에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와 같다.
- t+20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t년에 공공 부조의 수혜자 비율과 같다.
-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의 수는 t년이 t+20년의 0.5배보다 적다.
-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20년이 t년의 2배보다 적다.
-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20년이 t년의 3배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사례

- (가)의 사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 실시
- (나)의 사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급여 제공
- (다)의 사례: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자료 2>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가) 수급자	56		54
(나) 수급자		26	30
(다) 수급자	20	23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4	11	13
(나)와 (다) 중복 수급자	6		7
(가)와 (다) 중복 수급자		12	10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가)~(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고, (가),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가)~(다) 중 두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보다 적다.
- (가)~(다) 모두의 비(非)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75%이다.
-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가)~(다) 중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이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나)와 달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 1>은 갑국의 조사 연도에 따른 지역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자료 2>는 갑국의 이전 조사 연도 대비 A, B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자료 1> 갑국의 조사 연도에 따른 지역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구분		t-20년	t-10년	t년
(가)	A 지역	8.0	7.5	9.2
	전체	7.6	7.7	9.0
(나)	B 지역	23.8	31.0	27.5
	전체	24.4	32.8	25.5

<자료 2> 갑국의 이전 조사 연도 대비 A, B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

구분		t-10년	t년
전체 인구 변화율	A 지역	20	100
	B 지역	-20	50

\* t-20년 A 지역과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서로 같음.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t년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t-10년 B 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이다.
- A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이 t년보다 많다.
- B 지역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이전 조사 연도와의 수급자 비율 차이는 t년이 t-10년보다 크다.
-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t-2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t-10년 B 지역 수급자 수의 125%이다.
-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2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B 지역 수급자 수의 2배 미만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A와 B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은 제도는 A이다.

표는 연도별 갑국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B와 C 중복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수의 비율은 t년이 50%, t+50년이 80%이고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제도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전체 인구의 4%, t+50년이 전체 인구의 6%이다. 단, 갑국의 t년과 t+50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
t년	29	66	20	5	12
t+50년	38	65	16	4	8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t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4배이다.
- t+50년에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같다.
-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의 수는 t년과 t+50년이 같다.
- 중복 수혜자 중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t+50년보다 많다.
- 중복 수혜자 중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t+50년보다 많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은 연도에 따른 갑국의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자료 2>는 연도에 따른 갑국의 계층 인구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1> 연도에 따른 갑국의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

구분	t년	t+10년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	1	0.5

<자료 2> 연도에 따른 갑국의 계층 인구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t년		t+10년	
	(가) 제도	(나) 제도	(가) 제도	(나) 제도
상층 인구	35	14	34	9
중층 인구	㉠	8	35	㉡
하층 인구	29	12	38	11
전체 인구	32	11	36	11

\* t년과 t+10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서로 같음.

\*\* 갑국 중층 인구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이 t년의 1.5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3배보다 작다.
- t년 중층 인구와 t+10년 상층 인구는 같다.
- t년 상층 인구 중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 하층 인구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의 2배보다 적다.
- t+10년 상층 인구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 중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 수의 12%이다.
- 중층 인구 중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보다 t+10년이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B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C는 B와 달리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료 1>은 연도에 따른 갑국의 A~C 수혜자 비율과 비(非)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연도에 따른 갑국의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3중 수혜자의 수는 t년과 t+50년이 같다.

<자료 1> 갑국의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비(非)수혜자
t년	28	56	41	11
t+50년	24	66	34	10

<자료 2> 갑국의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A, B 중복 수혜자	B, C 중복 수혜자	A, C 중복 수혜자
t년	60	30	50
t+50년	40	20	50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년과 t+50년이 같다.
-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50년이 t년의 2배 이상이다.
- 3중 수혜자 비율은 t년이 t+50년의 2배이다.
-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비율은 t+50년이 t년보다 높다.
-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50년이 t년의 1.5배 이하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 보장 제도 A~C를 운영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A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 보험 기금을 통해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C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표는 갑국의 연도에 따른 20대 청년 실업자 중 A~C의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t+3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며, 3중 수혜자의 수는 t+30년이 전체 인구의 4%로 t년의 2배이다.

<자료 1> 갑국의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 비율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t년	t+30년	t년	t+30년	t년	t+30년
28	31	67	60	27	35
A 또는 B 수혜자		B 또는 C 수혜자		A 또는 C 수혜자	
t년	t+30년	t년	t+30년	t년	t+30년
83	81	80	79	46	55

-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t+3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②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는 t년과 t+30년이 같다.
- ③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3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두 제도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낮다.
- ⑤ 전체 20대 청년 실업자 인구 중 비(非)수혜자 비율은 t년과 t+30년이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A는 B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B는 C와 달리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는 갑국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비(非)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t년이 50%, t+10년이 100%이며, 갑국의 t년과 t+10년 전체 인구는 같다.

(단위: %)

구분	t년	t+10년
A 수혜자	60	60
B 수혜자	27	34
C 수혜자	19	20
A 또는 B 단독 수혜자	69	70
B 또는 C 단독 수혜자	29	32
A 또는 C 단독 수혜자	60	58

-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 단독 수혜자: A, B, C 중 1개의 혜택을 받는 사람

- ① t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50%이다.
- ② t+10년에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③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t+10년이 t년보다 적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10년이 t년보다 많다.

253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류의 역사는 희소 가치 생산 방식의 끊임없는 진보를 통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가정이다. 낡은 생산 방식은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는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결국 이들이 모여 구성된 역사는 생산 방식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이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 <보 기> —

- ㄱ.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ㄴ.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 ㄷ.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ㄹ. 사회 변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4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는 거칠고 원시적인 모습에서 시작하여 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세련되고 정교해진다. 이러한 성장과 번영을 거쳐 문화는 점차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를 지난 후 문화는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세속화되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결국 사멸한다. 이렇게 결국 모든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 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 ㄷ.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ㄹ.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5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회 변동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의 변동은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은 처음엔 단순하고 미숙한 형태로 출발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져 결국에는 울창한 삼림을 이룬다. 이처럼 사회 또한 원시의 시기에는 씨앗처럼 작고 단순한 형태를 이루나, 시간이 지나며 교육·법·경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분화되며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했고, 발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보 기>

- ㄱ. 운명론적 관점에 입각해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ㄷ.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고 본다.
- ㄹ.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6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류의 역사는 생성,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항상 특정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나, 해당 '엘리트'가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가 아닐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문명은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가 발전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대중의 수준이 그를 따르지 못할 때 문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보 기>

- ㄱ.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 ㄴ.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ㄷ.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ㄹ. 사회 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57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 사회가 걸어나가는 길은 어느 인간의 삶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성장해 나가듯 사회 역시 성장의 과정을 거치나, 성장이 멈춘 뒤 노화가 시작되듯 사회 역시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쇠퇴와 소멸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순리를 거부한 채 억지로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

— <보 기> —

- ㄱ.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 ㄴ.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ㄷ.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ㄹ.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58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순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던 초기 인류를 진보의 길로 이끈 것은 국가와 제도의 등장이었다. 기술의 발달은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교육 수준의 향상과 복지 제도의 확장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유연이 아니라 인류가 이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해 온 결과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 <보 기> —

- ㄱ.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 ㄴ. 사회 변동이 언제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ㄷ.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ㄹ.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9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해상 패권을 장악하였으나, 전쟁과 내적 분열로 쇠퇴한 뒤 결국 마케도니아에 패권을 내주었다. 로마 제국 역시 팽창과 번영 끝에 부패와 외적 침입으로 몰락하였으며, 근대 이후 해양 제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한 영국 역시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 정치의 권력 구조는 일정한 주기를 따르는 사회 변동에 의해 패권국이 교체되는 흐름을 보여 준다.

<보기>

- ㄱ.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 ㄷ.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 ㄹ.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구분	A	B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하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나)	예	예

- ① A는 B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② B는 A와 달리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B는 모두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④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26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 문제: 사회 변동 이론 A, B를 비교하여 A가 아닌 B에 해당하는 특징을 3개만 서술하시오. (단, 옳은 서술은 1점, 틀린 서술은 0점임.)

<학생의 서술 내용과 교사의 채점 결과>

답란		채점 결과
1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2점
2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3	(가)	

—————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을 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ㄷ. A와 B는 모두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ㄹ. '홍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6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표는 A와 B의 특징을 학생들이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이 조사한 특징 중 각각 다른 특징의 주장이 한 가지씩 존재한다.

A	B
· 숙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 (가)	·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 (나)

—————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고 본다.  
 ㄴ.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 사회가 누리는 번영은 종종 사람들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꽃핀다. 강한 사회는 자신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제도와 관계를 단단히 다지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타 사회와의 투쟁은 사회적 긴장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유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오래된 구조의 재조정이라는 결과를 끌어 내,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운 질서 하에서 활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로서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의 여부이다.

<보 기>

- ㄱ.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 ㄷ.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 ㄹ.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십시오.

대답	대답에 맞는 질문	채점 결과
예	A는 B와 달리 <input type="text" value="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라고/고 보는가?	0점
아나요	B는 A와 달리 <input type="text" value="(가)"/> 라고/고 보는가?	㉠

\* 교사는 완성된 질문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질문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가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0점'이다.
- ㄷ. ㉠에 '1점'이 들어간다면,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표는 각 질문에 대하여 A와 B에 해당하는 답변을 모두 적은 후, 그중 하나만 보이도록 나머지 답변을 보이지 않게 가린 것이다.

질문	답변	
	A	B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		
(가)	예	
(나)		
답변 '아니오'의 개수	2개	㉠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질문 (가)에 대한 B의 답변이 '예'이고 ㉠에 '1개'가 들어간다면,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가?'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국 시민들은 올림픽 기간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광장에 모여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 B국 시민들은 자국의 부패 정치인들을 축출하기 위해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② ㉡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③ ㉠은 ㉡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다수의 행동이다.
- ④ ㉡은 ㉠과 달리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 ⑤ ㉠과 ㉡은 모두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국에서는 소비자의 윤리적 행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단체를 결성해 친환경 및 공정 무역 상품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 을국에서는 20년 전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농촌이 몰락하자 3년 전부터 농민 단체들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① (가)에는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다수의 행동이 나타난다.
- ② (나)에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다수의 행동이 나타난다.
- ③ (가)에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 ④ (나)에는 (가)와 달리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에 공감하는 스위스의 환경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반대하는 ㉠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어진 조형물을 세우고 기업들의 일회용품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 미국에서 흑인이 인종 차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BlackLivesMatter ㉡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운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해시태그를 남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보 기> —

㉠. ㉠은 ㉡과 달리 지속 가능한 미래의 영위에 초점을 맞춘 사회 운동이다.

㉡. ㉠은 ㉡과 달리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 운동이다.

㉢. ㉡은 ㉠과 달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운동이다.

㉣. ㉡은 ㉠과 달리 사회 체계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운동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단적 행동에 나선다. 그들의 행위 동기는 사회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적 설득력을 높여 주며, 억압과 통제를 넘어선 순수한 의지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러한 특성은 참여자 간 운동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한 공유, 그에 따른 결속력 강화를 가지고 온다. 사회 운동은 권력이나 제도적 지시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닌, 정확히 그 반대의 것이다.

- ① 사회의 기존 권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②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문제 의식이 있다.
- ③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다.
- ④ 일정한 네트워크와 조직 구조를 통해 행동을 조율한다.
- ⑤ 기존 사회 질서나 제도, 가치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들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고, 이에 진행되었던 ㉠ 여성 참정권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흑인이 시내버스에서의 인종 분리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흑인들은 ㉡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인종 분리를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 <보 기> —

- ㄱ. ㉠은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 운동이다.
- ㄴ. ㉡은 특정 집단의 권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ㄷ. ㉠은 ㉡과 달리 사회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ㄹ. ㉡은 ㉠과 달리 특정 사건이 발단으로 작용해 시작된 사회 운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다음은 사회 운동에 대한 학습을 위해 준비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한 번 살펴 볼까요?

A	B
인근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에 국가가 파병을 결정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전쟁 반대 시위를 진행한 사례	국가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 경기를 관람한 시민들이 우발적으로 축구 협회 앞에 모여 농성을 진행한 사례
C	D
난민을 받기로 한 자국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연서명을 받는 사례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

<보 기>

- ㄱ. A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ㄴ. B는 다수의 뚜렷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ㄷ. C는 사회 변화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ㄹ. D는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술가로서의 재능보다 실용적 감각이 뛰어났던 갑은 어린 시절부터 ㉡ 사업가인 어머니의 지원 하에 ㉢ 브랜드와 시장에 대한 탐구와 분석을 진행하며 기업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 회사로 바로 취업해 상업 캠페인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던 중 자신이 몸담은 직업을 ㉣ '예쁘기만 한 말장난'이라며 비판하는 대중의 반응을 본 갑은 ㉤ 광고 속 과장된 이미지와 현실 간 괴리에 회의를 느낀 끝에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해 거리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설치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실험적이면서도 대중과 직접 만나는 그의 작업은 ㉦ SNS를 통해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진행된 환경 단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그는 ㉧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 ① ㉠은 갑의, ㉡은 갑의 어머니의 성취 지위이다.
- ② ㉢은 갑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 ③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은 보상이다.
-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 ⑤ ㉥은 ㉦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 운동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술형 평가] 다음 글에 제시된 사회학적 개념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4가지 쓰시오.

A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법과 계획이 있고 목표와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

답안	채점 결과
일시적이며 단기간에 끝나는 행동이 아니다.	㉠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만을 목표로 한다.	
(가)	

(○: 맞음, ×: 틀림)

<보 기>

- ㉠. 20세기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A에 해당한다.
- ㉡.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할 수 있다.’가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 ㉠에 ‘3점’이 들어간다면, ‘월드컵 기간 거리 응원’을 예시로 들 수 있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번 취업에 실패하던 A는 자국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입사 후에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어느 날 A는 성소수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B와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던 C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같이 SNS를 통해 해시태그를 활용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의 관심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 (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D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자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나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던 중 D의 소식을 접한 인권 변호사 E는 지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겪은 지난날을 떠올리고, D를 만나 그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 ① (가)에는 구직 측면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 ② (나)에 나타난 사례는 특정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다.
- ③ A는 D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
- ④ B와 C는 모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⑤ E는 A, C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년대 후반, 동남아의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 ○ 글로벌 식품 기업의 행태가 ㉠ 현지 환경 단체의 폭로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해당 폭로는 ㉡ 동장 확장을 위해 불법 벌목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희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폭로 직후 이러한 사실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다. 뒤이어 여러 국제 NGO가 연합하여 환경 보존 캠페인을 조직하였고, 기업 본사 앞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 압박을 받은 해당 기업은 결국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와 '산림 복구 지원'을 골자로 하는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 특정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로 남았다.

- ① ㉠은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 ② ㉡은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③ ㉢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다.
- ④ ㉣은 ○ ○ 글로벌 식품 기업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 ⑤ ㉤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특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년대에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 ○ ○ 다국적 기업 하청 공장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져 해당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좁고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일하며, 보호 장비 없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어린 노동자들이 학업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 ○ ○ 다국적 기업의 품질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 속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은 소비자 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국제 노동기준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확산했고, 이후 여러 국제 NGO는 ㉤ 아동노동 근절, 공정무역 확대 등 인권·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① ㉠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에 해당한다.
- ② ㉡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 ③ ㉢은 산업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직 운영 방식의 역기능이다.
- ④ ㉣은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저항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 ⑤ ㉤은 다수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동이 아니기에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79

표는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비교 기준	강함(높음)	약함(낮음)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	A	B
(가)	B	A

- ①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 대면 접촉 비중이 높다.
- ② A는 B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하다.
- ③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 ④ B는 A에 비해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높다.
- 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8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개인들은 A에 비해 B에서 취향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린다. B의 개인들은 각자만의 독특한 욕구를 A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는데, 여기에는 (가)는 B의 특징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 <보 기> —————

ㄱ. A는 B에 비해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  
 ㄴ. A는 B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이 낮다.  
 ㄷ. A는 자본과 노동이, B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 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ㄹ.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A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과 사회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 관료제 조직의 활용성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 B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모호성과 사회 구성원 간 직업의 이질성, 탈관료제 조직의 활용성과 비대면 매체를 통한 사회적 관계 마련의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 <보 기> —

- ㄱ. A는 B보다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다양성이 크다.
- ㄴ. A는 B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 ㄷ. B는 A보다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작다.
- ㄹ. B는 A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 A보다 B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2개와 B보다 A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2개를 제시하시오.

구분	특징	채점 결과
A < B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	①
	(가)	
A > B	사회의 다원화 정도	0점
	(나)	

\* 교사는 제시한 특징별로 채점하며, 옳게 제시한 특징에는 1점, 옳지 않게 제시한 특징에는 0점을 부여함.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낮다.
- 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불명확 정도'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다품종 소량 생산 정도'가 (가)에 들어간다면, ①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ㄹ. ①에 '1점'이 들어간다면, '면대면 접촉 빈도'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8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제시된 '비교 결과'에 맞는 기준을 옳게 서술하시오.

비교 결과	결과에 맞는 기준	채점 결과
A < B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0점
A > B	(가)	㉠

\* 교사는 완성한 서술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서술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보 기>

ㄱ. A는 B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강하다.  
 ㄴ. (가)에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0점'이다.  
 ㄷ. ㉠에 '1점'이 들어간다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8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문항 1: A보다 B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시오. (각 1점, 총 2점)  
 · 문항 2: B보다 A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시오. (각 1점, 총 2점)

<서술과 채점 결과>

구분	서술	채점 결과
문항 1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
	(가)	
문항 2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	
	(나)	

<보 기>

ㄱ. ㉠에 '0점'이 들어간다면,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ㄴ. (가)에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들어가고 (나)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들어간다면, '4점'은 ㉠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에 '2점'이 들어간다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자료는 A, B를 비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응답의 개수는 갑이 을보다 많다.

질문	응답	
	갑	을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은가?	아니요	아니요
A는 B에 비해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낮은가?	예	아니요
B는 A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가 높은가?	㉠	예
(가)	아니요	예

<보 기>

- ㄱ.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라면,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ㄴ.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의 2배이고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 ㄷ. 'B는 A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불명확한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1 모둠>부터 <5 모둠> 중 두 모둠에게는 산업 사회를, 세 모둠에게는 정보 사회를 배정했습니다. 각 모둠은 배정받은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2가지를 각각 발표해 봅시다.

- <1 모둠>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있습니다.
- <2 모둠> 1차 산업의 비중,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있습니다.
- <3 모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 그리고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 <4 모둠> 사회 변동의 속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있습니다.
- <5 모둠> 관료제 조직의 비중, 그리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이 있습니다.

교사: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가 산업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의 2배네요.

- ① <1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 ② <2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이다.
- ③ <3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 ④ <4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 ⑤ <5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이다.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가 가진 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화는 전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협력 체계로 만든다. 각 나라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가장 우수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정 기후에서 잘 자라는 농산물이 그곳에서 길러져 전 세계로 보내지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공산품이 관련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만들어 지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국경을 넘어선 분업을 통해 인류가 가진 유한한 능력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그 결과 인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게 된다.

- ①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용이해진다.
- ② 전 세계의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 ③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해외 투자가 활성화된다.
- ④ 국제적 특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 ⑤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의 감소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가), (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A국은 값싼 석탄 발전에 의존하여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켰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불러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B국에서는 이상 고온과 가뭄이 심화되어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에 식량의 확보를 의존하게 된 B국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C국과의 무역마저 불안정해졌다.
- (나) D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저가 의류는 E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방류된 폐수는 인근 하천을 오염시켜 F국과 공유하는 강의 수질을 악화시켰다. 그로 인해 F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D국과 F국 간 외교 갈등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D국은 E국과의 무역 상황을 고려해 의류의 생산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② 문제 유발의 당사자와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 ④ 한 국가, 집단의 행동이 다른 국가,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에 있어 국제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던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 자원을 과잉 소비하여 지구 환경을 훼손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당사자는 선진국이 아닌, 기술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다. 저지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침수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농촌 지역은 가뭄과 식량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의 파괴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 ③ 책임과 피해의 영역에서 불균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협력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⑤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어 단일 해결책으로 접근이 어렵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개발도상국의 느슨한 환경 규제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해당 문제들은 그 특성상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단일 국가의 행동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들의 해결에 있어서는 공정한 노동 조건 보장, 환경 보호, 지역사회 기여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공공성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와 소비 체계의 도입
- ② 지구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의 수립
- ③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한 해결 의무의 부과
- ④ 초국가적 행위체의 활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조정
- ⑤ 문제 대응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마련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년에 비해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와 t+50년 노년 부양비는 모두 50이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위: %)

구분	t년	t+50년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30	
부양 인구(15~64세 인구)		60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유소년 인구는 t년이 t+50년의 2배이다.
- ② 부양 인구는 t+5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③ 노년 인구는 t+50년이 t년의 4배이다.
-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5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⑤ t+50년 유소년 부양비는 t년 노년 부양비의 1.5배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t+10년의 노년 부양비와 같으며, t년 대비 t+10년에 부양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t년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125%, t+10년 총부양비의 75%이고 t+10년 전체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의 500%이다.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① t년과 t+10년의 유소년 인구는 동일하다.
- ② t년 대비 t+10년에 노년 인구 증가율은 노년 부양비 증가율보다 작다.
- ③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이 t년의 3배 이하이다.
- ④ t년 대비 t+1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작다.
- ⑤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의 문제는 t년보다 t+10년에 덜 부각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현재(t년) 갑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갑국 정부는 향후(t+100년) 발생할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 B의 결과를 얻었다. 단, t년 대비 t+10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50%라고 가정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부양비	80	t년 대비 37.5% 감소	t년 대비 75% 감소
노령화 지수	25	t년 대비 200% 증가	t년 대비 1,500% 증가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부양 인구는 A가 현재의 1.5배이다.
- ② 노년 인구는 B가 현재의 5배이다.
- ③ 노년 부양비는 A가 현재의 2배이다.
-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A와 B가 같다.
- 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가 A의 2배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년 대비 t+1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t년		t+1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15	25	20
유소년 부양비	60	70	50	2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t+10년 노년 인구와 같다.
- ② 노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t+10년 을국보다 작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년 을국이 t년 갑국의 2배 미만이다.
- ④ 을국의 부양 인구는 t+10년이 t년의 3배이다.
- ⑤ 갑국의 t+10년 노년 부양비는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보다 작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t+10년 부양 인구의 80%이며,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37.5%이고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5%이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총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10년
총부양비	100	140

- \*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노년 부양비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t년 대비 t+1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100%이다.
- ② t년 부양 인구는 t+10년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 ③ t+1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의 3배이다.
- ④ t년 유소년 인구는 t+10년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
- ⑤ t년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합은 t+10년 부양 인구의 합과 동일하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고,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50%, 을국이 100%이다. 단,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 인구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으며,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유소년 인구 비율(%)	30	25	20	20
노령화 지수	50	60	100	175

-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 총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 + \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 ② 총부양비는 t년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t+50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③ t년 세대 간 갈등 정도는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 ④ t+50년 노동력 부족 정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유소년 인구의 합은 t+50년 갑국이 t년 을국의 1.5배이다.

### 30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50년 노년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의 2배이며,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50년이 모두 60%이다. 표는 갑국의 연도에 따른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50년
노령화 지수	60	5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① t년 대비 t+5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100%이다.
- ② t년 대비 t+5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60%이다.
- ③ t년 노년 인구는 t+50년 유소년 인구와 같다.
- ④ t년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50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과 같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50년이 t년의 2배이다.



### 30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50년과 t+100년 노년 인구는 t년의 3배이며, t년 유소년 부양비는 80으로 t+100년의 8배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50년이 20%로 t년의 2배, t+100년의 0.8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t+50년이 t년의 4배이다.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t년 유소년 인구는 t+100년 노년 인구와 같다.
- ② t+50년 부양 인구는 t년 전체 인구와 같다.
- ③ t+100년 노년 부양비는 t+50년 유소년 부양비와 같다.
- ④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50년의 2배이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50년이 t+100년보다 많고, t년보다 적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연도에 따른 갑국의 연령별 인구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 50년 전 대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t+50년, t+100년 모두 100%이다.
-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인구는 모두 같다.
- t+50년과 t+100년 총부양비는 50으로 같다.
- t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50%이다.
- t+50년과 t+100년 전체 인구의 합은 t년 전체 인구의 3배이다.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t+100년 부양 인구는 t년 전체 인구보다 적다.
- t년 노년 인구는 t+50년 유소년 인구와 같다.
- t+100년 노년 부양비는 t년 총부양비보다 크다.
- t년과 t+50년 부양 인구의 합은 t+100년 전체 인구보다 많다.
- t+50년 대비 t+10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부양 인구의 증가율과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40년의 부양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노령화 지수는 t+80년이 200으로 t년의 3배이다. t년의 노년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40년의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과 같고, t년의 노년 인구는 t+80년의 유소년 인구와 같다. t+40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고,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80년이 모두 50%로 같다.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과 t+40년이 같다.
- t년의 부양 인구는 t+80년의 노년 인구와 같다.
- t년의 노년 부양비는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와 같다.
- t+80년의 노년 부양비는 t년의 유소년 부양비와 같다.
- 주어진 연도 중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연도는 한 연도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유소년 인구 비율과 노년 부양 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며,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을국이 140%로 갑국의 0.7배이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20년	t년	t+20년
유소년 인구 비율(%)	30	20	18	10
$\frac{\text{노령화 지수}}{\text{노년 부양비}}$	2	3	4	7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 + \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갑국이 t+20년 을국보다 많다.
- ②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20년 갑국이 t년 을국보다 높다.
- ③ t년 대비 t+20년에 증가한 부양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 ④ 유소년 부양비는 t년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크고, t+20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합은 t+20년 갑국이 t년 을국의 1.5배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년에 비해 t+5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는 80% 증가하였고, 을국의 노년 인구는 100% 증가하였다. 단, 갑국과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부양 인구 비율(%)	50	60	40	50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4 : 1	1 : 3	7 : 5	1 : 5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와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같다.
- ② t년 을국과 t+50년 갑국의 피부양 인구는 같다.
- ③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와 t+50년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같다.
- ④ t+50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t년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의 0.5배이다.
- ⑤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t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높고, t+50년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부양 인구는 t+20년과 t+40년이 t년의 1.5배임.)

구분	t년	t+20년	t+40년
$\frac{\text{노년 부양비}}{\text{총부양비}}$	$\frac{3}{10}$	$\frac{1}{2}$	$\frac{3}{5}$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	㉠	20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	50	㉢	5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과 ㉡의 합은 ㉢보다 크다.
- ② t년과 t+20년의 전체 인구는 같다.
- ③ 노년 부양비는 t년과 t+20년의 합이 t+40년보다 크다.
- ④ t+40년의 노년 인구는 t년의 부양 인구보다 많다.
- ⑤ t+20년과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의 합은 t년의 유소년 부양비보다 작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t년 대비 t+20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모두 20%이고,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100으로 을국의 1.5배이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잠재 성장 가능성과 경제 성장 동력은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구분	갑국	을국
총부양비	불변	감소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증가	불변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조건>

-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①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 ② t+20년에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100보다 작을 것이다.
- ③ t+20년에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40보다 클 것이다.
- ④ t년 대비 t+20년에 세대 간 갈등 정도가 갑국에서는 약해질 것이고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 ⑤ t년 대비 t+2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은 갑국과 을국이 모두 강해질 것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 인구 비율이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며,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증가한다.

갑국의 t+50년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100%이고, 을국이 50%이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령화 지수	25	60	100	300
노년 부양비	20	25	50	5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가와 t+50년 노년 인구는 같다.
- ② 을국의 t년 부양 인구는 t+50년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50년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④ ㉠에 따르면, 갑국은 t년에 비해 t+5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이 강화된다.
- ⑤ ㉠에 따르면, 을국은 t년에 비해 t+5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감소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이 20%로 t+50년의 2배이고 노년 인구는 t+50년이 t년의 75%이다.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t+50년이 t+100년보다 20% 높고 부양 인구는 t+50년이 t+100년의 1.5배이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부양비	60	50	25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t년 대비 t+1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100%이다.
- ② t년 부양 인가와 t+10년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 ③ t+1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의 3배이다.
- ④ t년 유소년 인구는 t+10년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
- ⑤ t년 노년 인가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t+10년 부양 인가와 동일하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3배이며,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표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A 기간은 t년 대비 t+30년으로, B 기간은 t+30년 대비 t+50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단, 잠재 성장 가능성, 노동력 부족 정도,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각각 판단한다.

구분	A 기간	B 기간
노년 인구 증가율(%)	100	50
노령화 지수 증가율(%)	200	100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	-20	-5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조건>

- 잠재 성장 가능성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 인구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 ① A 기간에 감소한 부양 인구는 증가한 노년 인구의 2배이다.
- ② B 기간에 증가한 부양 인구는 감소한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잠재 성장 가능성은 t년이 t+30년보다 크고, t+30년이 t+50년보다 크다.
- ④ 노동력 부족 정도는 t+30년이 t+50년보다 크고, t년이 t+30년보다 크다.
- ⑤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는 t+30년이 t년보다 크고, t+50년이 t+30년보다 크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며,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은 부양 인구가, 을국은 노년 인구가 50% 증가하였다. 단, t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40이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frac{B}{A-C}$	1	$\frac{1}{2}$	$\frac{1}{2}$	1
$\frac{A}{C}$	$\frac{5}{3}$	5	3	$\frac{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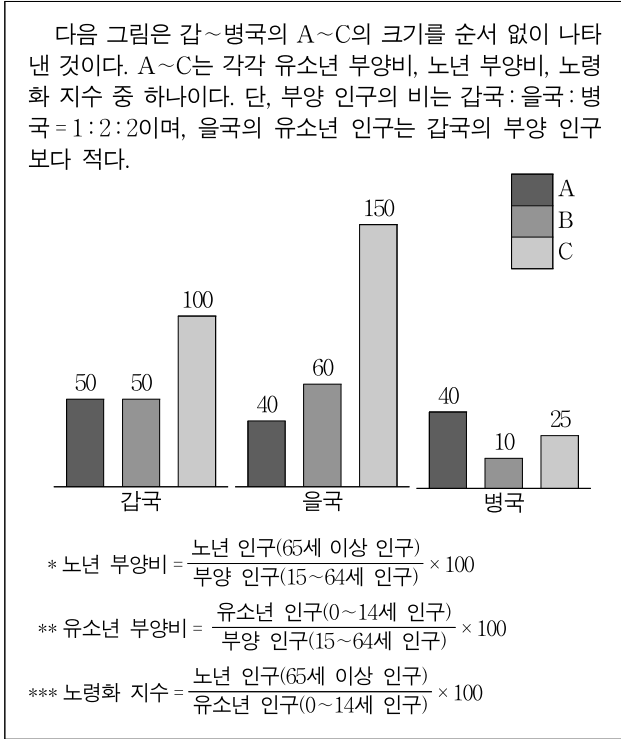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을국의 노년 인구와 같다.
- ②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갑국의 노년 인구와 같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년에는 을국이 갑국의 2배, t+50년에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 ④ 갑국은 을국과 달리 t년 유소년 부양비가 t+50년 노년 부양비의 2배이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은 감소하였고, 을국은 증가하였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노령화 지수, B는 노년 부양비, C는 유소년 부양비이다.
- ②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병국의 노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을국의 노년 인구는 갑국의 부양 인구보다 적다.
- ④ 노년 인구는 갑~병국 중 갑국에서 가장 적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갑국과 병국이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조건>

1.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와 같다.
2. A 시기는 t년 대비 t+30년으로, B 시기는 t+30년 대비 t+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인구 비율에 비례하고, 잠재 성장 가능성은 유소년 인구에 비례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불변	감소
노년 부양비	증가	증가
전체 인구	증가	불변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① A 시기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완화될 것이다.
- ② B 시기에 잠재 성장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 ③ 노년 인구는 A 시기와 B 시기에 모두 증가할 것이다.
- ④ 부양 인구는 A 시기와 B 시기에 모두 감소할 것이다.
- ⑤ 노령화 지수는 A 시기에 증가하고, B 시기에 감소할 것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20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의 노년 인가와 유소년 인구가 같으며,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 대비 t+20년에 2배로 상승하였다. 또한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이고, t년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는 같으며, t년 대비 t+2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50%, 을국이 20%이다.

구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의 상대적 크기					
갑국	t년						
	t+20년						
을국	t년						
	t+20년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① t+20년 갑국의 피부양 인구는 t년 을국의 부양 인구의 1.5배이다.
- ②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보다 t+20년 노령화 지수가 크다.
- ③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 증가율보다 노년 부양비 증가율이 크다.
- ④ t+20년과 달리 t년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t년 대비 t+20년 감소한 갑국 부양 인구는 t년 대비 t+20년 증가한 을국 피부양 인구와 같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에서 t년 대비 t+30년(A 시기)과 t+30년 대비 t+60년(B 시기)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서 t+3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이고, 노년 부양비는 60일 것으로 예측된다. 단, 노동력 부족 정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감소	변화 없음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	변화 없음	감소
노령화 지수	증가	증가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조건>

- 노동력 부족 정도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 ① 유소년 부양비는 t+30년이 t년보다 클 것이다.
- ② 노년 인구는 t+60년이 t년보다 적고, t+30년보다 많을 것이다.
- ③ 노동력 부족 정도는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클 것이다.
- ④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작을 것이다.
- 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년이 t+30년보다 크고, t+30년이 t+60년보다 작을 것이다.

다음은 갑국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A~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됨.)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노년 부양비	24	50	16	25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	25	10	15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전체 인구는 B 지역과 C 지역이 같다.
- ② A 지역 유소년 인구는 갑국 전체 부양 인구의 10%이다.
- ③ 갑국 전체 노년 인구는 A 지역 유소년 인구의 3배이다.
-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A 지역과 C 지역이 같다.
- ⑤ A~C 지역 중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현재(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60%이고 노년 인구의 1.5배이다. 갑국의 한 사회학자는 향후 발생할 인구 변화를 20년 주기로 예측하여 20년 전 대비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시나리오 A와 B의 결과를 얻었다. 갑국의 전체 인구는 시나리오 A에서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시나리오 B에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분		t+20년	t+40년
시나리오 A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변화 없음
	노년 부양비	증가	증가
시나리오 B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변화 없음	증가
	노년 부양비	감소	변화 없음

<분석>

1. 시나리오 A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는 증가한다.
2. 시나리오 A에 따르면, t년 대비 t+40년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한다.
3. 시나리오 B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는 감소한다.
4. 시나리오 B에 따르면, t년 대비 t+40년 부양 인구는 증가한다.
5. 시나리오 B와 달리 시나리오 A에서, t년 대비 t+40년 노령화 지수는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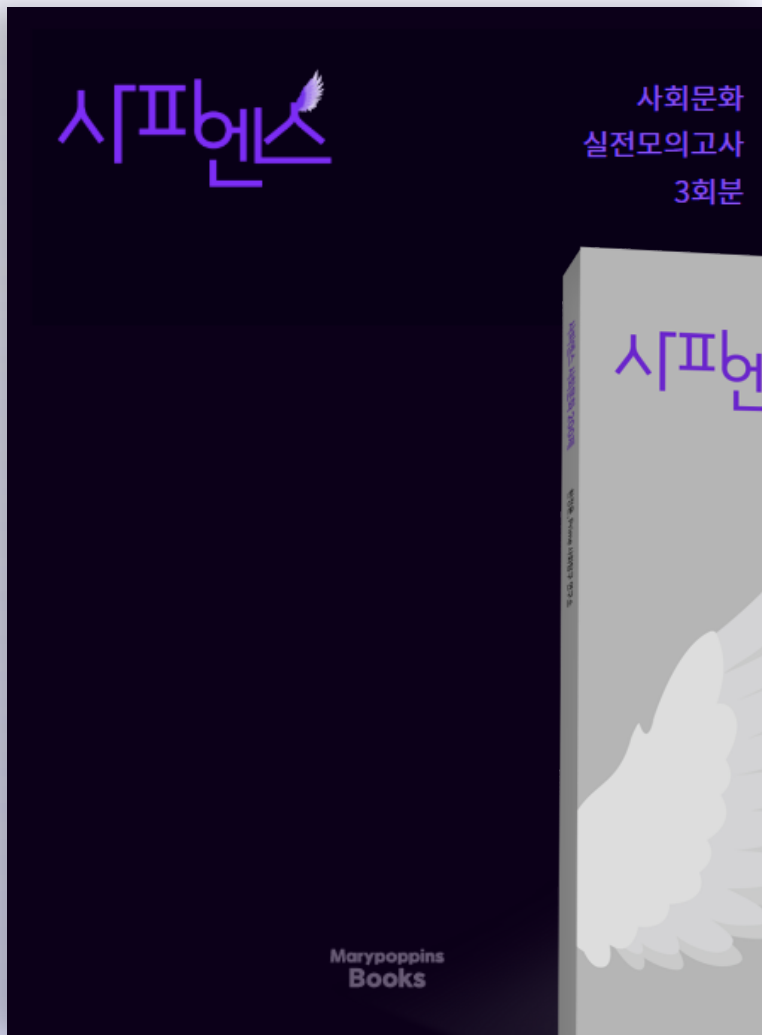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사회·문화, 사피엔스로 미래주머니 효과 그 이상을 누리다



사피엔스 모의고사 시즌1 (3회분)



사피엔스 200제

# 후기로 검증된 예리한 컨텐츠, 사피엔스에는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으아ㅏㅏ 1회 2회 퀄리티 너무너무 좋아요ㅠㅠ  
혹시 몇 회까지 계획에 있으실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실모보다 좋아요 ㅠㅠ

한 세트 한 세트 풀 때마다 수능 시험지 1,2,3...같은 느낌을 받았  
습니다. 사문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일깨워준 고마운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수능전까지 아껴서 풀고 싶을 정도예요ㅠㅠ 개념과 도표 모두  
적절하고 근거 있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난이도 조절과 참신한  
유형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타임어택과 개념에 대한 심층적 물음을 모두 잡은 모의고사. 쉽게 풀  
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뒤돌아보면 선지 하나하나에 개념의 완전  
한 이해를 묻는 모의고사이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마저 개념을 물으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잡는 모습은 가히 완성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  
다. 계산의 복잡함만을 추구하던 기존 모의고사들과 확연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기조를 성실히 반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 위 후기는 100%실제 독자 후기입니다.

# Head-Master 사회문화 1등급 로드맵

\*정식판매 종이책과, 양질의 무료자료로 반드시 최소비용으로 1등급을 만들어드립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정식 판매책, 네모박스가 무료자료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하여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 했습니다.

개념 학습	<p><b>인강 추천</b> 윤성훈T 불후의 명강 , 임정환 Lim it</p> <p><b>독학서 추천</b> <b>Sapiens 사회·문화 개념서</b>(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b>기출의 파급효과 사회·문화</b></p>
기출 학습	<p><b>문제집 추천</b> 마더텅, 자이스토리 등 '교육청 기출'까지 모두 포함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세요. (사회·문화는 많은 양의 문제 풀이가 필수적인 과목이기에, 교육청 기출에 대한 학습도 매우 중요함)</p>
N제	<p>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최소 '500문항' 가량의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p> <p><b>Level 1</b> <b>Headmaster Q150 N제</b> (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or <b>손고운T 전공자의 N제</b> : 기출과 유사한 난이도의 실전 문제 학습을 통한 1등급 가능권의 실력 확보</p> <p><b>Level 2</b> <b>★사피엔스 200제</b> (정식 종이책 판매) : 기출 이상의 고난도 문제 학습을 통한 모래주머니 효과로 1등급을 넘어 만점 가능 최상위권의 실력 확보를 위한 필수 문제집</p>
실전 모의고사	<p><b>★사피엔스 모의고사</b> (정식 모의고사 판매) : 실전과 가장 유사한, 그러면서도 높은 난이도를 갖춘 실전 모의고사 학습을 통한 실전 연습과 행동 영역의 마련, 빈출 유형과 신유형에 대한 학습</p> <p>✓ <b>사피엔스 무료 제공 모의고사</b>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 아래 목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6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li> <li>② 9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li> <li>③ 수능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li> <li>④ 교육청 우수 기출 문항 재배치 모의고사 3회</li> </ol>
추가 자료 <small>(헤드마스터 무료 자료)</small>	<p>✓ <b>헤드마스터 무료제공 자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청이 알려주는 사회·문화 미출제 요소</li> <li>②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문화 분석서</li> <li>③ 2026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분석서</li> <li>④ 사회·문화 중요 선지 정리본</li> </ol>

001 정답: ②

- ㉠, ㉡, ㉢은 자연 현상,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②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른다.  
 오답 풀이  
 ①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⑤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닌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002 정답: ①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①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적 규범을 따른다.  
 오답 풀이  
 ②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자연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아닌,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003 정답: ⑤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오답 풀이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자연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가 가능하다.  
 ③ 자연 현상은 당위적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아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04 정답: ③

- ㉠은 자연 현상, ㉡,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적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고 몰가치적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가 가능하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난다.

005 정답: ③

- ㉠, ㉡, ㉤은 자연 현상,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자연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②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다.  
 ④ 자연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006 정답: ⑤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⑤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오답 풀이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수치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007 정답: ③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②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④ 자연 현상은 개연성이 아닌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을 따른다.

008 정답: ⑤

- ㉠, ㉢, ㉤은 자연 현상,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오답 풀이  
 ① 자연 현상은 당위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② 사회·문화 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③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다.  
 ④ 자연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09 정답: ④

- ㉠, ㉢은 자연 현상, ㉡,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오답 풀이  
 ①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회·문화 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⑤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010 정답: ②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③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④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사회·문화 현상도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11 정답: ⑤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③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012 정답: ①**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ㄱ. 기능론은 사회 규범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ㄴ. 기능론은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성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ㄷ. 상징을 매개로 한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ㄹ.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13 정답: ③**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갈등론, 을의 관점은 기능론,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① 갈등론은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하지 않는다.

② 기능론은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갈등론과 기능론은 모두 개인보다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기능론은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014 정답: ②**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병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② 갈등론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①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③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④ 개인의 행동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⑤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015 정답: ①**

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을의 관점은 갈등론, 병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② 갈등론은 사회 각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지 않는다.

③ 기능론은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중시한다.

④ 갈등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⑤ 갈등론과 기능론은 모두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016 정답: ①**

갑의 관점은 갈등론, 을의 관점은 기능론,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① 갈등론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② 기능론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다양한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기능론이다.

⑤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17 정답: ③**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병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①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

② 갈등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는다.

④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⑤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모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018 정답: ⑤**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이고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따라서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고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⑤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야 하고, '개인의 행동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② 학교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③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강제력에 주목하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이다.
- ④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뿐이다.

019 정답: ②

갑의 설명에는 A 외에 B의 내용도 있으므로 A, B는 각각 기능론 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고, 을의 설명에는 A와 C의 내용만 있으므로 A, C는 각각 갈등론 또는 기능론이다.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규범이 특정 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③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의 상호 의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④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⑤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020 정답: ②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과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관점은 모두 갈등론이므로 갑 또는 을은 옳지 않은 설명을 했다. 따라서 병과 정은 옳은 설명을 한 것이 되고,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기능론, A는 갈등론이 된다. 그리고 옳지 않은 설명을 한 것은 을이 된다.

- ② 갈등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정한 분배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

오답 풀이

- ① ㉠은 을이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 ④ 사회에 내재한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는다.

021 정답: ①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022 정답: ②

사회 구조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3번 진술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그리고 옳은 진술의 개수는 옳지 않은 진술의 개수보다 많으므로 1, 2, 4번 진술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 ㉡.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본다.
- ㉢. (가)에는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옳은 진술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 ㉠은 3번 진술이다.
- ㉡. 사회화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023 정답: ②

질문 1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질문 2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기능론, 질문 3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기능론, 질문 4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갈등론, 질문 5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예'의 개수가 가장 많은 관점은 기능론, 가장 적은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므로 A는 기능론,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고, B는 갈등론이다.

- ② 질문 4와 질문 5는 모두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질문 1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고, 질문 2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 ③ 사회 각 부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④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이다.

024 정답: ①

첫 번째 특징은 갈등론, 두 번째 특징은 기능론과 갈등론, 세 번째 특징은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네 번째 특징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에 따라 B와 C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이 되어야 하고, B, C는 각각 기능론 또는 갈등론, A는 상징적 상

호 작용론이 된다.

이때 B가 기능론, C가 갈등론이라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갈등론, C는 기능론이다.

①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초점을 두는 것은 기능론이다.

오답 풀이

- ②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③ 사회 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이다.

025 정답: ②

첫 번째 질문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두 번째 질문은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세 번째 질문은 갈등론이, 네 번째 질문은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예'로 답할 질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A는 기능론 또는 갈등론이 될 수 있다.

이때 A가 기능론인 경우,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 C가 갈등론인 경우에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 B가 '아니요', C가 '예'로 답하며, B가 갈등론, C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인 경우 네 번째 질문에 대해 B가 '아니요', C가 '예'로 답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갈등론임을 알 수 있다.

이때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 C가 기능론인 경우 첫 번째 질문에 대해 B가 '아니요', C가 '예'로 답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기능론,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임을 알 수 있다.

②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오답 풀이

- ① 갈등론은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지 않는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다.
- ④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유지에 필요한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⑥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026 정답: ②

갑이 제시한 특징은 기능론, 비판점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이 제시한 특징과 비판점은 모두 기능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이 제시한 특징은 갈등론, 비판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옳게 제시한 학생은 을이고, B는 기능론이다.

이때 A가 갈등론, C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면 갑과 병은 특징을 옳지 않게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고 비판점을 옳지 않게 제시

한 학생은 병, 모두 옳지 않게 제시한 학생은 갑이다.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병'이다.
- ③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 ④ 사회 체계보다 개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 아닌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이다.

027 정답: ⑤

을은 4점을 얻었으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A는 갈등론,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기능론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은 답변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다.

⑥ (가)에 'A, C는 B와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가?'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므로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지 않게 답변한 것이 된다. 그리고 'A는 C와 달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므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지 않게 답변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갑이 2점을 획득한 것에 모순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 '아니요'라면 (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가 되고,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C는 A, B와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므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갑이 2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이 '예'라면 (나)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가 되고,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A는 C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갑이 2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B는 C와 달리 사회는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다. 그리고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되고, (나)에 대해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나)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가 되어야 하는데, 을은 모든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했으므로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가 된다.

- ⑤ 'C는 A와 달리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다. 그리고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갑은 해당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되고, (가)에 대해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가 되어야 하는데, 옳은 모든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했으므로 ㉠에 들어갈 것은 '예'가 된다.

028 정답: 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뿐이다. 이에 따라 ㉠의 2번 진술은 옳지 않은 진술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의 2번 진술은 옳은 진술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이때 A 또는 B는 각각 기능론 또는 갈등론이 되는데, 이에 따라 ㉠의 1번 진술은 옳지 않은 진술이 되어 ㉡의 1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고,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 된다. 이때 ㉠의 3번 진술은 옳지 않은 진술이 되기에, ㉡의 3번 진술, 즉 (가)에는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 ㉡. 옳지 않은 진술의 개수는 ㉠이 3개, ㉡이 0개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
- ㉢.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 인간은 상황 정의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 'B,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옳은 진술이고, (가)에는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하기에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29 정답: ②

옳은 3점을 얻었으므로 세 개의 질문에 대해 옳게, 한 개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게 답변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아니요'라면 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예', '아니요'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요', '예'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아니요'라면 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각각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인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되고, 두 번째 질문에서 C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

이 '아니요'인 것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각각 '예',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되고, 두 번째 질문에서 C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아니요'인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B는 기능론, C는 갈등론이다.

- ㉢.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 ㉣.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 (가)에는 옳은 답변이 '아니요'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A는 B와 달리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30 정답: ②

각 번호가 매겨진 특징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2. 갈등론
3. 기능론, 갈등론
4. 기능론
5. 갈등론
6. 상징적 상호 작용론
7. 기능론, 갈등론

이때 두 가지 관점에 해당하는 특징은 기능론, 갈등론에 해당하는 3, 7번 특징의 2개가 유일한데, A에는 해당하지 않고 B, C에 해당하는 특징은 2개가 존재하므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이때 B가 갈등론, C가 기능론이라면 B에는 해당하고 A,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2개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기능론, C는 갈등론이다.

A, B, C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은 1개이므로 ㉠에 들어갈 수는 '1'이며, A, B에는 해당하지 않고 C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2개이므로 ㉡에 들어갈 수는 '2'이고, A, B에는 해당하고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은 0개이므로 ㉢에 들어갈 수는 '0'이며, A에는 해당하고 B,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은 1개이므로 ㉣에 들어갈 수는 '1'이다.

② 3번 특징은 5번 특징과 달리 기능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오답 풀이

- ① ㉠과 ㉡의 합은 3, ㉢과 ㉣의 합은 1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6번 특징은 2번 특징과 달리 갈등론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니다.
- ④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⑤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

는 것은 갈등론이다.

031 정답: ②

갑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법이다.

- ㄱ.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 ㄴ. 문헌 연구법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수집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ㄷ. 문헌 연구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 ㄹ. 문헌 연구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032 정답: ③

A는 문헌 연구법, B는 참여 관찰법이다.

- ㄴ. 문헌 연구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 ㄷ. 참여 관찰법은 문헌 연구법에 비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 ㄱ. 문헌 연구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를 얻기에 유리하지 않다.
- ㄹ. 참여 관찰법과 문헌 연구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033 정답: ③

A는 질문지법, B는 참여 관찰법이다.

- ③ 참여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지법은 주로 질적 연구가 아닌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② 질문지법은 주로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에 활용되지 않는다.
- ④ 참여 관찰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이 아닌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 ⑤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034 정답: ⑤

갑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 을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 병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다. 따라서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 C는 참여 관찰법이다.

- ⑤ 실험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실험법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 ③ 참여 관찰법은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지

않다.

- ④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모두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035 정답: ④

자료 수집 시 주로 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질문지법, 면접법이고 'A, C는 B와 달리 자료 수집 시 주로 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참인 진술이므로 B는 참여 관찰법이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에 유리한 것은 질문지법이고 'C는 A, B와 달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에 유리하다.'는 거짓인 진술이므로 A는 질문지법, C는 면접법이다.

- ④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언어적 도구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② 참여 관찰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③ 면접법은 문맹자를 상대로 한 활용이 곤란하지 않다.
- ⑤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036 정답: ②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실험법, 질문지법이므로 B, D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또한 질문과 응답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문지법, 면접법이므로 C는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고 D는 질문지법, 면접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D는 질문지법, C는 참여 관찰법, B는 실험법, A는 면접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예', ㉡은 '아니요'인 것을 알 수 있다.

- ②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③ 실험법은 실제서잉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 ④ 참여 관찰법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 ⑤ 질문지법은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037 정답: ③

A는 질문지법, B는 면접법이다.

\* 갑이 ○○ 고등학교의 자습실에 관찰자를 배치한 것은 해당 관찰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갑이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질문지법과 면접법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지법은 실제성이 높은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지 않다.
- ② 질문지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 ④ 면접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지 않는다.
- ⑤ 면접법은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038 정답: ⑤

갑, 정, 무는 옳은 사례를 제시했으므로 (가)에는 질문지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갈 수 없고, ㉠은 문헌 연구법, ㉡은 참여 관찰법이다. 그리고 을은 ㉠, 병은 ㉡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으므로 (나)에는 문헌 연구법이 활용된 사례가, (다)에는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갈 수 없다.

- ⑤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가출 청소년 모임에 참가하여 한 달간 그들의 생활 양상과 환경을 관찰하였다.'는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다)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문헌 연구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시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② 참여 관찰법은 2차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③ '백색 소음의 유무가 작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직장인들 중 한 집단에만 백색 소음을 듣게 한 뒤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실험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지역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 중 10명을 선정하여 그들과 해당 제도의 공정성과 찬반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면접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39 정답: ④

- ㄱ. 3번 문항에서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학교 수업'에서 '학습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문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선택지를 가진 문항이다.
- ㄴ. 4번 문항은 '최근에 새롭게 하게 되었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학습 활동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은 한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는 문항이다.
- ㄷ. 2번 문항은 '얼마 동안을 기준으로'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으므로 해당 문항은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문항이다.

오답 풀이

- ㄹ.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040 정답: ②

- ㄴ. B가 면접법, C가 질문지법이라면 A는 실험법이다. 그리고 (다)에는 실험법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통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방법인가?'의 질문은 실험법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 ㄷ. (가)에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가?'가

들어간다면 C는 질문지법이고, A가 실험법이라면 B는 면접법이다. 이에 따라 (나)에는 면접법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인가?'는 면접법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A가 실험법, B가 질문지법이라면 C는 면접법이다. 이에 따라 (나)에는 면접법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는 질문지법도 '예'로 답하는 질문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나)에 '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인가?'가 들어간다면 B는 실험법이고, (다)에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가?'가 들어간다면 A는 면접법이다. 따라서 C는 질문지법이다.

041 정답: ④

갑은 실험법과 문헌 연구법을, 을은 문헌 연구법과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A는 실험법, B는 문헌 연구법, C는 참여 관찰법이다.

- ④ 실험법은 문헌 연구법과 달리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변인의 효과를 측정한다.

오답 풀이

- ①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 ② 문헌 연구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 ③ 참여 관찰법은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데 유리하지 않다.
- ⑤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 관찰법이다.

042 정답: ④

갑의 사례에서는 실험법, 면접법이 사용되었고, 을의 사례에서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사용되었으며, 병의 사례에서는 참여 관찰법과 질문지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갑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옳게 제시했으므로 A, B는 각각 실험법, 면접법 중 하나이고, 을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옳지 않게 제시했으므로 A, D는 각각 질문지법과 면접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A는 면접법, B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고 C는 참여 관찰법이다.

- ㄱ. 병의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과 질문지법이고, C, D는 각각 참여 관찰법과 질문지법이므로 (가)에 들어갈 것은 '모두 옳게'이다.

- ㄴ. 면접법은 실험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ㄷ. 실험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양적 자료의 수집에 활용된다.

오답 풀이

- ㄹ.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

043 정답: ③

갑이 제시한 사례는 문헌 연구법, 을이 제시한 사례는 질문지법, 병이 제시한 사례는 실험법이 활용된 사례이다. 이때 ㉠이 문헌 연구법, ㉡이 실험법이라면 갑이 배정받은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은 실험법, ㉡은 문헌 연구법이다.

(가), (나)에는 각각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가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이때 (가)에 면접법, (나)에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간다면 정과 무는 배정받은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가)에는 참여 관찰법, (나)에는 면접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③ 병은 갑이 배정받은 실험법, 갑은 을이 배정받은 문헌 연구법이 활용된 사례를 작성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실험법과 달리 참여 관찰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② 참여 관찰법과 달리 실험법은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④ '△중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대화의 형식으로 물어봄.'은 면접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소방서 소방관들과 6개월간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작업 환경을 살펴보고 기록함.'은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44 정답: ①

〈3 모둠〉은 옳게 발표했으므로 C는 실험법이고, 〈1 모둠〉은 〈4 모둠〉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으므로 D는 질문지법, 〈4 모둠〉은 〈2 모둠〉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으므로 B는 질문지법, 〈2 모둠〉은 〈5 모둠〉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으므로 E는 참여 관찰법, 〈5 모둠〉은 〈1 모둠〉이 배정받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으므로 A는 문헌 연구법이다.

①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오답 풀이

- ②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법은 실험법이다.
- ③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방법은 질문지법이다.
- ④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다.
- ⑤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방법은 질문지법, 면접법이다.

045 정답: ④

④ 대면 소통만을 진행한 A 집단이 비대면 소통만을 진행한 B 집단에 비해 구성원 간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면 소통은 비대면 소통에 비해 집

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과 ㉡은 모두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② ㉠은 모집단도, 표본 집단도 아니다.
- ③ ㉠, ㉡은 모두 '교류 방식'이라는 독립 변수를 처치한 집단이므로 실험 집단이다.
- ⑤ 비대면 소통만을 진행한 B 집단이 1주일의 기간 후 구성원 간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비대면 소통은 대면 소통과 달리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없다.

046 정답: ⑤

⑤ 연구 결과, 공동체 의식 수준은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결과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를 내용으로 하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나, ㉠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② ㉠은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재정의한 것이 아니므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다음 연구에서는 실험법이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연구 결과, 관용 정신 지수는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결과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관용 정신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내용으로 하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설 1〉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047 정답: ②

- ㄴ. ㉠과 ㉡은 모두 ㉠을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ㄷ. 갑은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재택 근무 시간의 비중은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은 모집단에 해당하나, ㉡은 표본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가 일련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이 될 수 없다.

048 정답: ④

④ 소통에 있어 화상 회의의 방식을 활용한 A1 집단은 A2 집단에 비해 업무 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나, B1 집단은 B2 집단에 비해 업무 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하락이 나타났다. 따라서 ㉠은 '화상 회의 중심 소통은 업무 몰입도에 있어 B 집단과 달리 A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측정이 어려운 개념을 측정이 용이한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 아니므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직장인의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직장인의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리고 A 집단과 B 집단은 모두 각각 '화상 회의'와 '채팅'이라는 '요인'에 대해 처치를 받았으므로 A 집단과 B 집단은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차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 ⑤ 소통에 있어 채팅의 방식을 활용한 A2 집단과 B2 집단은 모두 업무 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은 '채팅 중심 소통은 업무 몰입도에 있어 A 집단과 달리 B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하지 않는다.

049 정답: ⑤

⑤ 모둠 A는 1일 차와 2일 차 모두에서 감시자의 존재 없이 활동을 진행하였고, 모둠 B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서 감시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둠 A의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1일 차와 2일 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둠 B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1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둠 B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독립 변수가 처치된 결과, 모둠 A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독립 변수가 처치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두 결과 간 차이, 다시 말해 ㉠과 ㉡ 간 차이에 의해 ㉠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일 차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 탈출 게임 형식의 활동을 하게끔 하는 사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 ② 독립 변수가 처치되지 않은 모둠 A는 통제 집단, 독립 변수가 처치된 모둠 B는 실험 집단에 해당하며, 모둠 C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중 무엇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은 독립 변수, 즉 '감시자의 존재'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다.
- ④ ㉢은 갑이 그의 연구에서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050 정답: ③

③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활동'과 '일상을 꾸미고 공유하는 활동' 모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 유형'이라는 독립 변수를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작적 정의의 결과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 양상에 대해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A, B 모둠은 실험 집단이나, C 모둠은 통제 집단이다.
- ④ ㉡ 이전과 이후 단계 모두 자료 수집의 단계이므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한 A 모둠과 일상을 꾸미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한 B 모둠 모두 SNS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C 모둠에 비해 자료 정리를 도와준 참가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공유 중심의 SNS 활용과 일상 공유 중심의 SNS 활용 모두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 연구는 '정보 공유 중심의 SNS 활용은 일상 공유 중심의 SNS 활용과 달리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하지 않는다.

051 정답: ①

- ㄱ. ㉠은 종속 변수, ㉡과 ㉢은 독립 변수이다.
- ㄴ. 갑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효능감 지수'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시행했으나,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ㄷ.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최근 1년 내 투표 여부를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것은 타인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
- ㄹ.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최근 1년 내 투표 경험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 지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교과목 수강 ○	교과목 수강 ×
투표 경험 ○	4.2	3.0
투표 경험 ×	3.4	2.1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는 3.4~4.2점이고,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는 2.1점~3.0점이다. 따라서 ㉠은 수용된다. 그러나 투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는 3.0~4.2점이고, 투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는 2.1~3.4점이다. 이에 따라 투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가 있는 응답자의 정치적 효능감 지수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은 수용되지 않는다.

052 정답: ①

① 갑의 연구에서 A 집단은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알람을 총 30번 받았고, B 집단은 스마트폰 알람을 총 6번 받았다.

그리고 이는 갑의 연구에서 두 실험 집단을 구분짓는 독립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에서 독립 변수는 '스마트폰 알람의 횟수'이다.

오답 풀이

- ② A 집단과 B 집단은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 ③ 갑의 연구에서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나, 을의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이후 진행된 을의 연구 단계도 여전히 자료 분석 단계이므로 가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은 을이 그의 연구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수집한 자료이므로 을이 수집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053 정답: ②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 갑의 연구에서 행동 관찰자가 주의 분산 여부를 기록한 것은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을의 연구에서 일기 자료를 수집한 것은 을이 그의 연구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므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유대 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갑과 을은 모두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③ 을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활용하였으며, 갑은 이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지 않았다.
- ④ 갑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⑤ 을은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면접법을 활용하였으나, 갑은 면접법 또는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054 정답: ④

④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A 집단에서는 최대 전기 자극 단계까지 도달한 참가자 비율이 65%, 압박감을 바탕으로 한 B 집단에서는 최대 전기 자극 단계까지 도달한 참가자 비율이 80%,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C 집단에서는 최대 전기 자극 단계까지 도달한 참가자 비율이 40%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은 개인의 복종 수준에 친밀감보다 강한 영향을, 압박감보다 약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독립 변수를 처치하기 전 종속 변수를 측정했기 아니므로 사전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A~C 집단은 독립 변수를 처치받은 실험 집단에 해당하

나, ㉠은 통제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자체로는 '개인의 복종 수준'이라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없으며, ㉠은 그 자체로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기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개인의 정서적 불안의 정도와 개인의 복종 수준이 집단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위자의 유형이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권위자의 유형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이 될 수 없다.

055 정답: ⑤

④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변한 참가자 비율은 효율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공간에 자리한 B 집단에서 10%, 특정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공간에 자리한 C 집단에서 16%로 나타났다. 따라서 갑의 연구는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은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

오답 풀이

- ① ㉠으로 인해 '개인'이라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갑은 그의 연구에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이라는 종속 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③ ㉠은 '주변 환경'이라는 독립 변인에 대한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정행위를 저지른 참가자 비율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공간에 자리한 A 집단에서 6%, 특정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공간에 자리한 C 집단에서 6%로 나타났다. 따라서 갑의 연구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환경은 개인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056 정답: ②

② 갑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게임 이용 원인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디지털 게임 이용 원인,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도이다. 그리고 갑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성취욕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스트레스 해소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연구에 따르면 ㉠, ㉡과 달리 ㉢은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갑의 연구에서 디지털 게임 이용 원인 또는 학업 성취도를 재정의한 것이 아니므로 조작적 정의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갑과 을은 모두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④ ㉢은 갑의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에 해당하나, 을의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을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게임 이용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은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이 상대적으로

으로 높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가 학업 성취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을의 연구에서 게임 이용 원인으로서의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 중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이용하게끔 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을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는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057 정답: ①

갑은 면접법과 질문지법, 을은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① 갑과 달리 을은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② 갑과 을은 모두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사오 작용이 필수적인 질문지법 또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④ 갑과 을은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공감 형성을 중시하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⑤ 갑과 을은 모두 통제된 상황 하에서 변인 처치가 이루어지는 실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058 정답: ②

② 다음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경쟁 상황'이다. 그리고 갑은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각 모둠에게 경쟁 모둠의 존재를 공지하였으므로 독립 변수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처치되었다.

오답 풀이

① 갑의 연구에서 두 모둠은 모두 경쟁 상황이라는 독립 변수가 처치된 모둠이다. 따라서 ①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 아닌, 두 실험 집단의 구분이다.

③ ㉠과 ㉡은 모두 '협력적 과업 수행 방식'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차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⑤ 갑은 2일 차에 전날과 동일한 과제를 각 모둠에게 다시 제시하였다. 따라서 두 모둠 모두에 있어 과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이 1일 차에 비해 2일 차에 현저히 줄어든 것이 경쟁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전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다음 연구가 '경쟁 상황은 과업 수행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059 정답: ⑤

⑤ 을은 □□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각각 50명씩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었으므로 실험 전

측정한 두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을은 3개월 동안 A 집단에는 자신이 개발한 수업을 실시하고, B 집단에는 기존의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는 B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실험 전후 A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의 증가폭이 B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의 증가폭보다 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실험 전후 ㉡의 변동폭과 ㉢의 변동폭 간 차이로 인해 수용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는 '친환경 소비 의도'가 포함되지 않으나, 을은 갑이 조사한 것과 같은 설문 항목을 통해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를 조사하였으므로 ㉠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는 '친환경 소비 의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친환경 소비 의도에는 학교 교육이 가정 환경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에는 가정 환경에 학교 교육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이 친환경 소비 의도에는 가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에는 학교 교육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갑은 그의 가설을 수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렸으므로 '학교 교육은 가정 환경과 달리 친환경 소비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을은 실험 전후 설문 조사를 활용해 각 집단의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을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④ 을의 가설은 '자신이 개발한 수업은 기존의 수업에 비해 환경 보호 행동 실천 의도에 더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당 가설에서 독립 변수는 '자신이 개발한 수업'과 '기존의 수업' 모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개발한 수업'을 처치한 A 집단과 '기존의 수업'을 처치한 B 집단은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060 정답: ⑤

갑은 문헌 연구법과 질문지법, 을은 문헌 연구법과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⑤ 갑과 을은 모두 2차 자료의 수집에 용이한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갑과 을은 모두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 참여 관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을과 달리 갑은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실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④ 갑과 을은 모두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061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ㄹ. 개인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62 정답: ②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ㄹ.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63 정답: ②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구조와 구조에서 찾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64 정답: ③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65 정답: ③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ㄴ. 사회 실재론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ㄹ.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66 정답: ⑤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적 이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가 개인에 비하여 우월한 존재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사회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실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67 정답: ⑤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68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㉔.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69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ㄹ. 사회 실재론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혁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ㄱ.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ㄷ.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70 정답: ②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ㄱ. 사회 실재론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ㄷ. 사회 실재론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위치해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ㄴ.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ㄹ.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71 정답: ⑤

A는 사회 명목론, B는 사회 실재론이다.

⑤ (가)에는 사회 실재론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가?'는 사회 실재론만 '예'로 답하는 질문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②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개인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④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72 정답: ③

같은 사회 실재론, 을은 사회 명목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③ 사회 명목론은 사회 실재론과 달리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①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②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④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에서 찾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⑤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73 정답: ①

다음 글에서 비판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외재성을 가진다고 본다.

ㄴ. 사회 실재론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ㄷ.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ㄹ. 사적 이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74 정답: ④

A가 사회 실재론, B가 사회 명목론인 경우 점수가 4점인 데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사회 명목론, B는 사회 실재론이고 (가)에는 사회 실재론, (나)에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④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②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③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⑤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75 정답: ⑤

옳은 대답이 '아니요'인 질문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예'가 되어야 하고, A는 사회 실재론, B는 사회 명목론이다.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 명목론과 달리 사회는 개인에게 외재성을 가진다고 보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예'이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은 '1점'이다.

ㄷ. ㉠이 '0점'이라면 (가)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이 '아니요'가 되게끔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사회 실재론은 사회 명목론과 달리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의 구속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이 '0점'인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ㄱ.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76 정답: ㉠**

A가 사회 명목론, B가 사회 실재론인 경우 ㉠은 최소 0점~최대 2점이고, A가 사회 실재론, B가 사회 명목론인 경우 ㉠은 최소 2점~최대 4점이다. 이에 따라 ㉠이 0점 또는 1점인 경우 A는 사회 명목론, B는 사회 실재론이고, ㉠이 3점 또는 4점인 경우 A는 사회 실재론, B는 사회 명목론이다.

ㄴ. (가)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재한다고 본다.'가 들어간다면, A가 사회 실재론, B가 사회 명목론인 경우 ㉠은 최소 2점, 최대 3점이다. 따라서 ㉠에는 '4점'이 들어갈 수 없다.

ㄷ. ㉠에 '3점'이 들어간다면 A는 사회 실재론, B는 사회 명목론이다. 그리고 이때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가 (나)에 들어간다면 ㉠은 최소 2점, 최대 3점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ㄹ. (가)에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가 들어가고 (나)에 '사회 문제 해결 시 제도 개혁보다 인식 개혁을 중시한다.'가 들어간다면 A가 사회 명목론, B가 사회 실재론인 경우와 A가 사회 실재론, B가 사회 명목론인 경우 모두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오답 풀이

ㄱ. ㉠에 '1점'이 들어간다면, A는 사회 명목론, B는 사회 실재론이다.

**077 정답: ㉠**

㉠ ㉡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은 갑의 귀속 지위이나, ㉡은 '갑의' 귀속 지위가 아니다.

②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나,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은 애초에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078 정답: ㉠**

④ ㉠은 소방관으로서의 갑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사회화 기관이기에 두 가지 모두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②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③ ㉠은 갑의 역할이 아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⑥ ㉠은 갑의 역할 행동이 아닌, 갑이 역할을 배정받은 것에 해당한다.

**079 정답: ㉠**

㉠ ㉡은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해 문단의 주목을 받는, 을은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해 작품들이 전문 문예지에 실리며 인정받는 보상을 경험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나,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③ ㉠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갑은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경험하지 않았다. 문학 공모전에서 탈락한 것은 '사회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080 정답: ㉠**

④ ㉠은 을이 수행한 기자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오답 풀이

① ㉠은 갑의 성취 지위이나, ㉡은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은 갑의 역할이 아닌,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③ ㉠은 갑이 가진 기획자와 부모라는 두 가지 역할로부터 발생한 역할 갈등이나, ㉡은 을의 역할 갈등이 아니다.

⑤ ㉠은 을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081 정답: ㉠**

① 을은 갑의 입사 동기이므로 ㉠은 을이 속한 공식 조직이며, 을은 글로벌 전략팀의 핵심 인력으로 발탁되었으므로 ㉡은 을이 속한 공식 조직이다.

오답 풀이

② ㉠과 ㉡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여 발생한 역할 갈등이 아니다.

③ ㉠은 갑의 동료가 갑에게 준 조언이므로 갑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 행동이 아니다.

④ ㉠은 사회나 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위치가 아니므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과 ㉡은 모두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082 정답: ㉠**

ㄱ. 갑은 고등학교라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한 적이 있고, 을 역시 고등학교, 대학원이라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한 적이 있다.

ㄷ. 을은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해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에 성공한, 또 학계의 주목을 받는 보상을 경험하였다. 반면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ㄴ. 갑과 을은 모두 그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경험하지 않았다.

ㄹ. 을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실험실 연구에 매진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반면 갑은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중고 기타를 사 혼자 연습을 시작한 것은 특정

지위를 얻을 것을 예상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예기 사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083 정답: ③

- ㄱ. 을은 사내 윤리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것에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지 않았다. \*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갑은 관광 관련 기업에 입사하고자 취업 준비를 하였다는 것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을은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ㄴ. 갑과 을은 모두 역할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다. 갑이 회사의 작은 규모에 망설인 것, 을이 강한 윤리적 갈등을 느낀 것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여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할 갈등이 아니다.

084 정답: ④

A는 비공식 조직, B는 자발적 결사체, C는 공식 조직이다.  
 ④ '시민 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 조직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②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모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노동조합'은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사례에 해당한다.

085 정답: ①

① 학교는 학교 운영 위원회와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가족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③ 갑은 학교 운영 위원회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는 갑의 내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가족은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아닌,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⑤ 학교 연합 환경 보호 단체는 공식 조직 내부의 공식 조직이 아닌 사회 집단이 아니므로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086 정답: ②

사회 집단 ㉠은 A와 C에 동시에 해당하고, ㉡은 C에만 해당하므로 A는 비공식 조직, C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따라서 B는 공식 조직이다.

- ㄴ.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사내 테니스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이기에 ㉠에 해당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모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이 아닌 ㉠에 해당할 수 없다.

087 정답: ②

갑~병이 속한 사회 집단 및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대학교	○	○	○
총학생회	○	×	○
가족	○	×	×
환경 단체	×	○	×
대학 축구 동아리	×	○	○

② 병이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대학 축구 동아리의 1개, 갑이 속한 공동 사회의 개수는 가족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대학교, 총학생회의 2개, 을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교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환경 단체, 대학 축구 동아리의 2개, 갑과 병이 함께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교, 총학생회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④ 을과 병이 함께 속한 사회 집단은 □□대학교, 대학 축구 동아리의 2개, 갑이 속한 1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가족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자발적 결사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병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총학생회, 대학 축구 동아리가 존재한다.

088 정답: 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 회사	○	○	○
시민단체	○	×	×
가족	○	×	×
테니스 동호회	×	○	×
사내 노동조합	×	○	○
사내 게임 동아리	○	×	○

⑤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 갑이 속해 있는 공동 사회의 개수는 가족의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발화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 시민 단체의 2개, 을의 발화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테니스 동호회, 사내 노동조합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지 않다.
- ② 병의 발화에 나타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사내 게임 동아리의 1개, 을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 회사, 테니스 동호회, 사내 노동조합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지 않다.
- ③ 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회사, 시민단체, 가족, 사내 게임 동아리의 4개, 병이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 회사, 사내 노동조합, 사내 게임 동아리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2개 많지 않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의 1개,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테니스 동호회, 사내 노동조합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89 정답: ③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 기업	○	×	×
골프 동아리	○	○	×
□□ 로펌	×	○	×
총동창회	×	○	○
○○ 은행	×	×	○
여행 동호회	×	×	○

- ③ 갑이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 기업, 골프 동아리의 2개, 을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로펌, 총동창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장면 1]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기업, 대학의 2개, [장면 2]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고등학교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장면 3]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여행 동호회의 1개,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0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총동창회, ○○ 은행, 여행 동호회의 3개,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골프 동아리, 총동창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골프 동아리가 존재하나,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090 정답: ②

갑~무가 속한 사회 집단 및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독서 모임	○	×	×	×	×
헬스 동호회	×	○	×	×	×
대학	○	×	○	×	×
편입 스터디	×	×	×	○	○
인디 밴드(나락 밴드)	○	○	○	○	○
시민 단체	×	○	×	○	×

- ② [장면 3]에 나타난 사회 집단의 개수는 시민 단체, '나락 밴드'의 2개,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인디 밴드, 시민 단체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장면 1]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독서 모임, 헬스 동호회의 2개, [장면 2]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편입 스터디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독서 모임, 대학, 인디 밴드의 3개, 을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헬스 동호회, 인디 밴드, 시민 단체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④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의 1개, 무가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편입 스터디, 인디 밴드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갑과 정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을과 정이 함께 속한 공식 조직은 시민 단체가 존재한다.

091 정답: ③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대학교	○	○	○	○	○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	○	○	○	○	○
경영 대학원	○	○	×	×	×
총학생회	×	×	○	×	×
회사	×	×	○	×	×
봉사 동아리	×	○	×	○	×
동창회	×	×	×	○	○

- ③ 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교, 경영 대학원의 2개,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 봉사 동아리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소개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경영 대학원의 1개, 병의 소개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방송국, 총학생회, 회사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지 않다.
- ② 무의 소개에 나타난 2차 집단의 개수는 봉사 동아리, 동창회의 2개, 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교,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 경영 대학원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병이 속한 이익 사회의 개수는 ○○대학교, 학생 홍보 대

사 동아리, 총학생회, 회사의 4개, 무가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 봉사 동아리의 2개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 ⑤ 갑과 을이 모두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학생 홍보 대사 동아리의 1개, 정과 무가 모두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교의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지 않다.

092 정답: ③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가족	○	○	○
회사	○	×	×
대학	×	○	×
고등학교	×	×	○
밴드부	×	○	×
총학생회	×	○	×
축구 동아리	×	×	○

- ㄱ.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회사의 1개, 병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축구 동아리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ㄴ. 을이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가족, 대학, 밴드부, 총학생회의 4개, <1 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 고등학교의 2개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ㄷ. <2 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밴드부, 총학생회의 2개, <3 모둠>이 창작한 내용에 나타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축구 동아리의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93 정답: ④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정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회사	○	○	×	×
사내 노동조합	○	○	×	×
대학	×	×	○	○
대학 테니스 동아리	×	×	○	○
총학생회	×	×	×	○
자전거 동호회	×	○	×	×

- ㄱ. 1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이고 2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학, 고등학교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ㄴ. 3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2차 집단의 개수는 총학생회, (대) 학교, 자전거 동호회의 3개이고 을이 속한 이익 사회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 자전거 동호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ㄷ.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이고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 테니스 동아리, 총학생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ㄹ.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의 1개, 갑과 을이 동시에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94 정답: ④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 대학교	○	○	×	×	×
여행 연합 동아리	○	×	×	○	×
○○ 회사	×	×	○	×	×
총동창회	×	×	○	○	×
고시 스테디	×	○	×	×	○
축구 동호회	○	×	×	×	○

- ④ 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 총동창회의 2개이고 정 또는 무가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여행 연합 동아리, 총동창회, 축구 동호회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발화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대학교, 여행 연합 동아리의 2개이고 병의 발화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 대학원, 총동창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무의 발화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는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2개이고 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 대학교, 여행 연합 동아리, 축구 동호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을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대학교, 고시 스테디의 2개, 무가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지 않다.
- ⑤ 갑 또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여행 연합 동아리,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3개,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 회사, 총동창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95 정답: ④

- ㄱ. 자료에 적혀 있는 갑의 성취 지위는 '건축가'의 1개, 전체 성취 지위는 '건축가', '사업가'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다.
- ㄴ.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은 '건설사', '지방 자치 단체'의 2개, 비공식 조직은 '사내 자전거 소모임'의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2개 많다.
- ㄷ.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사내 자전거 소모임', '동호회'의 2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건설사', '지방 자치 단체', '사내 자전거 소모임', 'SNS', '동호회'의 5개로

후자는 전자보다 3개 많다.

오답 풀이

- ㄷ. 자료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1차 집단이 적혀 있지 않다.

096 정답: ④

A는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으므로 탈관료제, B는 탈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므로 관료제이다.

- ㄴ.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ㄹ.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오답 풀이

-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하지 않는다.
- ㄸ.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097 정답: ⑤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 ⑤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므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낮다.
- ②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지배적인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④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098 정답: ②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 ②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오답 풀이

- ① 관료제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지 않았다.
- ③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 ④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 ⑤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것은 관료제뿐이다.

099 정답: ②

A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은 탈관료제적이므로 A는 탈관료제이며, B는 의사결정이 상층부에 집중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중시하므로 관료제이다.

-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 ㄷ.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ㄴ.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 ㄹ.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100 정답: ②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 ㄷ.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구성원 간 역할 구분이 확실하다.

오답 풀이

- ㄴ.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ㄹ.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101 정답: ④

□□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탈관료제적인 환경 하에서 근무하는 을을 부러워하고, ◇◇ 회사에서 근무하는 을은 관료제적인 환경 하에서 근무하는 갑을 부러워한다. 따라서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 ㄴ.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ㄹ.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오답 풀이

- ㄱ.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 ㄷ.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경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102 정답: ④

○○ 회사에 재직 중이던 갑은 해당 회사의 관료제적인 특징에 염증이 생겨 □□ 회사로 이직하였으며, □□ 회사에 재직 중이던 을은 해당 회사의 탈관료제적인 특징에 염증이 생겨 ○○ 회사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 ㄴ.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ㄹ.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오답 풀이

-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 ㄷ.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낮다.

103 정답: ④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④ ㉠은 갑이 수행한 ○○ 기업의 사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 을이 수행한 □□ 기업의 사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강조되지 않는다.
- ②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 ③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하나, ㉡은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 ⑤ ㉠은 을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나, ㉡은 갑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4 정답: ⑤

질문 1은 관료제가, 질문 2와 질문 3은 탈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다. 이때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라면 A와 달리 B가 '예'로 답할 질문의 개수는 최소 2개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고 (가)에는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 ㄴ.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ㄷ. '업무 체계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가?'는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105 정답: ④

A를 선택한 사람은 '구성원이 가진 업무 재량권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하고, 여성은 B를 A보다 1.5배 선택했으므로 A를 선택한 남성은 60명, B를 선택한 남성은 40명이고 A를 선택한 여성은 40명, B를 선택한 여성은 60명이다.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B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이므로 30명의 남성과 여성은 부부가 모두 B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A를 선택한 남편 중 아내가 B를 선택한 사람은 30명, A를 선택한 아내 중 남편이 B를 선택한 사람은 10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B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인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남성/여성별로 탈관료제(A)를 택하거나 택하지 않은 양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남성 ○	남성 ×
여성 ○	30명	10명
여성 ×	30명	30명

또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남성/여성별로 관료제(B)를 택하거나 택하지 않은 양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남성 ○	남성 ×
여성 ○	30명	30명
여성 ×	10명	30명

- ㄱ.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관료제를 부부가 함께 선택한 경우는 30쌍이다.
- ㄴ.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관료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는 30명,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는 3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ㄷ.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한 탈관료제를 선택한 남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는 30명,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는 3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ㄹ.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탈관료제를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여성 수는 10명,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관료제를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남성 수는 10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106 정답: ①

'A는 B, C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참이므로 A는 낙인 이론이다. 그리고 'A, C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는 거짓이므로 B는 차별적 교제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①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오답 풀이
- ②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의 학습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④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⑤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107 정답: ②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에 '아니요'로 답하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므로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그리고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아니요'로 답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A는 낙인 이론,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② 낙인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과 달리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오답 풀이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⑤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뿐이다.

108 정답: ④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차별 교제 이론, 병은 낙인 이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①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②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뿐이다.

109 정답: ④

<1 모둠>의 사례는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2 모둠>의 사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3 모둠>의 사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낙인 이론, B는 차별적 교제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낙인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②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110 정답: ①

B가 차별적 교제 이론인 경우 을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 되어 을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B가 낙인 이론인 경우 을의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 되어 을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그리고 C가 낙인 이론인 경우, 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 되어 병이 1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C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A는 낙인 이론이다.

- ㄱ. 낙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과 달리 일탈의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마련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ㄷ.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모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 ㄹ. (가)에는 갑, 을, 병의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지 않게끔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두는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은 것이 되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11 정답: ③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일탈 행동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통해, 을의 일탈 행동은 차별 교제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B는 낙인 이론,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③ 차별 교제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오답 풀이

- ①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②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④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⑤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112 정답: ②

갑이 만든 사례는 차별 교제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을이 만든 사례는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병이 만든 사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고, 갑은 두 가지 일탈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으므로 A, B는 각각 차별 교제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을은 두 가지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었으므로 B, D는 모두 각각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A, C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고,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A는 차별 교제 이론, B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C는 낙인 이론, D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 ② 차별 교제 이론과 달리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오답 풀이

- ① 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고 B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D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므로 '두 가지 이론 모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

론이다.

- ⑥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113 정답: ④

문항 2에 대한 채점 결과는 2점이므로 옳게 연결한 이론이 B, C인 경우, 옳게 연결한 이론이 B, D인 경우, 옳게 연결한 이론이 C, D인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옳게 연결한 이론이 B, C인 경우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낙인 이론이고 D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될 수 없으므로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며, A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그리고 이때 문항 1에 대한 채점 결과가 0점인 것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게 연결한 이론이 B, D인 경우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C는 낙인 이론이 될 수 없으므로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며, A는 낙인 이론이다. 그러나 이때 문항 1에 대한 채점 결과가 0점인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옳게 연결한 이론이 C, D인 경우 C는 낙인 이론, D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될 수 없으므로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며, A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그러나 이때 문항 1에 대한 채점 결과가 0점인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A는 차별적 교제 이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낙인 이론, D는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낙인 이론은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의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시한다.

오답 풀이

- ① 문항 2에서 옳지 않게 연결한 이론은 제도적 수단의 제공을 일탈의 대책으로 보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다.
- ② 차별적 교제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의 원인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 ③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지 않는다.
- ⑥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114 정답: ①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교도소 수감 이전 일탈 행동은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을 통해, 교도소 수감 이후 일탈 행동은 차별적 교제 이론을 통해, 무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이후 을의 일탈 행동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차별적 교제 이론, D는 낙인 이론이다.

\*을의 사례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을의 일탈 행동은 낙인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없다.

- 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에서 비롯된다

고 본다.

오답 풀이

-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모두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보다 일탈 행동 자체를 중시한다.
- ③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④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하지 않는다.
- ⑤ 일탈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115 정답: ①

첫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을 갖는 일탈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두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을 갖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세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을 갖는 일탈 이론은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네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을 갖는 일탈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구분에 대한 갑의 서술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네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이 옳지 않은 서술일 경우, 갑은 2점을 획득했으므로 두 번째 구분과 세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은 옳은 서술이다. 이때 두 번째 구분과 세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을의 서술은 옳지 않은 서술이 된다. 이 경우 첫 번째 구분과 네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을의 서술은 옳은 서술이 되는데, 네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과 을의 서술은 일치하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네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은 옳은 서술이고,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이때 두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은 옳지 않은 서술이 되고, 갑은 2점을 획득했으므로 세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갑의 서술은 옳은 서술이 된다. 따라서 D는 낙인 이론이고, 세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을의 서술은 옳지 않은 서술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을의 서술 역시 옳지 않은 서술이 되므로 첫 번째 구분에 제시된 특징에 대한 을의 서술은 옳은 서술이 되고, 이에 따라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A는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 ①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차별적 교제 이론은 개인 간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오답 풀이

- ②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의 습득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⑤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지 않은 답’,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은 답’이므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16 정답: ①

첫 번째 사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두 번째 사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세 번째 사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때 두 번째 사례에 대한 점수는 0점이므로 B, C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A, 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A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D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점수는 0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그리고 B가 차별 교제 이론, C가 낙인 이론이라면 세 번째 사례에 대한 점수는 2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낙인 이론,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① 첫 번째 사례에서 옳지 않게 활용된 일탈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양상에 주목하는 낙인 이론이다.

오답 풀이

- ② 세 번째 사례에서 옳지 않게 활용된 일탈 이론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아노미에 주목하는 이론이 아닌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③ 낙인으로서의 일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일탈의 대책으로 강조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④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은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의 기술이 습득된다고 본다.
- ⑤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의 대책으로 강조하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117 정답: ①

마지막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틀림'인데, 해당 질문에 '예'로 답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뿐이다. 따라서 낙인 이론이 B~D 중 하나라면 해당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낙인 이론이다. 이때 첫 번째 질문에서 해당 질문에 A는 '예'로 답하는데, B, C 중 차별 교제 이론이 존재한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틀림'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D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때 B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① ㉠에 들어갈 것은 '맞음'이다.

오답 풀이

- ②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하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④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것은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이다.

118 정답: ②

갑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을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였다.

을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3점이고 을은 두 가지 일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였으나 을의 사례에 대한 학생의 응답에서 ○은 1개이므로 해당 응답이 옳지 않은 응답이라면 을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최대 2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해당 응답은 옳은 응답이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다. 또한 병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므로 A, C는 각각 낙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 B, D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때 A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C가 낙인 이론이라면 갑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3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낙인 이론, C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② 낙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답 풀이

- ①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지 않음',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음'으로 서로 다르다.
- ③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모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 ④ 일탈 집단과의 교류로 일탈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⑤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발생에 관심을 둔다.

119 정답: ③

을의 답변과 그가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변이 옳은 답변인 경우
2.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변이 옳은 답변인 경우
3.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변이 옳은 답변인 경우

1번 경우에서 각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요', '아니요', '예'가 되는데, 이 경우 갑이 4점, 병이 3점을 얻은 것에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경우에서 각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가 되는데, 이 경우 갑이 4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3번 경우에서 각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가 되는데, 이 경우 병이 3점을 얻은 데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경우이고, 각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요', '아니요', '예'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네 번째 질문에서 D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에서 B는 차별적 교제 이론, C는 낙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인 것을 알 수 있다.

③ 차별적 교제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이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이다.
- ②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④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모두 아노미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20 정답: ②

회사를 그만둔 직후 갑은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탈 이론을 잘못 적용한 설명은 ㉠이다. 동창회에 나간 이후 갑의 일탈 행동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D는 차별적 교제 이론,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을의 일탈 행동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체포된 후 을의 일탈 행동에는 낙인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A는 낙인 이론이다. 따라서 B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② 낙인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오답 풀이

- ① 일탈 이론을 잘못 적용한 설명은 ㉠이다.
-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⑤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121 정답: ①

각 질문별 '예'로 답변할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2. 낙인 이론
3. 머튼의 아노미 이론
4.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5.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때 세 가지의 이론이 '예'로 답변하는 질문은 4번 질문이 유일한데, ㉠에 대해서는 A~C가 모두 '예'로 답하므로 ㉠은 4번 질문이고 D는 낙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낙인 이론과 타 이론이 모두 '예'로 답변하는 질문은 1번 질문이 유일한데, ㉠에 대한 A와 낙인 이론의 답변은 모두 '예'이므로 ㉠은 1번 질문이고 A는 차별 교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에 대해서는 A~C가 모두 '아니요'로 답변하는데, A~D가

모두 '아니요'로 답변할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D, 즉 낙인 이론은 '예'로 답해야 한다. 따라서 ㉠은 2번 질문이다.

B, C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인데, 5번 질문에 대해서는 두 이론 모두 '예'로 답하므로 해당 질문은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번 질문은 ㉠이고, ㉠은 3번 질문이며, B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질문에 대한 A~D의 답변 결과를 완성하여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3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2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5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1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4번	예	예	예	아니요

① 음영 처리된 부분 중 '아니요'가 들어갈 칸의 수는 6개, '예'가 들어갈 칸의 수는 2개로 전자는 후자의 3배이다.

오답 풀이

- ② ㉠은 3번 질문이나, ㉠은 5번 질문이다.
- ③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중상층 계층보다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일탈 행동에 따른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122 정답: ②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 공유성이다.

- ㄱ. 공유성은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 ㄴ. 전체성은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ㄷ.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이다.
- ㄹ. 문화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이다.

123 정답: ④

‘1990년대 후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당시 패션이 사라지고 30년이 지나 새로운 패션이 유행하고 있음.’에 부각된 사례는 변동성이고, ‘세탁기의 발명은 가사 노동 방식, 여성의 사회 진출, 가옥 구조 등에 연쇄적 변화를 가지고 왔음.’에 부각된 사례는 전체성이다. 따라서 A는 변동성, B는 전체성, C는 공유성이고 (가)에는 공유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 ④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변동성보다 공유성으로 설명하기 적합하다.

오답 풀이

- ①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 주는 것은 공유성이다.
- ②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점점 풍부해짐을 보여 주는 것은 축적성이다.
- ③ 문화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보여 주는 것은 학습성이다.
- ⑤ ‘중세 시대에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던 기사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칼을 뽑지 않겠다는 의미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감’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24 정답: ③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다.

- ③ 공유성은 구성원 간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끔 유도한다.

오답 풀이

- 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다.
- ② 문화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 ④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짐에 따라 문화 요소들이 풍부해짐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다.
- ⑤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125 정답: ④

④ (가)에는 문화의 변동성,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고, (나)에는 문화의 변동성, 공유성,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전체성에 대한 진술인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②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③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⑤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진술이다.

126 정답: ③

③ ㉠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으로, 전체성은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은 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④ ㉠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으로, 이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 주는 문화의 축적성이 아니다.
- ⑤ ㉠은 문화의 학습성으로 인해 문화가 될 수 없다. 문화는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닌, 학습에 의해 습득한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7 정답: ④

④ ㉠, ㉡에는 모두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변동성이 아닌,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은 ㉡과 달리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⑤ ㉠에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는 축적성이 아닌,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128 정답: ②

② ㉠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물질문화이다.
- ③ ㉠과 ㉡에는 모두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④ ㉡에는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로서의 총체라는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으나, ㉠에는 부각되어 있지 않다.
- ⑤ ㉠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개별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

이 나타나지 않는다.

129 정답: ②

1번 사례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인데, 축적성은 4번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의 속성을 적합하게 연결하지 못한 두 가지 사례는 각각 1번, 4번이고, 2번, 3번, 5번 사례에는 부각된 문화의 속성을 적합하게 연결했다. 따라서 (가)에는 공유성이 부각된 사례가, (나)에는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야 하고, A는 전체성, B는 학습성, C는 변동성이다.

② '전동 자전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헬멧을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자전거의 보급은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의 유행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 향유하게 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학습성이다.
- ④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그 형태나 구성 요소,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변동성이다.
- ⑤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문화의 전체성이다.

130 정답: ②

(가)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 전체성이고, (나)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 전체성, 학습성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은 학습성이다.

② 문화의 학습성은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문화는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다.
- ③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 ④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다.
- ⑤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다.

131 정답: ④

다음 사례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은 문화의 전체성, 변동성이다.

ㄱ. 문화의 변동성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문화의 전체성은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ㄷ.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향유되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이다.

132 정답: ①

갑은 누구나 알게 된다는 점에서 C라고, 병은 이전에 비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E라고 생각했다는 교사의 발화에 따르면 C는 공유성, E는 변동성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을은 옳게 발표했으므로 D는 축적성임을, 갑이 발표한 사례에서 부각된 것이 A, 병이 발표한 사례에서 부각된 것이 B라는 교사의 발화에 따르면 A는 학습성, B는 전체성임을 알 수 있다.

- ① 학습성은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오답 풀이

- ②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다.
- ③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 ④ 문화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다.
- ⑤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짐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다.

133 정답: ④

<4 모듬>이 발표한 사례는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E가 부각되었으므로 E는 전체성,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A는 변동성임을 알 수 있다. D가 부각된 사례는 <2 모듬>이 발표했고, <2 모듬>이 발표한 사례는 학습성이 부각된 사례이므로 D는 학습성이다. 이때 B가 공유성, C가 축적성이라면 <1 모듬>과 <3 모듬> 둘 다 옳게 발표한 것이 되어 한 개의 모듬을 제외하면 모두 옳지 않게 발표했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B는 축적성, C는 공유성이다.

- ④ 공유성은 학습성과 달리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1 모듬>이다.
- ②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다.
- ③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학습성이다.
- ⑤ 문화의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134 정답: ①

<1 모듬>이 발표한 사례에는 공유성이, <2 모듬>이 발표한 사례에는 학습성이, <3 모듬>이 발표한 사례에는 변동성이, <4 모듬>이 발표한 사례에는 전체성이, <5 모듬>이 발표한 사례에는 축적성이 부각되어 있다.

<3 모듬>의 사례는 이전에는 MP3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함축하기에 C로도 설명이 가능하므로 C는 공유성이며, 이전과 달리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는 변동성이다. <4 모

듬)은 옳게 발표했으므로 D는 전체성이며, <1 모듬>과 <5 모듬>은 옳지 않게 발표했으므로 A는 축적성, E는 학습성이다.

①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며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변동성이 아닌 축적성이다.

오답 풀이

② 문화가 시간이 지나며 그 내용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 아닌 변동성이다.

③ <3 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학습성이 아닌 공유성이다.

④ <4 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유성이 아닌 전체성이다.

⑤ <5 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전체성이 아닌 학습성이다.

135 정답: ②

갑이 A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공유성, C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변동성, 을이 B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축적성, D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학습성, 병이 E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공유성, A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전체성, 정이 B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전체성, C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축적성이 부각된 사례이다.

이때 갑이 A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가 옳고 C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가 옳지 않은 경우 A는 공유성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병이 발표한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옳지 않은 사례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갑이 A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지 않고 C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은 것이므로 C는 변동성이다. 이때 정이 C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지 않으므로 B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다. 따라서 B는 전체성이고, 을이 B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지 않으므로 D가 부각된 것으로 발표한 사례는 옳아 D는 학습성이다. 그리고 A는 공유성이 아니므로 축적성, E는 공유성이다.

② 병이 옳지 않게 발표한 사례는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갑이 옳지 않게 발표한 사례는 변동성이 아닌 공유성이 부각된 사례이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은 변동성이다.

④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것은 학습성이다.

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공유성이다.

136 정답: ⑤

갑은 그의 답변에서 4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을 갑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옳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갑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으므로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갑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으므로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을과 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갑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으므로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오', '예', '아니오'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을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갑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으므로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병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갑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으므로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을이 3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옳지 않은 답변을 했고, 첫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가 된다. 따라서 A는 공유성, B는 학습성, C는 변동성, D는 전체성, E는 축적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 되어야 하므로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⑤ 포크 손가락 등 시간이 지나며 수저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전체성이 아닌 축적성의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②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것은 공유성의 사례이다.

③ 어린이가 수저를 사용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학습성의 사례이다.

④ 이전과는 달리 밥을 먹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변동성의 사례이다.

137 정답: ①

1번 사례에서는 공유성, 전체성, 변동성이 나타나고, 2번 사례에서는 변동성, 축적성이 나타나고, 3번 사례에서는 변동성만 나타난다. 여기서 1번 사례에서는 ○가 2개밖에 없으므로 × 중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틀린 표기이며, 2번 사례에서는 × 2개밖에 없으므로 ○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표기이다. 따라서 1번 사례, 2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4점이다.

이때 1번 사례, 2번 사례에서 얻은 점수가 3점 이하라면 채

점 결과가 13점이라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1번 사례, 2번 사례에서 얻은 점수는 4점이고, 3번 사례에서 얻은 점수는 5점이다. 이에 따라 E는 변동성임을 알 수 있다.

이때 1번 사례에서 E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지 않고, 해당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4점이므로 나머지에 대한 채점 결과는 모두 옳다. 따라서 B, D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축적성, 학습성 중 하나이다.

2번 사례에서 × 표기 두 개는 무조건 맞으므로 B, C는 각각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중 하나이고, 이에 따라 C는 학습성인 것을, A는 축적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번 사례에서 A, D에 대한 표기 중 하나는 틀려야 하는데, A에 대한 표기는 맞으므로 D에 대한 표기가 틀려야 한다. 따라서 D는 공유성, B는 전체성임을 알 수 있다.

ㄱ. 1번 사례에 대해 틀리게 표기한 속성은 변동성이고, 2번 사례에 대해 틀리게 표기한 속성은 공유성으로 전자와 후자는 다르다.

ㄴ.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 아닌 학습성이다.

오답 풀이

ㄷ.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 아닌 전체성이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다.

138 정답: ⑤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아니요’로 답변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뿐이다. 따라서 ㉠은 ‘아니요’, ㉡은 ‘예’이고,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예’로 답변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뿐이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오답 풀이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③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④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139 정답: ④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문화 상대주의, 병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④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 ②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지 않다.
- ③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문화 상대주의는 타 문화를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140 정답: ⑤

갑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을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병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와 다른 문화의 공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④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 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141 정답: ①

갑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을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병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② 문화 상대주의는 타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④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⑤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142 정답: ①

갑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을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병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

오답 풀이

- ②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④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 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143 정답: ①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의 질문으

로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의 질문으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①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는가?'의 질문으로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 ③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④ 국수주의로 인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⑤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이다.

144 정답: ③

- ㄷ.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중국의 중화사상을 예시로 들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A와 B의 응답은 '아니요'로 같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ㄹ.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의 질문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로 같다. 따라서 B,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고,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오답 풀이

- ㄱ. A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B, 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그리고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응답은 각각 '예', '아니요'로 다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ㄴ. B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A, 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그리고 A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상대주의인 경우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가?'의 질문에 대한 A와 B의 응답은 서로 다르고 B와 C의 응답은 서로 같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45 정답: ①

제시한 특징과 비판점이 모두 한 가지 문화 이해 태도의 것인 사람은 갑이 유일하다. 따라서 모두 적절히 제시한 사람은 갑이고, A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B가 문화 상대주의, C가 문화 상대주의인 경우 을은 비판점을 적절하지 않게, 병은 특징을 적절하지 않게 제시한 것이 되어 한 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게 제시했다는 점에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고 비판점을 적절하지 않게 제시한 사람은 병, 모두 적절하지 않게 제시한 사람은 을이다.

- ① ㉠은 병이다.

오답 풀이

-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다른 문화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다른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④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⑤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146 정답: ④

- ④ '타문화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인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응답은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갈 경우 A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갈 경우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오답 풀이

-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이다. 따라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가?'의 질문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어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이다. 따라서 B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C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응답은 '예',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간다면 C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47 정답: ⑤

- ⑤ B가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가)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가?'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

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모두 '아니오'이고 (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 우열을 가린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아니오'로 답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예'로 답한다. 따라서 A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예'로 답하고,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오'로 답한다. 따라서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A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예'로 답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오'로 답한다. 따라서 A, B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A가 문화 상대주의이고 (가)에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가?'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답변은 '예'이고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답변은 '아니오'이므로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148 정답: ①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의 2번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이다. 따라서 ㉠의 1번 문장은 옳은 문장이고,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이때 ㉠의 2번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의 1번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어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가 된다. 그리고 ㉠의 1번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 ①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한다.'는 옳은 문장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과 ㉠에서 옳지 않은 문장의 번호는 모두 2번으로 같다.
- ③ 타 문화를 일반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④ 중국의 중화사상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⑤ 다른 사회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이다.

149 정답: ②

갑의 첫 번째 서술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두 번째 서술은 자문화 중심주의, 세 번째 서술은 문화 상대주의

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때 A가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상대주의일 경우 B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갑이 획득 가능한 최대 점수는 1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문화 상대주의이고, B,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을의 첫 번째 서술은 자문화 중심주의, 두 번째 서술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때 B가 문화 상대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을이 얻은 점수는 최소 2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고 (가)에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병의 첫 번째 서술은 문화 상대주의, 두 번째 서술은 문화 상대주의, 세 번째 서술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그리고 C는 문화 상대주의, A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에 들어갈 것은 '1점'이다.

- ㉠.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 ㉡.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오답 풀이

- ㉠. ㉠에 들어갈 것은 '1점'이다.
- ㉡. '자기 문화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한다.'는 문화 상대주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50 정답: ⑤

'우리나라에서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하위문화와 반문화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 C는 각각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이며, B는 주류 문화이다.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를 구분할 수 있으나, 주류 문화와 반문화를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C는 반문화, A는 하위문화이다.

- ⑤ 하위문화, 반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한 사회 내 특정 집단만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오답 풀이

- ① 반문화와 하위문화는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 ②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지만,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한 사회에서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를 공유한다.
- ④ 주류 문화는 모든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151 정답: ②

○○ 의복은 T 시기에는 반문화, T+1 시기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T+2 시기에는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A는 하위문화, B는 반문화, C는 주류 문화이다.

- ②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나,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들어갈 것은 'A와 B 모두'이다.
- ③ 하위문화와 주류 문화는 모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간 동질감 형성에 기여한다.
- ④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이다.
- ⑤ 주류 문화는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가 아니다.

152 정답: ③

- ◇◇ 문화는 t 시기 A, C에 모두 해당하나 t+1 시기에는 A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C는 반문화, A는 하위문화임을 알 수 있고, B는 주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 ③ t 시기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갑국에서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하위문화와 주류 문화 모두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동질감을 제공한다.
- ② 반문화와 주류 문화는 모두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t+1 시기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갑국에서 하위문화에 해당하나,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 문화뿐이다.
- ⑤ 주어진 문화 중 갑국에서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하위문화인 문화는 ◇◇ 문화가 존재한다.

153 정답: ①

A~C는 모두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동질감을 제공하므로 정은 옳지 않게 발표한 것이 된다. 그리고 갑이 옳게 발표한 것이 된다면 A는 반문화, B는 하위문화가 되는데, 이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옳지 않게 발표한 것이 되어 두 명의 학생이 옳지 않게 발표한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옳지 않게 발표한 것은 갑과 정이고, A는 주류 문화, B는 반문화, C는 하위문화이다.

- ① ㉠은 갑, 정이다.

오답 풀이

- ② 주류 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는 하위문화이자 반문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를 공유한다.
- ⑤ 한 사회 내 특정 집단만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하위문화, 반문화이다.

154 정답: ④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는 반문화이므로 B는 반문화이며,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이므로 A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C는 주류 문화이다. ㄱ. 첫 번째 질문에 대한 B의 응답은 '아니요', C의 응답은 '예'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A의 응답은 '아니요', C의 응답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음영 처리된 부분 중 '예'가

들어갈 칸의 수는 '아니요'가 들어갈 칸의 수보다 적다.

- ㄴ.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사회 변동에 따라 주류 문화로 변동될 수 있다.
- ㄷ. ㉠에 들어갈 응답과 ㉡, ㉢에 들어갈 응답이 서로 다르다면, 모두가 '예'로 응답할 질문인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 ㄹ. '한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는 모두가 '예'로 응답하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 ㉠에 들어갈 응답과 ㉢에 들어갈 응답은 '예'로 같다.

155 정답: ②

t 시기에 ㉠은 B와 C 모두에 해당하고, ㉡은 B에만 해당하므로 B는 하위문화, C는 반문화이다. 따라서 A는 주류 문화이다.

- ② t+1 시기에 ㉠은 갑국의 반문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t 시기에 ㉠은 갑국의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 ③ t+1 시기와 달리 t 시기에서 ㉡은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④ t 시기 주류 문화에 해당하면서 t+1 시기 하위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t 시기와 t+1 시기 모두에 갑국에서 주류 문화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156 정답: ⑤

시기 1에 문화 1은 A와 C에 모두 해당하고, 문화 3은 C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A는 반문화, C는 하위문화임을 알 수 있으며, B는 주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 ⑤ 시기 1과 달리 시기 2에 문화 2는 반문화이므로 갑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이다.

오답 풀이

- ①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나,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가 아니다.
- ③ 문화 1~문화 3 중 시기 1과 시기 2 모두에서 갑국의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시기 1과 시기 2 모두에서 문화 1은 갑국 전체 구성원 간 문화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주류 문화가 아니다.

157 정답: ④

(가) 문화는 1980년대에는 반문화에, 2000년대 이후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 문화는 1950년대에는 주류 문화에, 1970년대 이후에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반문화, A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C는 주류 문화이고 ㉠에 들어갈 것은 'B'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는 문화는 주류 문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것은 'B'이다.
- ②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에 비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 ③ 반문화와 주류 문화는 모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⑤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 문화는 반문화이다.

158 정답: ②

ㄴ. 갑국의 '오토바이 문화'는 1950년대 후반에 반문화에 속했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므로 1950년대 후반에 하위문화였다.

오답 풀이

- ㄱ. 갑국의 '오토바이 문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갑국의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향유되었던 하위문화이다.
- ㄷ. 갑국의 '오토바이 문화'는 반문화로 규정됨에 따라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반문화로 규정된 것이다.

159 정답: ③

(가) 시기 문화 1은 B와 C에 모두 해당하고, 문화 3은 C에만 해당하므로 B는 반문화, C는 하위문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주류 문화이다.

- ③ (가) 시기와 (나) 시기 모두에서 갑국의 반문화에 해당하는 문화 1이 존재한다.

오답 풀이

- ①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는 모두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 ② 반문화는 주류 문화보다 사회 전체의 문화 동질성을 높이는 데 더 작게 기여한다.
- ④ 우리 사회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문화는 (가) 시기 문화 3, 즉 하위문화의 사례가 아닌 주류 문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 ⑤ 조직폭력배의 범죄 문화는 (가) 시기와 (나) 시기 문화 2, 즉 주류 문화의 사례가 아닌 반문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160 정답: ⑤

⑤ 갑국에서는 식사 중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전통적 문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는 것에서 해당 문화가 주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되었다는 것에서 해당 문화는 주류 문화로서의 성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주류 문화가 그 성격을 잃는 양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강압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로 인해 일시적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양상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은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하위문화에 해당하나, 이것이 해당 문화가 처음부터 주류 문화에 대한 대

항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간 변동 속도 차와는 관련이 없는 결과이다.
- ④ ㉠은 하위문화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양상에 해당하나, 해당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61 정답: ①

2번에서 '전체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A~C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따라서 1, 3번 서술은 옳은 서술이고, C는 주류 문화이다.

이때 A가 하위문화, B가 반문화라면 1번에 대한 점수는 0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반문화, B는 하위문화이다. 그리고 3번에서 옳은 서술은 1, 3번이므로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ㄱ.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 ㄴ. (가)에는 옳은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한다.'는 하위문화가 아닌 주류 문화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ㄷ. 모든 주류 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반문화와 하위문화는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162 정답: ①

B가 반문화인 경우,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므로 A는 주류 문화, C는 하위문화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갑국 내 존재하는 문화가 5개라는 데 모순이다. 또한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므로 C는 반문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는 반문화이고, B와 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문화 1~문화 3, 문화 3~문화 5 각각에서 주류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문화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문화 1~문화 5 중 반문화는 1개이므로 문화 3은 반문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 2~문화 4 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데, 문화 1~문화 5 중 반문화는 1개이므로 문화 2, 문화 4는 모두 주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 1~문화 3, 문화 3~문화 5 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모두 존재하므로 문화 1, 문화 5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주류 문화, C는 하위문화이다.

- ① 문화 1과 문화 3은 모두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문화 2와 문화 4는 모두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 ③ 문화 1~문화 5 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개수는 2개, 주류 문화의 개수는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 ④ A~C는 모두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 ⑤ A~C 중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는 것은 반문화인 A이다.

163 정답: ③

문화 2, 문화 5는 A~C 지역이 모두 향유하는 문화이므로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이때 B 지역은 C 지역과 달리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향유하는데, 이는 C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는 모두 반문화인 것을 의미하므로 문화 3, 문화 4는 반문화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 지역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향유하므로 문화 6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인 것을 알 수 있으며,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반문화의 수의 2배라는 것에서 A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화 3에 해당하므로 A 지역이 향유하는 문화 1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③ B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2개, C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1은 문화 4와 달리 반문화가 아니다.
- ② 문화 3과 문화 6은 모두 하위문화이다.
- ④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2개, B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C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2개, A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64 정답: ①

A 권역에서 반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00명이고, 이는 ○○ 문화만 반문화인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A 권역에서 반문화는 ○○ 문화뿐이다. 그리고 주류 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00명이고, 이는 □□ 문화, ▽▽ 문화만 주류 문화인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 문화, ◇◇ 문화, ☆☆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① A 권역에서 하위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00명+500명+200명+200명=1,500명이다. 따라서 ①에 들어갈 값은 '1,500'이다.

오답 풀이

- ② A 권역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는 500명+200명+200명=900명이다.
- ③ 갑국에서 반문화는 ○○ 문화가 유일하다.
- ④ 갑국에서 △△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하며, ○○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 ⑤ 갑국에서 □□ 문화와 ▽▽ 문화는 모두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165 정답: ②

② 그림에서는 대중문화가 세대 간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령에 따른 사회 집단 간 단절을 유발한다.'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③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④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⑤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166 정답: ②

② 다음 글에서 필자는 대중문화가 과거에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다루어, 해당 주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 사회 대중문화의 순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를 통한 인식 확대'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는 '창의 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음 글에서는 '자기 표현 및 정체성 탐색을 위한 도구 제공'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다음 글에서는 '교육적 요소의 전달을 통한 사회화 기능 수행'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다음 글에서는 성차별 등 주제를 자연스럽게 다룬다는 내용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의 마련'의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정답: ③

③ 다음 글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 수용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나 맥락이 무시되고, 해당 문화가 오해되거나 곡해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양상, 그리고 외국식 표현과 생활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양상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이 왜곡될 수 있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는 개별 문화 간 문화적 장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다음 글에서는 문화 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력 약화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다음 글에서는 우수한 타 문화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이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 ⑤ 다음 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68 정답: ③

③ 다음 사례에서는 드라마들이 비슷한 서사 구조를 반복하고, 시청자들은 이런 전개 속에서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양상이 나타남과 함께, 이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언급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구한다'

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사례에서는 대중문화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다음 사례에서는 대중문화의 소비자들은 때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다음 사례에서는 대중문화의 유행이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며, 짧은 주기로 트렌드가 순환된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다음 사례에서는 이러한 표준화가 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대중문화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제작된다는 언급,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러한 대중문화를 소비함에 따라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관심을 증시한다는 언급이 나타나나, 대중문화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시한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169 정답: ③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예'로 답할 요인은 발명, 발견이다. 따라서 A, C는 각각 발명, 발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드는 요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예'로 답할 요인은 발명, 자극 전파이다. 따라서 A는 발명, B는 직접 전파이고 C는 발견, D는 자극 전파이다.

③ 자연에서 석탄을 찾아낸 것은 직접 전파가 아닌 발견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아니오', ㉡은 '예'이다.
- ② 전구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발명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SNS를 통해 한류가 외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자극 전파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외국의 종교 교리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은 자극 전파의 사례에 해당한다.

170 정답: ②

(가)는 문화 동화, (나)는 문화 융합, (다)는 문화 병존이다.

② 문화 융합에서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동화는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③ 문화 병존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변형되어 정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강제성을 띤 외부 사회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화 동화이다.
- ⑤ 그 결과로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문화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문화 융합이다.

171 정답: ③

ㄴ. 갑국은 을국의 건축 기술을 받아들인 후 해당 국가 내 건

축물의 양식이 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병국은 자국 내 파견을 나와 있던 정국 의사들이 의료 기술을 가졌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ㄷ. 병국은 정국의 의사들이 가진 의료 기술에 영감을 받아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갑국과 달리 자국 전파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갑국은 을국과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을국의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국 또한 자국 내 파견을 나와 있던 정국의 의사들이 가진 의료 기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ㄹ. 병국과 갑국은 모두 문화 동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172 정답: ③

A의 첫 번째 사례는 A~C 중 무엇이의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 제시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때 B가 문화 동화가 아닌 경우 전체 중 최소 3개의 사례를 잘못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문화 동화이다. 그리고 A가 문화 융합, C가 문화 병존인 경우 역시 전체 중 2개의 사례를 잘못 제시했다는 것에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문화 병존, C는 문화 융합이다.

③ 문화 동화는 문화 융합과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쉽다.

오답 풀이

- ① ㉠은 각각 A와 C의 사례 중 존재한다.
- ②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그 결과로 가지는 것은 문화 동화이다.
- ④ 전통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문화 병존이다.
- ⑤ 문화 동화 역시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가 될 수 있다.

173 정답: ⑤

⑤ (가)에서는 문화 접변으로 인해 갑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난 양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에서는 문화 접변으로 인해 병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난 양상이 존재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갑국의 도자기와 을국의 대나무 식기의 장점이 합쳐진 새로운 식기가 개발되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 해당 식기가 갑국의 도자기를 완전히 대체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결과로 가져오지 않으므로 갑국의 도자기가 가진 정체성은 상실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에서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간접 전파가 나타나나, 이로

인해 문화 융합은 나타나지 않았다.

174 정답: ④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의 질문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발명, 발견이므로 B, D는 각각 발명, 발견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동의 결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기는가?'의 질문에 '예'로 답변하는 것은 발명, 자극 전파이므로 D는 발명,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 따라서 D는 발명, B는 발견이고 C는 직접 전파, A는 자극 전파이다. 그리고 ㉠은 '예', ㉡은 '아니오'이다.

㉠. ㉠은 '예', ㉡은 '아니오'이다.

㉡. 갑국의 1차 문화 변동 요인은 자극 전파이며, 그 결과로 c는 새롭게 나타난 문화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 서로간 외의 문화 변동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므로 c는 b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요소에 해당한다.

㉢.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요소 b가 사라졌고, 을국의 2차 문화 변동 요인은 직접 전파이므로 을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반면 갑국의 2차 문화 변동 요인은 발견이고 갑국에서는 변동 결과 사라진 문화 요소가 없으므로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1차 문화 변동 결과 갑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그러나 을국의 1차 문화 변동 요인은 내재적 요인인 발명이므로 을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나지 않았다.

175 정답: ④

④ A국에서는 C국의 물통이 수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므로 문화 접변이 나타났으며, C국에서는 B국과의 교역을 통해 접이식 실리콘 물통과 자외선 살균 기술을 접했으므로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반면 B국에서는 C국의 물통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곧 사장되었으므로 문화 전파는 나타났지만, 그로 인해 접변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것은 아니다.

② B국에서는 C국의 물통이 수출되었으므로 직접 전파가 나타났으나, 이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곧 사장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③ C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해 B국의 접이식 실리콘 물통과 자외선 살균 기술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결합한 자외선 살균 물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 문화 요소와 C국의 문화 요소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외부 문화 요소 2개가 합쳐진 것이므로 문화 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B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국에서는 교역을 통해 들어온 C국의 자외선 살균 물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므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176 정답: ③

③ (가)에서는 갑국 상인들에 의해 연고가 을국에 수출된 양

상이 나타나므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반면 (나)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을국의 약사들이 시장에 유통되던 갑국의 연고를 건조한 날씨로 갈라지는 손발의 보습제로 개량한 것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발명이 아니다.

② (나)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 이것이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한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는 정국의 한 디자이너가 만든 액세서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으므로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그러나 (가)에서도 갑국 상인들에 의해 을국에 수출된 연고가 시장에 유통되었으므로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⑤ (나)에서는 정국의 한 디자이너가 병국의 스카프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액세서리를 만들었으므로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가)에서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177 정답: ①

① A국에서는 소형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에서, C국에서는 손잡이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에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반면 B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B국과 A국에서는 모두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A국에서 소형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국에 알려진 것은 정수기 자체가 전파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A, B국에서는 C국의 정수기가 수출되었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A, B국에서는 C국의 정수기가 수출되어 널리 활용되었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국에서는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문화 공존 역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B국에서는 자극 전파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개발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하지만 A, C국에서도 발명이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개발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178 정답: ①

① A가 을국의 주류를 갑국에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갑국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류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서 갑국에서 직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병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을국에서 문화 접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 것은

맞으나, 해당 문화 접변이 강제적 문화 접변인 것은 아니다.

- ③ 을국에서는 A의 발효 균주와 제조법이 을국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A가 새로운 과실주를 개발한 것은 발명에 해당하므로 이는 문화 접변의 결과물인 문화 동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을국에서는 발효 균주라는 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으나, 갑국에서는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을국에서는 발효 균주와 제조법이 공장식 주류 생산 체계와 결합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179 정답: ①

- ① A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B국에서는 A국의 시계가 자국의 문화적 정서와 융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었으므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A국의 한 장인이 '자국'의 방식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결합하여 손목시계를 만든 것은 문화 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A국과 C국에서는 모두 한 B국 유통사가 해당 시계를 입수해 A국과 C국에 수출하였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국에 진출해 있던 B국의 한 사업가가 A국의 시계를 자국의 본사에 보냈다는 것에서 B국에서도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③ A국과 C국에서는 B국의 시계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확산해 기존 전자시계의 지위를 위협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국에서도 해당 국가의 한 사업가가 A국의 시계를 자국의 본사에 보내 시장 내 유통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A국의 손목시계에 포함된 문화 요소는 B국의 문화적 정서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변형된 시계에 그대로 남아 있고, 해당 시계는 C국에 수출되었으므로 A국의 문화 요소는 C국에 전파되었다.
- ⑤ A~C국에서는 모두 자국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B국 유통사가 마케팅 아이디어를 얻어 해당 시계를 입수해 A국과 C국에 수출한 것은 자국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0 정답: ②

모든 사례에 대해 문화 변동의 요인을 옳지 않게 연결했는데, A가 발명, B가 간접 전파인 경우 A에 대해 문화 변동의 요인을 옳게 연결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간접 전파, B는 발명이다. 같은 이유로 (가)에는 자국 전파가 나타난 사례, (나)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 ㄱ. 간접 전파는 발명과 달리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 ㄴ. '타국의 전통 음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음료를 만든 경우'는 자국 전파가 나타난 사례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ㄴ. '목화솜을 찾아낸 것'은 발명이 아닌 발견의 사례이다.
- ㄷ. '난민으로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즐기는 경우'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 사례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181 정답: ②

- ② B국에서는 A국의 EDM을 자국의 전통 악기 리듬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B국에서는 A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밈이 B국으로 확산되어 EDM이 유행하였다는 것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국에서는 B국의 댄서들이 활용한 음악이 해당 국가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EDM이 유행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국에서도 B국의 댄서들이 활용한 음악이 해당 국가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국의 음악'이 B국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A~C국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B국의 음악이 급속도로 C국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은 C국 내에서 자국의 문화가 향유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므로 문화 동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A국과 C국에서는 B국의 댄서들이 A국과 C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진행하였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182 정답: ①

- ① (가)에서는 갑국의 천문학 지식이 을국 학자들이 자국에 맞는 역법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되었다는 것에서 자국 전파가 나타난다. 반면 (나)에서는 자국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는 정국이 병국을 식민 지배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는 정국의 악기, 의복이 병국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인지, 또는 병국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을국의 철학 사상이 갑국의 전통 사상과 융합되었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도 정국의 악기가 병국의 전통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연주 방식이 탄생했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병국 사람들이 자국의 의복을 버리고 정국 사

람들의 의복만을 입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나다. 그러나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에서는 서적을 통해 수입된 갑국의 학파를 주류 철학 사상으로 받아들이었다는 데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

183 정답: ②

- ② C국의 한 기획사가 A, B국에서 자국 가수들의 무대를 선보였고, A국과 B국 모두에서 이들이 선보인 음악은 큰 인기를 얻었으므로 A, B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반면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A~C국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국의 한 예술가가 전자 음악을 개발해 음원 시장에 유통하면서 A국의 전통 음악이 향유되지 않게 된 것은 문화 접변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문화 접변의 결과인 문화 동화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A국에서는 인터넷 영상을 통해 B국의 전자 음악이 전해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끌었으므로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으나, B국과 C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A국과 B국에서 선보인 C국 가수들의 공연 영상이 SNS를 통해 C국 내에 확산한 것, 또한 B국에서 A국의 한 장인이 공연에서 선보였던 콘텐츠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인기를 끈 것은 이미 해당 국가 내에 존재했던 문화 요소가 매체를 통해 재공유된 것이므로 간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C국의 예술가들은 활발한 음악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C국에서는 문화의 내재적 변동인 발명이 나타났다. 그러나 A국에서도 한 예술가가 전자 음악을 개발해 음원 시장에 유통했으므로 문화의 내재적 변동인 발명이 나타났다.
- ⑤ A~C국에서는 모두 자국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A국에서 자연의 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전통 음악이 나타난 것, 그리고 C국의 예술가들이 공연 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활발한 음악 창작 활동을 진행한 것은 타 문화 체계의 요소에서 아이디어 또는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자국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4 정답: ⑤

- ⑤ 의복 문화에서는 갑국과 을국의 의복이 혼합된 새로운 의복이 만들어 판매된 문화 융합이 발생한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음식 문화에서는 문화 융합이 발생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의복 문화에 있어 갑국에는 을국의 문화가 전파되었다. 하지만 병국 의류 디자이너들은 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입국한 뒤에 실패라는 결과를 손에 안고 귀국하였으므로 병국의 문화는 전파되지 않았다.
- ② 음악 문화에 있어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 ③ 음식 문화에 있어 병국의 요리사들은 갑국의 셰프 경진대회 프로그램에 등장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국 내에는 이미 같은 음식을 판매하던 갑국 출신 요리사들이 존재했기에 해당 사실로 인해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 ④ 음악 문화에서 을국의 한 작곡가는 자국의 전통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하지만 이는 타 문화 체계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자국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5 정답: ①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 ㄱ.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 ㄴ.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ㄹ.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186 정답: ④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ㄴ. 갈등론은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ㄹ.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나 아니라 가정 배경에 비례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ㄱ.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ㄷ.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187 정답: ①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 ㄱ.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 ㄴ. 갈등론은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재생산의 수단으로 본다.

오답 풀이

- ㄷ. 균등 분배가 인재의 배치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ㄹ.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188 정답: ①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 ㄱ. 갈등론은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 ㄴ.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형상으로 본다.

오답 풀이

- ㄷ.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이 성취동기 유발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189 정답: 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갈등론, 을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 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오답 풀이
- ②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③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④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 정도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⑤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뿐이다.

190 정답: ②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 ㄱ.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 ㄷ.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본다.

오답 풀이

- ㄴ.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것은 갈등론이다.
- ㄹ.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191 정답: ③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 차이를 부정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기능론은 '아니요', 갈등론은 '예'로 답한다.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이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해 기능론은 '아니요', 갈등론은 '예'로 답한다. 따라서 (가)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예'가 되어야 하고, ㉠은 '0개' 또는 '1개'이다.

- ㄱ.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하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한 갈등론의 응답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1개'이다.

오답 풀이

- ㄷ. ㉠에 '0개'가 들어간다면 (가)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아니요'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92 정답: ④

갑~병국 중 두 국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므로 B는 중층이며,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을국이 병국보다 크므로 A는 하층, C는 상층이다.

- ④ 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

라미드형으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 ① 병국의 상층 비율은 30%, 을국의 상층 비율은 30%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②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중층 비율 대비 하층 비율의 비는 갑국이 5/4, 을국이 1/6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⑥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각 국가의 계층 구조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또는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193 정답: ④

갑국의 t년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므로 A는 중층, B는 하층, C는 상층인 것을 알 수 있다.

- ㄴ. t+40년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t년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므로 t+40년의 계층 구조는 t년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 ㄹ. 중층 인구 대비 상층 인구의 비는 t년이 전체 인구의 30%/전체 인구의 20%=3/2이고, t+20년이 전체 인구의 10%/전체 인구의 40%=1/4로 전자는 후자의 6배이다.

오답 풀이

- ㄱ.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각 연도 간 전체 인구의 관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t년의 하층 인구가 t+40년의 중층 인구와 동일하지 여부도 알 수 없다.
- ㄷ.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각 연도의 계층 구조가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또는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알 수 없다.

194 정답: ③

A에서 C로의 이동과 C에서 B로의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므로 A는 상층, B는 하층, C는 중층이다. 이에 따라 갑국의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상층	10%	30%	20%
중층	40%	20%	60%
하층	50%	50%	20%

- ③ t년은 t+10년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하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 t+20년 중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로 전자는 후자의 2.5배가 아니다.
- ② t+20년 상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 t+10년 중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t+10년은 t+20년과 달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아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 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특정 연도의 계층 구조가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또는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알 수 없다.

195 정답: ④

을의 부모 계층과 비교한 을의 최초 계층 위치는 낮다. 따라서 을의 최초 계층 위치는 하층 또는 중층이다. 그리고 병의 최초 계층과 비교한 병의 현재 계층 위치는 낮다. 따라서 병의 최초 계층 위치는 상층 또는 중층이다. 그리고 을과 병의 최초 계층 위치는 같으므로 해당 위치는 중층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정의 부모 계층, 최초 계층, 현재 계층 위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부모 계층	하층	상층	중층	상층
최초 계층	중층	중층	중층	중층
현재 계층	상층	중층	하층	하층

- ㄱ. 갑의 부모 계층 위치와 정의 현재 계층 위치는 모두 하층으로 같다.

- ㄴ. 을의 최초 계층 위치는 중층, 갑의 현재 계층 위치는 상층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다.

오답 풀이

- ㄷ. 병의 부모 계층 위치는 중층, 정의 최초 계층 위치는 중층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지 않다.

196 정답: ④

-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면, A는 중층, B는 상층, C는 하층이다. 따라서 갑국의 중층 비율과 병국의 상층 비율은 모두 10%로 같다.

오답 풀이

- ① A가 상층이고 C가 하층이라면 B는 중층이다. 이때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 ② B가 중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A는 하층이다. 이때 병국의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은 계층 구조가 아니므로 모래시계형이 아니다.
- ③ 갑국의 계층 구조라 피라미드형이라면, A는 상층, C는 중층, B는 하층이다. 이때 을국의 중층 비율은 50%, 병국의 상층 비율은 3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C는 중층이다. 이때 을국은 상~하층 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갑국은 상~하층 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지 않다.

197 정답: ⑤

갑국 t년의 상층 인구는 중층 인구의 3배, 하층 인구의 0.5배이므로 t년의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이다.

- ⑤ A 시기에 상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중층 인구 비율의 비는 증가하므로 중층 인구 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전체 인구는 증가하므로 중층 인구 수는 증가할 것이다. 반면 B 시기에 상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중층 인구 비율의 비는 변화가 없으므로 중층 인구 비율은 감소할 것이며, 전체 인구는

감소하므로 중층 인구 수는 감소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A 시기에 상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며,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중층 인구 비율의 비는 증가하므로 중층 인구 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하층 인구 비율이 감소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하층 인구 수가 감소할 것인지 역시 알 수 없다.
- ② B 시기에 상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며,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중층 인구 비율의 비는 변화가 없으므로 하층 인구 비율과 중층 인구 비율은 모두 감소할 것이다.
- ③ (반례) t+30년의 상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중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5%, 하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5%인 경우 t+30년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나, t+30년의 하층 인구 비율은 t년의 상층 인구 비율보다 높다.
- ④ (반례) t+30년의 상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 중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6%, 하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이고 t+50년의 상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중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하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인 경우 t+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나, t+50년의 하층 인구 비율은 t년의 하층 인구 비율보다 낮다.

198 정답: ③

갑국에서 세대 간 대물림을 한 중층 인구는 을국에서 세대 간 대물림을 한 하층 인구와 동일하므로 A는 중층, B는 하층, C는 상층이다. 이에 따라 ■ 한 개를 한 명으로 가정하여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갑국>

구분		부모 세대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	상층	4명	4명	2명
	중층	3명	5명	2명
	하층	1명	4명	3명

<을국>

구분		부모 세대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	상층	2명	3명	1명
	중층	3명	6명	4명
	하층	1명	2명	5명

- ③ 부모 세대 하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인구는 을국이 5명, 갑국이 4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다.
- ②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갑국이 10명, 을국이 13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부모 세대 상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인구는 갑국이 4명, 을국이 4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⑥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인구는 갑국이 8명, 을국이 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99 정답: ④

최초 계층이 A인 사람은 최소 15명, 최초 계층이 B인 사람은 최소 35명, 최초 계층이 C인 사람은 최소 25명이다. 그리고 최초 계층이 상층인 사람은 20명, 중층인 사람은 30명, 하층인 사람은 50명이므로 B, C는 상층이 될 수 없고, B는 중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는 상층, B는 하층, C는 중층이다. 또한 최초 계층이 상층이고 현재 하층인 인구는 5명, 최초 계층이 상층이고 현재 중층인 인구는 10명, 최초 계층이 하층이고 현재 상층인 인구는 15명, 최초 계층이 하층이고 현재 중층인 인구는 20명, 최초 계층이 중층이고 현재 상층인 인구는 10명, 최초 계층이 중층이고 현재 하층인 인구는 15명이다. 이를 고려해 갑국 국민 100명의 최초 및 현재 계층 구성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명)

현재 \ 최초	최초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15
중층		10		20	
하층		5	25		
전체		20	30	50	100

이에 따라 최초 계층이 상층이고 현재 상층인 인구는 5명, 최초 계층이 중층이고 현재 중층인 인구는 5명, 최초 계층이 하층이고 현재 하층인 인구는 15명임을 알 수 있고, 현재 계층이 상층인 인구는 30명, 현재 계층이 중층인 인구는 35명, 현재 계층이 하층인 인구는 35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국민 100명의 최초 계층과 현재 계층 및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명)

현재 \ 최초	최초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10	15
중층		10	5	20	35
하층		5	25	15	35
전체		20	30	50	100

- ④ 세대 내 이동을 하지 않은 현재 하층인 인구는 15명,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30년 전 상층인 인구는 1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30년 전 하층인 인구는 50명, 현재 중층인 인구는 3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30년 전 상층인 인구는 20명, 현재 하층인 인구는 3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현재 중층인 인구는 20명,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현재 하층인 인구는 3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30년 전 하층인 인구는 35명, 세대 내 이동을 하지 않은 30년 전 중층인 인구는 5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5배가 아니다.

200 정답: ①

세대 간 이동 거리가 2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계층은 A가 유일하다. 따라서 A는 중층이고, B, C는 각각 상층, 하층 중 하나이다. 이때 B가 상층, C가 하층이라면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구 및 계층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5%	10%	5%	30%
중층	0%	10%	30%	40%
하층	10%	5%	15%	30%
전체	25%	25%	50%	100%

이때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하층, C는 상층이고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구 및 계층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5%	5%	10%	30%
중층	5%	10%	25%	40%
하층	5%	10%	15%	30%
전체	25%	25%	50%	100%

-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25%,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25%로 전자는 후자와 같다.  
오답 풀이
-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5%,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5%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부모 세대의 상층 인구 비율과 중층 인구 비율은 같으므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40%,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 부모 세대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이 60%, 중층이 40%, 하층이 30%로 상~하층 중 하층이 가장 낮다.

201 정답: ①

부모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에서 (A - B)의 비율에서 (B - C)의 비율을 뺀다면  $A - 2B + C = 10\%$ 가 된다. 이때  $A + B + C = 100\%$ 이므로  $3B = 90\%$ ,  $B = 30\%$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각 비율에 대입하면 A는 50%, C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에서 (A - B)의 비율에서 (B - C)의 비율을 뺀다면  $A - 2B + C = -20\%$ 가 된다. 이때  $A + B + C = 100\%$ 이므로  $3B = 120\%$ ,  $B = 40\%$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각 비율에 대입하면 A는 30%, C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 현황에서 A는 상승 이동을 한 인구가 없으므로 하층, C는 하강 이동을 한 인구가 없

으므로 상층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중층이고,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별 인구 비율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30%
중층				40%
하층				30%
전체	20%	30%	50%	100%

자녀 세대 하층에서 하강 이동한 인구 비율은 40%이므로 계층을 대물림한 인구 비율은 60%이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세대 중층에서 상승 이동한 인구 비율은 55%이므로 상승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하강 이동한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8%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상층에서 상승 이동한 인구 비율은 80%이므로 계층을 대물림한 인구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6%			30%
중층	8%	10%	22%	40%
하층			18%	30%
전체	20%	30%	50%	100%

각 세대에 따른 계층별 비율에 의거해 남아 있는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6%	14%	10%	30%
중층	8%	10%	22%	40%
하층	6%	6%	18%	30%
전체	20%	30%	50%	100%

-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인구의 비는 상층이 3/10, 하층이 9/25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과 중층 인구 비율의 합은 50%,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4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02 정답: ⑤

현재 A+C 비율을 50a%라 둔다면 B+C 비율은 80a%, A+B 비율은 70a%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A+B+C)=200a%$ 가 되므로  $A+B+C=100a%$ ,  $a=1$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C 비율은 50%, B+C 비율은 80%, A+B 비율은 70%임을 알 수 있고, B 비율은 50%, A 비율은 20%, C 비율은 30%임을 알 수 있다.

[예측 1] A+C 비율을 60b%라 둔다면 B+C 비율은 90b%, A+B 비율은 50b%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A+B+C)=200b%$ 가 되므로  $A+B+C=100b%$ ,  $b=1$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C 비율은 60%, B+C 비율은 90%, A+B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고, B 비율은 40%, A 비율은 10%, C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예측 2] A+C 비율을 60c%라 둔다면 B+C 비율은 70c%, A+B 비율은 70c%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A+B+C)=200c%$ 가 되므로  $A+B+C=100c%$ ,  $c=1$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C 비율은 60%, B+C 비율은 70%, A+B 비율은 70%임을 알 수 있고, B 비율은 40%, A 비율은 30%, C 비율은 3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므로 A는 상층, B는 중층, C는 하층임을 알 수 있다.

[예측 1]에서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를 d로 둔다면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B 인구 수는 2.5d가 되고,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C 인구 수는 2d가 된다. 그리고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비율은 유지하지 못할 인구의 비율에 비해 [예측 1]에서는 10%p 크므로 전자는 55%, 후자는 45%이고, 이에 따라  $5.5d=55%$ ,  $d=10%$ 이다. 따라서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0%,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B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25%,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C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

[예측 2]에서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를 e로 둔다면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B 인구 수는 6e가 되고,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C 인구 수는 5e가 된다. 그리고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비율은 유지하지 못할 인구의 비율에 비해 [예측 1]에서는 20%p 크므로 전자는 60%, 후자는 40%이고, 이에 따라  $12e=60%$ ,  $e=10%$ 이다. 따라서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A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5%,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B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30%, t년 후 현재의 계층을 유지할 C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

이에 따라 [예측 1]에서 갑국 인구의 현재 계층과 t년 후 계층 인구 및 계층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t년 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0%	0%	10%
중층	5%	25%	10%	40%
하층	5%	25%	20%	50%
전체	20%	50%	30%	100%

또한 [예측 2]에서 갑국 인구의 현재 계층과 t년 후 계층 인구 및 계층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t년 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30%
중층		30%		40%
하층			25%	30%
전체	20%	50%	30%	100%

이때 t년 후 상층 비율이 30%가 되려면 현재 중층 인구 중 t년 후 하층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 하층 인구 중 t년 후 중층 인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고려해 [예측 2]에서 갑국 인구의 현재 계층과 t년 후 계층 인구 및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재 t년 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20%	5%	30%
중층	10%	30%	0%	40%
하층	5%	0%	25%	30%
전체	20%	50%	30%	100%

- ⑤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세대 내 이동으로 상층이 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하층이 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예측 2]대로 된 경우 t년 후 세대 내 이동으로 상층이 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하층이 될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인구 비율은 10%, 현재의 상층 인구 비율은 20%로 전자는 후자의 40%가 아니다.
- ② [예측 2]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 ③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하강 이동을 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 상승 이동을 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하지만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하강 이동을 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상승 이동을 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④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중층일 인구 중 현재 하층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상층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그리고 [예측 2]대로 된 경우 t년 후 중층일 인구 중 현재 하층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0%, 상층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203 정답: ㉔

부모 세대 A 인구를 a, B 인구를 b, C 인구를 c로 둔다면  $a+b+c=100\%$ (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에 의하면 자녀 세대 최초 A 인구는 a, B 인구는 3b, C 인구는 0.5c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3b+0.5c=100\%$ (㉒)임을 알 수 있으며, ㉑과 ㉒을 연립하면  $c=4b$ 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현재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에 의하면 자녀 세대 현재 A 인구는 0.4a, B 인구는 2b, C 인구는 1.5c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0.4a+2b+1.5c=100\%$ (㉓)임을 알 수 있으며, ㉑과 ㉓을 연립하면  $16b+11c=600$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10\%$ ,  $c=40\%$ 임을 알 수 있으며,  $a=50\%$ 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 부모 세대 계층,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자녀 세대 현재 계층 비율(단위: %)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최초	자녀 세대 현재
A	50	50	20
B	10	30	20
C	40	20	60

이때 자녀 세대 최초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므로 A는 하층, B는 상층, C는 중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부모 세대 계층,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자녀 세대 현재 계층 비율(단위: %)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최초	자녀 세대 현재
상층	10	30	20
중층	40	20	60
하층	50	50	20

갑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2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으므로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하층, 갑의 최초 계층은 상층이다. 그리고 갑은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했으므로 갑의 현재 계층은 중층이다.

을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고,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다. 따라서 을의 부모 세대 계층은 상층, 최초 계층은 중층, 현재 계층은 하층이다.

병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2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으므로 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상층, 갑의 최초 계층은 하층이다. 그리고 병은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했으므로 병의 현재 계층은 중층이다.

정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고,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다. 따라서 정은 부모 세대 계층은 하층, 최초 계층은 중층, 현재 계층은 상층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정의 부모 세대 계층, 최초 계층, 현재 계층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계층	최초 계층	현재 계층
갑	하층	상층	중층
을	상층	중층	하층
병	상층	하층	중층
정	하층	중층	상층

㉔ 을의 부모 세대 계층은 정의 최초 계층과 달리 상층이다.

오답 풀이

㉑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자녀 세대 현재 하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㉒ 자녀 세대 현재 계층은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아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㉓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을의 최초 계층과 달리 중층이 아닌 하층이다.

㉔ 병의 현재 계층은 정의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하층이 아닌 중층이다.

204 정답: ㉔

㉔ 갑은 인종 차별적인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SNS 활동을 하는, 을은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갑과 을은 모두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겪고 있다.

㉒ 갑과 을은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㉓ 갑과 을은 모두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중첩되어 속해 있지 않다.

㉔ 갑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 을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205 정답: ㉔

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던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된 양상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이던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게 된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이다.

오답 풀이

㉑ 다음 두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집단의 수에 따라 규정되는 양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㉒ 다음 두 사례에서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양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㉓ 다음 두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하는 양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㉔ 다음 두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양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206 정답: ㉒

A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겪으므로 대담 '예'에 대한 채점 결과는 1점이고, 따라

서 ㉠에 들어갈 것은 '1점' 또는 '2점'이다.  
 다. ㉠에 들어갈 것이 '예'이라면 (가)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이 '예'가 되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적 열세에 의해 규정된다'가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아니요'가 되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ㄱ. 사회적 소수자는 해당 집단의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 (가)에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예'가 되므로 대답 '아니요'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 된다. ㉠에 들어갈 것은 '1점'이 된다.

207 정답: ④

④ 첫 번째 사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강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은 형태의 차별이 나타나는 양상이 존재하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 대상에 제한을 둠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형태의 차별이 나타나는 양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치 않은 형태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음 두 사례에서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다음 두 사례에서는 모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음 두 사례에서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시기나 지역에 따라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건강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208 정답: ④

ㄴ. A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을 겪지 않았다.  
 ㄷ. (가)에는 A의 자녀에 대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사례가 나타난다. 반면 (나)에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ㄱ. B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또한 A가 받은 차별이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역시 알 수 없다.  
 다. (가)와 (나)에는 모두 역차별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209 정답: ②

② C는 이주 여성 출신이라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았고, 다음 자료에서 D가 차별을 받은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A는 '한부모 가정 출신',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으나, B는 '트랜스젠더'라는 한 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만 속해 있다.  
 ③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의 개선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이 '제도적' 지원인 것은 아니다.  
 ④ D는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된 것도 아니며, 이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⑤ A는 '한부모 가정 출신',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고, C는 '이주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둘은 동일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

210 정답: ②

② A는 청각 장애인 출신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E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서 차별을 받았으므로 모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오답 풀이  
 ① A와 B는 모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다. B는 이주 전 여성으로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했으나, 이주 후 이주 배경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되었고,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한 적은 없다.  
 ③ D는 차별 방지를 위한 '규범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④ A와 C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역 할당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⑤ B와 E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

211 정답: ②

A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므로 A 지역의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한다면 여성 평균 임금은 80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D 지역의 남성/여성 평균 임금의 크기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남성	100	120	90	150
여성	80	112	64	88

ㄴ. A 지역 여성 평균 임금은 80, D 지역 남성 평균 임금은 150으로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200% 이하이다.  
 ㄷ.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은 120, C 지역 여성 평균 임금은 64로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오답 풀이  
 ㄱ. B 지역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120, 여성 평균 임금은 112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ㄹ. A~D 지역 중 여성 평균 임금이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

인 120보다 많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212 정답: ③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의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a, 2021년의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b, 2023년의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c로 둔다면  $a < b < c$ 이고, 각 연도의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150a	170b	140c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80a	100b	120c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	70a	60b	80c

③ 2023년에 갑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는 40c, 을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는 40c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23년이 140c, 2019년이 150a이다. 그러나  $c > a$ 이므로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2023년이 2019년보다 적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②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비는 2021년이 3/5, 2023년이 2/3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다.
- ④  $a < b$ ,  $b < c$ 이나 정확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2년 전 대비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증가액은 2021년과 2023년이 같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⑤ 2019년에 출신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남성 노동자가 80a, 여성 노동자가 30a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2021년에 출신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남성 노동자가 70b, 여성 노동자가 40b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그러나 2023년에 출신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남성 노동자가 40c, 여성 노동자가 40c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지 않다.

213 정답: ⑤

A 지역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남성 노동자 수는 여성 노동자 수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를 200a, 후자를 100a로 둘 수 있다. 이때 성비 불균형은  $\{(200a - 100a)/(200a + 100a)\} \times 100 = 100/3$ 인 것을 알 수 있다.

C 지역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남성 노동자 수는 여성 노동자 수의 5/3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를 500c, 후자를 300c로 둘 수 있다. 이때 성비 불균형은  $\{(500c - 300c)/(500c + 300c)\} \times 100 = 25$ 인 것을 알 수 있다.

B 지역에서 남성 노동자 수를 300b, 여성 노동자 수를 100k로 둔다면 성비 불균형은 20이므로  $\{(300b - 100k)/(300b + 100k)\} \times 100 = 20$ 이다. 따라서  $k = 2b$ 이고, B 지역의 여성 노동자 수는 200b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B 지역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32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ㄴ. ㉠에 들어갈 값은 320(만 원)이고, A 지역과 C 지역을 합친 지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320(만 원) 초과 360(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작다.

ㄷ. C 지역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은 330만 원  $\times 800c = 264,000c$ 만 원이고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360만 원  $\times 500c = 180,000c$ 만 원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1.5배 미만이다.

ㄹ. A 지역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이 B 지역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과 같다면 320만 원  $\times 200a = 320$ 만 원  $\times 200b$ ,  $a = b$ 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B 지역 남성 노동자 수는 300a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지역 남성 노동자 수는 A 지역 여성 노동자 수의 3배이다.

오답 풀이

ㄱ. ㉠에 들어갈 값은 100/3, ㉡에 들어갈 값은 25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지 않다.

214 정답: ④

ㄱ. 2021년 대비 2022년 전체 남성 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의 조사에서 전체 남성 인구 대비 결혼에 응답한 남성 비율은 23.7%, 2021년의 조사에서 전체 남성 인구 대비 외모에 응답한 남성 비율은 22.5%이다. 따라서 2022년의 조사에서 결혼에 응답한 남성 수는 2021년의 조사에서 외모에 응답한 남성 수보다 많으므로 해당 진술은 참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ㄷ. 여성에서 전체 인구 대비 기타에 응답한 인구의 비율은 2021년 7.8%, 2022년 6.5%, 2023년 5.9%로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에서 전체 인구 대비 기타에 응답한 인구의 비율은 2021년 6.7%, 2022년 6.7%, 2023년 6.2%로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참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ㄹ. 2021년 대비 2022년에 남성 수는 증가하였고, 여성 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는 2021년에는 전체 남성 인구 대비 21.1%에 2022년에는 전체 남성 인구 대비 22.3%로 증가하였다. 반면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2021년에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29.8%에 2022년에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19.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2022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 대비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남성 수는 감소하였고, 여성 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는 2022년에는 전체 남성 인구 대비 22.3%에 2023년에는 전체 남성 인구 대비 21.8%로 감소하였다. 반면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2022년에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19.5%에 2023년에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20.1%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 대비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2022년 대비 2023년에 여성 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의 조사에서 나이에 응답한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24.4%이고,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 대비 15.2%이다. 따라서 전자의 비율은 후자보다 높으므로 해당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15 정답: ①

전체 산업의 노동자 성비는 125이고, 2차 산업의 노동자 성비는 125이며 1차 산업의 노동자 성비는 75, 3차 산업의 노동자 성비는 150이므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3차 산업의 여성 노동자 수는 1차 산업의 여성 노동자 수의 2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수는 75, 3차 산업 남성 노동자 수는 30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산업의 여성 노동자 수를 100a, 남성 노동자 수를 125a로 둘 수 있다.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에서 남성의 경우 각 산업별 총임금의 합은 전체 산업의 총임금과 같으므로  $86 \times 75 + 91 \times 125a + 111 \times 300 = 100 \times (375 + 125a)$ 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a=2$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차 산업의 여성 노동자 수는 200, 남성 노동자 수는 250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에서 여성의 경우 각 산업별 총임금의 합은 전체 산업의 총임금과 같으므로  $70 \times 100 + 105 \times 200 + \textcircled{a} \times 200 = 100 \times 500$ 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textcircled{a}=110$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산업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므로 전체 산업의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전체 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80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산업의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1차 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56, 2차 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84, 3차 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88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산업에 따른 성별 노동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남성	여성
1차 산업	75	100
2차 산업	250	200
3차 산업	300	200
전체 산업	625	500

또한 전체 산업의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각 산업에 따른 성별 평균 임금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남성	여성
1차 산업	86	56
2차 산업	91	84
3차 산업	111	88
전체 산업	100	80

① ㉠에 들어갈 값은 110이다.

오답 풀이

② 3차 산업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88, 1차 산업 남성 노

동자 평균 임금은 86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③ 2차 산업 여성 노동자 수는 200,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수는 75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④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3차 산업이  $300 \times 111 = 33,300$ 이고, 1차 산업이  $75 \times 86 = 6,450$ 으로 전자는 후자의 5배 미만이 아니다.

⑤ 1차 산업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100 \times 56 = 5,600$ 이고, 2차 산업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250 \times 91 = 22,750$ 으로 전자는 후자의 25% 이상이 아니다.

216 정답: ⑤

A는 상대적 빈곤, B는 절대적 빈곤이다.

⑤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소득 수준의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③ 한 나라에서 전체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아닌,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 중 높은 빈곤율에 해당한다.

④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할 때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17 정답: ②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다.

②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③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⑤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218 정답: ⑤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다.

⑤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③ 전체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아닌,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 중 더 높은 비율이다.
-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219 정답: ④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다.

- ④ ㉠은 갑이 수행한 가장으로서의, ㉡은 을이 수행한 사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중위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⑤ ㉢은 갑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 을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20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은 절대적 빈곤이다.

- ㄴ.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 ㄷ.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 ㄱ.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21 정답: ④

t년 갑국은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 소득보다 높으므로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높다. 따라서 t년 갑국은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고,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많다. 따라서 A는 상대적 빈곤, B는 절대적 빈곤이다.

- ④ t+10년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보다 많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따라서 갑국의 t+10년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

오답 풀이

- ①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과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모두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 ②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다.
- ③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t년과 t+10년 간 중위 소득, 최저

생계비를 비교할 수 없다.

- ⑤ 갑국의 t년 상대적 빈곤 인구 대비 절대적 빈곤 인구의 비는 8/5이고, t+10년 절대적 빈곤 인구 대비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는 10/7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222 정답: ②

제시된 연도 중 두 연도에서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높다. 그리고 B와 달리 A에 해당하는 가구는 t년과 t+1년, 즉 두 연도에서 존재하므로 A는 상대적 빈곤, B는 절대적 빈곤이다. 그리고 t+2년에 B와 달리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0%이므로 A와 달리 B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0% 이상이고, 이에 따라 t+2년의 상대적 빈곤 또는 절대적 빈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15% 이상이다.

- ㄱ.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15%,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5%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60%이다.

오답 풀이

- ㄴ. t+1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의 75%이다. 그러나 이것이 t+1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37.5%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ㄷ.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t년에 15%, t+1년에 15%이다. 그러나 t+2년에는 15% 이상이므로 주어진 기간 동안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변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23 정답: ⑤

갑국의 t년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같으므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도 같다. 따라서 중위 소득의 50%는 1,500달러이므로 최저 생계비도 1,500달러이고, ㉠에 들어갈 것은 1,500달러이다.

갑국의 t+1년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높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고, ㉡에 들어갈 값은 9%보다 크다.

갑국의 t+2년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보다 낮으므로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적다. 따라서 갑국의 t+2년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크므로 4,000달러 이상이고, ㉢에 들어갈 것은 4,000달러 이상이다.

- ⑤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에 모두 포함되며,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며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보다 적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값은 4,000달러 이상, ㉠에 들어갈 값은 1,500달러이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의 3배보다 큰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② ㉢에 들어갈 값은 9%보다 크고, t년에 절대적 빈곤과 상

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8%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 ③ t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8%, t+2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7%이다. 그러나 전체 가구 수는 t+2년이 t년보다 많으므로 t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t+2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④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6%, t+1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9%이다. 그러나 전체 가구 수는 t+2년이 t+1년보다 많으므로 t+2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t+1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적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24 정답: ⑤

갑국에서 중위 소득은 D1의 2,500달러이고, 중위 소득의 50%는 1,250달러이다. 따라서 갑국에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A1, B1 가구이다. 그리고 을국에서 중위 소득은 D2의 2,400달러이고, 중위 소득의 50%는 1,200달러이다. 따라서 을국에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A2, B2 가구이다.

그리고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갑국의 1.5배이므로 가능한 경우는

- 전자: 3가구
  - 후자: 2가구
  - 또는
  - 전자: 6가구
  - 후자: 4가구
- 가 있다.

이때 전자가 6가구, 후자가 4가구인 경우에는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 월 소득의 총합은 갑국이 을국의 70%라는 데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는 3가구, 후자는 2가구이고,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A1, B1 가구이고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A2, B2, C2 가구이다.

따라서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 A1, B1에 대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이 각각 800달러가 지원되며, 상대적 빈곤 가구 A1, B1에 대해 교육 지원금이 각각 600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을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 A2, B2, C2에 대해 생활 지원금이 각각 600달러가 지원되며, 상대적 빈곤 가구 A2, B2에 대해 의료 지원금, 교육 지원금이 각각 700달러가 지원된다.

위에서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 각 가구의 월 총소득을 표에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월 소득	지원금	월 총소득
A1	900	1,400	2,300
B1	1,200	1,400	2,600
C1	1,700	0	1,700
D1	2,500	0	2,500
E1	2,800	0	2,800
F1	3,200	0	3,200
G1	4,000	0	4,000

또한 위에서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을국 각 가구의 월 총소득을 표에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월 소득	지원금	월 총소득
A2	800	1,300	2,100
B2	1,000	1,300	2,300
C2	1,200	600	1,800
D2	2,400	0	2,400
E2	2,700	0	2,700
F2	3,300	0	3,300
G2	3,600	0	3,600

- ⑤ 정부 지원으로 인해 월 총소득이 역전당하는 가구는 갑국에서는 C1, D1의 두 가구가 존재하고 을국에서는 C2의 한 가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 월 총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한 복지병 발생의 위험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더 크다.

오답 풀이

- ① 상대적 빈곤과 달리 절대적 빈곤에만 속하는 가구는 을국에는 존재하나, 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을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1,2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 갑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1,200달러에서 1,700달러 사이이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③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이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국이 약 26%, 을국이 약 25%로 후자는 전자보다 낮다.
- ④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총합은 갑국이 2,800달러, 을국이 3,200달러로 전자는 후자의 80%가 아니다.

225 정답: 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 ⑤ 주어진 소득 분위 중 총소득에서 민간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분위는 총소득에서 민간 소득이 20%를 차지하는 1분위의 1개이다.

오답 풀이

- ① 2분위의 경우 민간 소득이 총소득의 50%를 차지하므로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다.
- ②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분위별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평균 수급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 ③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위가 30%, 2분위가 30%로 분위가 낮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의 2분위 가구 수급 총액과 1분위 가구 수급 총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주어진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226 정답: ③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A 지역 (가) 제도 수급자 비율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에서 남성 수는 여성 수의 2배임을 알 수 있으며,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또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에 들어갈 값은 55임을 알 수 있다.

A 지역의 남성 수와 B 지역의 여성 수는 같으므로 B 지역의 여성 수는 20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 지역 (나) 제도 수급자 비율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B 지역에서 남성 수와 여성 수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지역의 남성 수는 200임을 알 수 있으며,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에 들어갈 값은 11.5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A 지역과 B 지역의 성별 (가), (나) 제도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가)	(나)	인구
A 지역	남성	16	100	200
	여성	11	65	100
	전체	27	165	300
B 지역	남성	18	120	200
	여성	28	100	200
	전체	46	220	400

㉠.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경우, 남성 수급자 수와 여성 수급자 수의 차이는 A 지역이 35, B 지역이 2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 대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의 비는 A 지역이 9/55, B 지역이 11.5/55로 후자는 전자보다 크다.

오답 풀이

㉠. ㉠에 들어갈 값은 55, ㉡에 들어갈 값은 11.5로 전자는 후자의 5배가 아니다.

㉡.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의 경우, A 지역 전체 수급자 수는 27, B 지역 여성 수급자 수는 28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227 정답: 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A 지역 인구는 C 지역 인구의 2배이므로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B 지역 인구를 100a로 둘 수 있다. 이때 (가) 수급자 비율에서  $36\% \times 200 + 32\% \times 100a + 34\% \times 100 = 34\% \times (300 + 100a)$ 이므로  $a=2$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지역 인구는 20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 수급자 비율에서  $13\% \times 200 + \text{㉠}\% \times 200 + 14\% \times 100 = 12\% \times 500$ 이므로 ㉠에 들어갈 값은 10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A~C 지역과 갑국 전체의 (가),

(나) 제도 수급자 수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전체
(가)	72	64	34	170
(나)	26	20	14	60
인구	200	200	100	500

⑤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공 부조의 수급자 수 대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36/13, B 지역이 16/5, C 지역이 17/7으로 A~C 지역 중 B 지역에서 가장 크다.

오답 풀이

①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이 적절하나, ㉡에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이 적절하지 않다.

② ㉡에 들어갈 값은 '10'이다.

③ A 지역의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가) 제도의 수급자 수는 72, 갑국 전체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나)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④ A~C 지역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수급자 수는 C 지역에서 가장 적다.

228 정답: ①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다.

(가) 지역의 중복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 (나) 지역의 중복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0%이다. 이때 중복 수급자 수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같으므로 전체 인구는 (가) 지역의 (나) 지역의 2배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 지역의 전체 인구를 200명, (나)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다.

(가) 지역의 B 수급자 중 A 수급자 비율은 25%이므로 (가) 지역의 B 수급자 비율을 a%로 둔다면  $(5\%/a\%) \times 100\% = 25\%$ ,  $a=20$ 이다. 따라서 (가) 지역의 B 수급자 비율은 20%이고, A 또는 B 수급자 비율은 55%이므로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5%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 지역의 B 수급자 중 A 수급자 비율은 40%이므로 (나) 지역의 B 수급자 비율을 b%로 둔다면  $(10\%/b\%) \times 100\% = 40\%$ ,  $b=25$ 이다. 따라서 (나) 지역의 B 수급자 비율은 25%이고, A 또는 B 수급자 비율은 75%이므로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 지역과 (나) 지역의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A와 B 중복 수급자 수,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비(非)수급자 수,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70명	50명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30명	15명
A와 B 중복 수급자	10명	10명
비(非)수급자	90명	25명
전체 인구	200명	100명

㉠. 비(非)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90명, (나) 지역이 25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4배 미만이다.

오답 풀이

- ㄴ.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30명, (나) 지역이 1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ㄷ.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이 60%, (가) 지역이 40%호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229 정답: ④

(가)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이에 따라 ㉠에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공통점이, ㉡에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이므로 A 지역 인구를 100명, B 지역 인구를 20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A 지역에서 (가)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 비(非)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이므로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 지역의 (나) 수급자 중 (가) 수급자 비율은 50%이므로 A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며, 이에 따라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B 지역에서 (가)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4%, 비(非)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이므로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 지역의 (나) 수급자 중 (가) 수급자 비율은 50%이므로 A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이며, 이에 따라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2%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 지역과 B 지역의 (가) 수급자 수, (나) 수급자 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 비(非)수급자 수, 전체 인구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가) 수급자	60명	128명
(나) 수급자	20명	48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0명	24명
비(非)수급자	30명	48명
전체 인구	100명	200명

- ④ A 지역의 비(非)수급자 수는 30명, B 지역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4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에 모두 적용되는 특징이므로 ㉠에 적절하다. 그러나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됨’은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에 적절하지 않다.
- ②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20%,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24%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지 않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52%,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50%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지 않다.

- ⑤ A 지역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50명, B 지역의 비(非)수급자 수는 48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230 정답: ④

- ④ 연 소득이 15,000달러인 가구의 B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은 3,000달러이고, A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은 4,000달러  $\times 0.5 = 2,000$ 달러로 전자는 후자의 1.5배이다.

오답 풀이

- ① A안에서 연 소득이 6,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4,000달러  $\times 0.8 = 3,200$ 달러이다.
- ② B안에서 근로 장려금은 연 소득이 9,000달러인 가구가 3,000달러  $\times 75\% = 2,250$ 달러, 24,000달러인 가구가 3,000달러  $\times 200/3\% = 2,000$ 달러로 후자는 전자보다 적다.
- ③ 연 소득이 10,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A안이 4,000달러  $\times 200/3\% = (8,000/3)$ 달러이고, B안이 3,000달러  $\times 500/6\% = 2,500$ 달러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⑤ 갑국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갑국은 A안보다 B안의 도입을 선호할 것이다.

231 정답: ③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 C는 사회 보험이다. A 제도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은데, 전체 인구 대비 A 제도 수급자 비율은 t년이 7.8%, t+10년이 8.1%이므로 전체 인구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③ 비금전적 지원이 적용되는 사회 서비스의 t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5%,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10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23.2%이고 해당 인구의 50%는 전체 인구의 11.6%이다. 그리고 t년 전체 인구는 t+10년 전체 인구보다 많으므로 t년 전체 인구의 12.5%는 t+10년 전체 인구의 11.6%보다 많다. 따라서 비금전적 지원이 적용되는 사회 서비스의 t년 수급자 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10년 수급자 수의 50%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이다.
-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경우,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비율은 0.3%가 아닌, 0.3%p 증가하였다.
- ④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22.9%, t+10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23.2%이다. 그리고 t년 전체 인구의 7.8%는 t+10년 전체 인구의 8.1%보다 많다. 따라서 t년 전체 인구의 22.9%는 t+10년 전체 인구의 23.2%보다 많으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⑤ t년 대비 t+10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A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감소하였다. 갑국의 t년 전체 인구를 100a, t+10년 전체 인구를 100b로 둔다면  $7.8a > 8.1b$ 인 것이다. 따라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C 제도의 수급자 수에서

도 22.9a > 23.2b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7.8a = 8.1b인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22.9a > 23.2b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수의 감소율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이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보다 높으며, 역으로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이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보다 낮다.

232 정답: ②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이다.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두면 A 수급자는 20명, B 수급자는 50명, A와 B 중복 수급자는 10명이므로 A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10명, B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40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30년의 전체 인구를 100a명으로 두면 A 수급자는 24a명, A와 B 중복 수급자는 12a명이므로 A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12a명임을 알 수 있다. 이때 A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t년 대비 t+30년 변화율은 80%이므로 t+30년의 A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18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a명=18명이므로 a=1.5임을 알 수 있고, t+30년의 전체 인구는 150명임을, A 수급자는 36명임을, A와 B 중복 수급자는 18명임을 알 수 있다.

B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t년 대비 t+30년 변화율은 50%이므로 t+30년 수급자 수는 60명이다. 이에 따라 t+30년의 B 수급자 수는 78명임을, 그리고 B 수급자 비율은 (78명/150명)×100%=5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52이다. 또한 A와 B 중복 수급자는 t년이 10명, t+30년이 18명이다. 따라서 A와 B 중복 수급자의 t년 대비 t+30년 변화율은 80%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80이다. 이에 따라 각 연도의 전체 인구,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0명	18명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40명	18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0명	60명
전체 인구	100명	150명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만 해당하는 t년 수급자 수는 40명,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의 t+30년 수급자 수는 24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값은 80, ㉠에 들어갈 값은 52로 전자는 후자의 1.5배 미만이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30년 수급자 수는 72명, 그렇지 않은 공공 부조의 t년 수급자 수는 2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4배 이상이 아니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공공 부조만 해당하는 t+30년 수급자 수는 18명, 그렇지 않은 사회 보험의 t년 수급자 수는 5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0.5배 이상이 아니다.
- ⑤ 비(非)수급자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40%, t+30년이

전체 인구의 36%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지 않다.

233 정답: ④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나) 수급자 비율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 전체 인구는 B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또한 (가) 수급자 비율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은 36인 것을 알 수 있다.

A 지역의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은 (33-㉡)%, 갑국 전체의 (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은 (13-㉢)%이고 전자는 후자의 4배이므로 33-㉡=52-4㉢, ㉡=4㉢-19가 된다. 이에 따라 갑국 각 지역의 (가), (나) 수급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33	36	34
(나) 수급자	14	11	13
(가)와 (나) 중복 수급자	4㉡-19	8	㉢

이때 8 < ㉡인 경우 4㉡-19 > ㉢이 되어야 하고,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용해 ㉢을 구하면 ㉢=6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8 < ㉡에 모순이므로, 8 >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4㉡-19 < ㉢이 되어야 하고,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용해 ㉢을 구하면 ㉢=6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5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갑국 각 지역의 (가), (나) 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66	36	102
(나) 수급자	28	11	39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0	8	18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B 지역 수급자 수는 28,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A 지역 수급자 수는 18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은 36, ㉠과 ㉢의 합은 11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②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28, B 지역이 11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36,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39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⑤ (가), (나) 두 제도 모두의 비(非)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61%, A 지역이 58%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다.

234 정답: ②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 C는 사회 서비스이다.

3중 수혜자 비율은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두 제도인

사회 보험,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과 같으므로 3중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즉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이다. 또한 B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이므로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 A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이다.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이므로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6-6-4)\%=40\%$ 이고,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6-6-5)\%=12\%$ 이며,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3%이므로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3-6-4-5)\%=18\%$ 이다. 따라서 비(非)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9%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둔 뒤 각 제도별 수혜자 및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0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8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명
3중 수혜자	6명
비(非)수혜자	9명

②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18명,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12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이다.

오답 풀이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40%이고, 전체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91%이므로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40%가 아니다.
- ③ 3중 수혜자 수는 6명, 비(非)수혜자 수는 9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아니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16명,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29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35 정답: ⑤

(가)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24%,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18%이고 갑국이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A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명, B 지역의 전체 인구를 200명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갑국의 전체 인구는 300명이 된다.

A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는  $100 \times (45 - \text{㉠})\% = (45 - \text{㉠})$ 명이고, B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수는  $200 \times (18 - 8)\% = 20$ 명이다. 이때 전자는 후자의 2배이므로  $(45 - \text{㉠}) = 40$ 명이고,  $\text{㉠} = 5$ 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45%, 갑국이 전체 인구의 43%이고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의 2배이므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42%임을, 다시 말해 ㉡에 들어갈 값은 42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5%,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8%이고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이므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갑국이 전체 인구의 7%임을, 다시 말해 ㉢에 들어갈 값은 7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 B 지역과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나)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24명	36명	60명
(나) 수급자	45명	84명	129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5명	16명	21명
전체 인구	100명	200명	300명

②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39명, 그렇지 않은 사회 보험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45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오답 풀이

- ① ㉠은 42, ㉡과 ㉢의 합은 12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③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B 지역 수급자 수는 68명, 그렇지 않은 사회 보험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60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전체 인구의 34%,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40%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지 않다.
- 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36+84-16) = 104$ 명, A 지역이  $(24+45-5) = 64$ 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지 않다.

236 정답: ③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3중 수혜자 수를 전체 인구의 a%로 둔다면 A와 B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9%이므로 A와 B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9-a)\%$ , B와 C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9%이므로 B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9-a)\%$ , A와 C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이므로 A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a)\%$ 이다. 또한 A 단독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42%, B 단독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 C 단독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비(非)수혜자가 아닌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04-2a)\%$ 이다.

그리고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8%이므로 비(非)수혜자가 아닌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92%이므로  $104-2a=92$ 이

고, 이에 따라 a=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 A와 B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 B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 A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둔 뒤 각 제도별 수혜자 및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2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0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명
3중 수혜자	6명
비(非)수혜자	8명

③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6명, 3중 수혜자 수는 6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57명, 전체 수혜자 수는 92명으로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57%가 아니다.
- ② 3중 수혜자 수는 6명, 비(非)수혜자 수는 8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3명, 비(非)수혜자 수는 8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0.5배가 아니다.
-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24명, 민간 부문도 복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단독 수혜자 수는 2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37 정답: ④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이에 따라 ㉠에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의 공통점이, ㉡에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A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36%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64%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a%라 하면  $(16+54-a)\%=64\%$ 이므로 a=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1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6%,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48%임을 알 수 있다.

B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32%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68%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b%라 하면  $(30+56-b)\%=68\%$ 이므로 b=18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12%,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8%,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8%임을 알 수 있다.

C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50%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c%라 하면  $(18+44-c)\%=50\%$ 이므로 c=1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2%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지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0	12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	6	18	1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48	38	32

이때 중복 수급자 수는 A~C 지역이 모두 같으므로 B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를 200으로 두면 C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300, A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60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지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60	24	18
(가)와 (나) 중복 수급자	36	36	36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288	76	96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288, B 지역이 96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이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이 들어갈 수 없다.
-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324, B 지역이 112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
- ③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6%, B 지역이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⑤ (가)와 (나) 중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58%, B 지역이 50%, C 지역이 38%로 B 지역이 A 지역보다 낮고, C 지역보다 높다.

238 정답: ③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 C는 사회 보험이다.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A,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므로 전자를 전체 인구의 2a%, 후자를 전체 인구의 a%로 둘 수 있으며, 전자는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와 같으므로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a%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이므로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5a+5)\%$ 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35%이므로 a=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2%, A,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 A,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2%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이므로 B,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7%임을 알 수 있으며, B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7%이므로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7-6-5-7)%=9%, C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0-5-7-12)%=36%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제도별 수혜자 및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9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6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7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
3중 수혜자	5
비(非)수혜자	13

③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4%,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7%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36%,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②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9%,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지 않다.
- ④ 비(非)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3%,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한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3%로 전자는 후자의 0.5배보다 적지 않다.
-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6%, 사회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5%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239 정답: ②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가) 수급자 비율에서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45%로 갑국 수급자 비율과 같고, B 지역 수급자 비율은 42%, C 지역 수급자 비율은 47%이므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C 지역 전체 인구는 B 지역 전체 인구의 1.5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를 300, 후자를 200으로 둘 수 있고, 이에 더해 A 지역 전체 인구를 100a로 둘 수 있다.

A~C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의 비는 각각 2:3:6인데,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12a, B 지역이 (36-2ⓐ), C 지역이 36이다. 따라서 12a=12이므로 a=1인 것을

알 수 있으며, 36-2ⓐ=18이므로 ⓐ=9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수급자에서 21%×100+18%×200+25%×300=600×㉠%이므로 132=6ⓐ, ㉠=22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와 (나) 중복 수급자에서 9%×100+9%×200+13%×300=600×ⓐ%이므로 66=6ⓐ, ⓐ=1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갑국 각 지역의 (가), (나) 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가) 수급자	45	84	141	270
(나) 수급자	21	36	75	132
(가)와 (나) 중복 수급자	9	18	39	66

②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18, A 지역이 9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① ⓐ과 ⓐ의 합은 20, ㉠은 22이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36%, B 지역이 33%, C 지역이 34%로 A~C 지역 중 A 지역이 가장 높다.
- ④ (가), (나) 두 제도 모두의 비(非)수급자 수는 C 지역이 123, A 지역이 43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보다 적다.
- 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대비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1/3, B 지역이 3/11, C 지역이 6/17으로 A~C 지역 중 C 지역이 가장 크다.

240 정답: ⑤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A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8%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A 수혜자의 비율을 25a%, 3중 수혜자의 비율을 2a%로 둘 수 있다. 이때 B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6%이므로 B 수혜자의 비율은 12.5a%임을 알 수 있으며, C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0%이므로 C 수혜자의 비율은 20a%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와 B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40%이므로 A와 B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5a%이며, B와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80%이므로 B와 C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2.5a%, A와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20%이므로 A와 C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10a%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비(非)수혜자의 수는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험 또는 사회 서비스의 중복 수혜자 수와 같으므로 전체 인구의 8a%이다. 이에 따라 각 제도별 수혜자 및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7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9.5a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a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0.5a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a
3중 수혜자	2a
비(非)수혜자	8a

이에 따라 전체 인구의 비율은 50a%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00%와 같으므로 50a=100, a=2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해 각 제도별 수혜자 및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4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4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9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6
3중 수혜자	4
비(非)수혜자	16

⑤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9%,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1%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4%, 중복 수혜자 중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6%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4%,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1%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③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7%,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6%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지 않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6%,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40%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241 정답: ②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 C는 사회 보험이다. A 수혜자 비율은 26%, B 수혜자 비율은 28%이고 A 또는 B 수혜자 비율은 47%이다. 이에 따라서 A와 B 중복 수혜자 비율은 (26+28-47)%=7%이다. 또한 B 수혜자 비율은 28%, C 수혜자 비율은 53%이고 B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72%이다. 이에 따라서 B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28+53-72)%=9%이다. 그리고 A 수혜자 비율은 26%, C 수혜자 비율은 53%이고 A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73%이다. 이에 따

라서 A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26+53-73)%=6%이다. 이때 A와 C 중복 수혜자 중 B의 수혜자 수와 B의 비(非)수혜자 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A~C 중복 수혜자, 즉 3중 수혜자 비율과 A와 C 중복 수혜자 중 B의 비(非)수혜자 비율은 모두 3%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A~C 수혜자 또는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6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5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1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
3중 수혜자	3
비(非)수혜자	12

②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5%로 전자는 후자의 0.2배이다.

오답 풀이

- ① 2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 수급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6%로 전자는 후자의 0.5배가 아니다.
- ④ 두 가지 이상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6%, 민간 부문도 복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5%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공공 부조 또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47%,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41%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42 정답: ②

t년 전체 인구에서 (가) 수급자는 12%, (나) 수급자는 73%이고 제도 수급자는 75%이므로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이다. 따라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3%이다. 따라서 t년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빈곤 인구가 아닌 (가) 수급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 수급자는 빈곤 인구이다. 따라서 빈곤 인구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으로 (가) 수급자는 총 12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빈곤 인구의 60%이므로 전체 빈곤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 인구에서 (나) 수급자는 80%이므로 빈곤 인구 (나) 수급자는 16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도 수급자는 18임을, 그리고 빈곤 인구 중 제도 수급자 비율은 90%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90이다.  
 t+20년 전체 인구에서 (가) 수급자는 10%, (나) 수급자는 60%이고 제도 수급자는 64%이므로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6%이다. 따라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4%,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54%이다. 이때 갑국의 t+2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1.5배이므로 해당 인구는 150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9,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8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빈곤 인구가 아닌 (가) 수급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 수급자는 빈곤 인구이다. 따라서 빈곤 인구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9로 (가) 수급자는 총 15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빈곤 인구의 75%이므로 전체 빈곤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 인구에서 제도 수급자는 80%이므로 빈곤 인구 (가) 또는 (나) 수급자는 16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빈곤 인구에서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50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별/빈곤 여부별 (가), (나)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20년	
	전체 인구	빈곤 인구	전체 인구	빈곤 인구
(가) 수급자	12	12	15	15
(나) 수급자	73	16	90	1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0	10	9	9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16, 그렇지 않은 공공 부조의 t+20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는 15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값은 90, ㉡에 들어갈 값은 50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 ③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t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는 65,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7으로 전자는 후자의 10배보다 많지 않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6, t년 전체 인구 중복 수급자 수는 1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⑤ 빈곤 인구 비(非)수급자 수는 t+20년이 4, t년이 2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243 정답: ③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가) 또는 (나) 수급자 중 (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80%, B 지역이 75%이고 갑국 전체가 78%이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 또는 (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1.5배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자를 300명, 후자를 200명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A 지역의 (나) 수급자 수는 240명, B 지역의 (나) 수급자 수는 15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A 지역의 (가) 수급자 중 (나) 수급자 비율은 40%이므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3a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2a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40-2a)명이고, (가) 또는 (나) 수급자 수는 (3a+240)명=300명이므로 a=2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60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40명,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 지역에서 전체 인구 대비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이므로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4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중 (나) 수급자 비율은 45%이므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11b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9b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390-9b)명이고, (가) 또는 (나) 수급자 수는 (11b+390)명=500명이므로 b=1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 전체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110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90명,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3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국 전체에서 전체 인구 대비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이므로 갑국 전체 인구는 9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는 A 지역이 400명, 갑국 전체가 900명이므로 B 지역이 500명이고,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60명, 갑국 전체가 110명이므로 B 지역이 50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40명, 갑국 전체가 90명이므로 B 지역이 50명,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200명, 갑국 전체가 300명이므로 B 지역이 100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전체 인구,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60명	50명	110명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200명	100명	300명
(가)와 (나) 중복 수급자	40명	50명	90명
전체 인구	400명	500명	900명

③ 전체 인구 대비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가 (390명/900명)×100%=약 43%, B 지역이 (150명/500명)×100%=30%로 전자가 후자보다 높다.

오답 풀이

- ① B 지역의 (가) 수급자 중 (나) 수급자 비율은 (50명/100명)×100%=50%이므로 ㉠에 들어갈 값은 50이다.
- ②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150명,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10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자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40명/240명)×100%=약 17%, B 지역이 (50명/150명)×100%=약 33%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⑤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

의 비(非)수급자 수는 B 지역이 300명, A 지역이 10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다.

244 정답: ①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다.  
비(非)수혜자 수는 3중 수혜자 수와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전체 인구의 a%로 둔다면, A와 B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6%이므로 A와 B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6-a)%, B와 C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8%이므로 B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8-a)%, A와 C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5%이므로 A와 C에만 해당하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5-a)%이다.  
이때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를 전체 인구의 b%로 둔다면, A와 B 제도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80%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1+2a-b)%가 되며, B와 C 제도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70%이므로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b-10)%가 된다. 이때 A와 C 제도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9%이므로 (49-2a+2b-10)%=59%, -a+b=1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인구 비율은 (a+b-10+80)%=100%이므로 a+b=30이다. 이에 따라 a=20, b=1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둔 뒤 갑국의 A~C 수혜자 또는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명)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0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1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0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
3중 수혜자	10
비(非)수혜자	10

- ①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20명,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1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 오답 풀이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31명,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33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③ 중복 수혜자 수는 29명, 비(非)수혜자 수는 1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 이상이 아니다.
- ④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41명,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33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 ⑤ 한 가지 제도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61명,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55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245 정답: ③

A는 사회 서비스,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t년의 3중 수혜자를 전체 인구의 a%로 둔다면 A, B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0%, B, C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9%, A, C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6%이므로 A, B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0-a)%, B,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9-a)%, A,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6-a)%이다. 또한 A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35%, B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3%, C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1%이므로 A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9+a)%, B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4+a)%,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26+a)%이다. 따라서 A~C 중 하나라도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74+a)%이고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74+a)=80, a=6인 것을 알 수 있다.

t+20년의 3중 수혜자를 전체 인구의 b%로 둔다면 A, B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2%, B, C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2%, A, C 중복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1%이므로 A, B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2-b)%, B,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2-b)%, A,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1-b)%이다. 또한 A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37%, B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 C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4%이므로 A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4+b)%, B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b)%, C만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31+b)%이다. 따라서 A~C 중 하나라도 수혜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86+b)%이고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86+b)=90, b=4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非)수혜자의 수는 t년과 t+20년이 동일하므로 전체 인구는 t+20년이 t년의 2배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 t+20년의 전체 인구를 200명으로 둘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A~C 제도 수혜자와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20년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5명	36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0명	20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2명	70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명	16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명	16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0명	14명
3중 수혜자	6명	8명
비(非)수혜자	20명	20명

- ③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의 수는 t년이 23명, t+20년이 54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0.5배보다 적다.
- 오답 풀이
- ① t년에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35명, t+20년에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명으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 ② t+20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5%, t년에 공공 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3%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19명, t+20년이 38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보다 적지 않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13명, t+20년이 4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3배보다 적지 않다.

246 정답: ②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이다.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 전체 인구는 B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역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B 지역의 각 수급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 있다.

구분	A 지역	B 지역	합국
(가) 수급자	56	50	54
(나) 수급자	32	26	30
(다) 수급자	20	23	21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4	11	13
(나)와 (다) 중복 수급자	6	9	7
(가)와 (다) 중복 수급자	9	12	10

이때 (가)~(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므로 전자를 2a%, 후자를 a%로 둘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구하면 A 지역이 (9-a)%, B 지역이 (12-2a)%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인구는 A 지역이 18-2a, B 지역이 12-2a임을 알 수 있는데, (가),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므로 18-2a=2(12-2a)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3임을, 다히 말해 (가)~(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3%, B 지역이 6%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 B 지역의 (가)~(다) 수급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합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36	33	35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5	12	14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8	8	8
(가),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1	5	9
(나),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3	3	3
(가),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6	6	6
(가)~(다) 중복 수급자	3	6	4

또한 이를 바탕으로 A, B 지역의 (가)~(다) 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합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72	33	105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30	12	42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6	8	24
(가),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22	5	27
(나),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6	3	9
(가), (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2	6	18
(가)~(다) 중복 수급자	6	6	12

② (가)~(다) 중 두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40, B 지역이 14로 전자는 후자의 3배보다 적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16, B 지역이 8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가)~(다) 모두의 비(非)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27%, A 지역이 18%로 전자는 후자의 75%가 아니다.
- ④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26,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A 지역 수급자 수는 3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⑤ (가)~(다) 중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53%, A 지역이 59%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다.

247 정답: ④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t-20년 A 지역과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서로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이전 조사 연도 대비 A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은 t-10년이 20%, t년이 100%이므로 A 지역 전체 인구는 t-10년이 120, t년이 24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조사 연도 대비 B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은 t-10년이 -20%, t년이 50%이므로 B 지역 전체 인구는 t-10년이 80, t년이 1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의 원리를 적용하여 연도에 따른 A, B 지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20년	t-10년	t년
(가)	A 지역	8.0	7.5	9.2
	B 지역	7.2	8.0	8.6
	전체	7.6	7.7	9.0
(나)	A 지역	25.0	34.0	24.5
	B 지역	23.8	31.0	27.5
	전체	24.4	32.8	25.5

④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의 t-2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100×8.0%=8, t-10년 B 지역 수급자 수는 80×8.0%=6.4로 전자는 후자의 125%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240, t-10년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8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② A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이 120×34.0%=

40.8, t년이  $240 \times 24.5\% = 58.8$ 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③ B 지역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이전 조사 연도와  
의 수급자 비율 차이는 t년이 0.6%, t-10년이 0.8%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다.
- 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t-2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100 \times 25.0\% = 25$ ,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  
한 공공 부조의 t년 B 지역 수급자 수는  $120 \times 8.6\% = 10.32$   
로 전자는 후자의 2배를 초과한다.

248 정답: ④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 C는 사회 서비스이다.  
t년의 3중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이고, B와 C 중복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비율은 50%이므로 B와 C에만 해당하  
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  
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B와 C의 혜택만을 모두 받  
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4%이다. 따라서 t년의 C에만 해  
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임을 알 수 있다. 이때  
A와 B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수를 전체 인구의 a%로  
둔다면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0-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6-a)%가 된다.  
이에 따라 A~C 중 최소 하나의 혜택을 받는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96-a)%가 되는데, 비(非)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2%이므로 (96-a)%=88%, a=8임을 알 수 있다.  
t+50년의 3중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이고, B와 C  
중복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비율은 80%이므로 B와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B와 C의 혜택만을 모  
두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이다. 따라서 t년의 C에  
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5%임을 알 수 있다.  
이때 A와 B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수를 전체 인구의  
b%로 둔다면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8-b)%,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0-b)%가 된다. 이에 따라 A~C 중 최소 하나의 혜택을  
받는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04-b)%가 되는데, 비(非)수혜  
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이므로 (104-b)%=92%, b=12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국의 t년과 t+50년 전체 인구는 동일  
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  
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A~C 제도 수혜자와 비  
(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명	16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8명	48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명	5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명	12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명	1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명	6명
3중 수혜자	5명	4명
비(非)수혜자	12명	8명

- ④ 중복 수혜자 중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14명, t+50  
년이 11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t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48명,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6명으로 전자는 후자  
의 4배가 아니다.
- ② t+50년에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16명, 중  
복 수혜자 중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22명으  
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 ③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의 수는 t년이 22명, t+20년이  
23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17명, t+50년이 22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249 정답: ①

갑국의 t년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는 1이  
므로 하층 인구 비율을 10a%, 상층 인구 비율을 10a%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층 인구 비율은 (100-20a)%가 된다.  
이때 t년 (나) 제도 수급자 비율에서  $10a\% \times 14\% + (100-20a)\%$   
 $\times 8\% + 10a\% \times 12\% = 100\% \times 11\%$ 가 된다. 따라서  $1.4a\% +$   
 $(8-1.6a)\% + 1.2a\% = 11\%$ ,  $a\% = 3\%$ 가 된다. 이에 따라  $a=3$ 임  
을 알 수 있고, 갑국의 t년 하층 인구 비율은 30%, 상층 인  
구 비율은 30%, 중층 인구 비율은 40%인 것을 알 수 있다.  
갑국의 t+10년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는  
0.5이므로 하층 인구 비율을 20b%, 상층 인구 비율을  
10b%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층 인구 비율은  
(100-30b)%가 된다. 이때 t+10년 (가) 제도 수급자 비율에  
서  $10b\% \times 34\% + (100-30b)\% \times 35\% + 20b\% \times 38\% = 100\% \times 36\%$   
 $6\%$ 가 된다. 따라서  $3.4b\% + (35-10.5b)\% + 7.6b\% = 36\%$ ,  
 $0.5b\% = 1\%$ 가 된다. 이에 따라  $b=2$ 임을 알 수 있고, 갑국의  
t+10년 하층 인구 비율은 40%, 상층 인구 비율은 20%, 중  
층 인구 비율은 4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과 t+10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서로 같으므로 해당 인  
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t년 갑국의 하층 인  
구는 30, 중층 인구는 40, 상층 인구는 30인 것을, t+10년  
갑국의 하층 인구는 40, 중층 인구는 40, 상층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갑국의 t년 (가) 제도 수급자 비율에서  $29\% \times 30 + \textcircled{+}\% \times 40 + 35\%$   
 $\times 30 = 32\% \times 100$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8.7 + 0.4\textcircled{+} + 10.5 = 32$ 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0.4\textcircled{+} = 12.8$ ,  $\textcircled{+} = 32$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20년 (나) 제도 수급자 비율에서  
 $11\% \times 40 + \textcircled{+}\% \times 40 + 9\% \times 20 = 11\% \times 100$ 인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4.4 + 0.4\textcircled{+} + 1.8 = 11$ 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0.4\textcircled{+} = 4.8$ ,  $\textcircled{+} = 12$ 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상~하층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구분	t년	t+10년
상층 인구	30	20
중층 인구	40	40
하층 인구	30	40

또한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상~하층 (가), (나) 제도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가) 제도	(나) 제도	(가) 제도	(나) 제도
상층 인구	10.5	4.2	6.8	1.8
중층 인구	12.8	3.2	14	4.8
하층 인구	8.7	3.6	15.2	4.4

- ① ㉠에 들어갈 값은 32, ㉡에 들어갈 값은 12로 전자는 후자의 3배보다 작다.  
오답 풀이
- ② t년 중층 인구는 40, t+10년 상층 인구는 2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년 상층 인구 중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10.5, t+10년 하층 인구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4.4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다.
- ④ t+10년 상층 인구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의 수급자 수는 1.8, 전체 인구 중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 수는 36으로 전자는 후자의 12%가 아니다.
- ⑤ 중층 인구 중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는 t년이 12.8, t+10년이 14로 후자는 전자보다 많다.

### 250 정답: ①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다.  
t년의 A, B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60%이므로 3중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6a%,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4a%로 둘 수 있다. 이때 B,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30%이므로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a%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50%인데, 이에 따라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a%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이므로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16a)%임을,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24a)%임을,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1%이므로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1-26a)%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중 최소 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25-36a)%임을 알 수 있는데, 비(非)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이므로 (125-36a)%=89%, a=1임을 알 수 있다.

t+50년의 A, B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40%이므로 3중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4b%,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6b%로 둘 수 있다. 이때 B,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20%이므로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b%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 C 중복 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 비율은 50%인데, 이에 따라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b%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이므로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14b)%임을,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6%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6-26b)%임을,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이므로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24b)%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중 최소 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24-34b)%임을 알 수 있는데, 비(非)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124-34b)%=90%, b=1임을 알 수 있다. 이때 3중 수혜자의 수는 t년과 t+50년이 같으므로 t+50년 전체 인구는 t년 전체 인구의 1.5배이며, 이에 따라 t년 전체 인구를 200명, t+50년 전체 인구를 300명으로 둘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A~C 제도 수혜자와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4명	30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4명	120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0명	30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명	18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8명	48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2명	12명
3중 수혜자	12명	12명
비(非)수혜자	22명	30명

- 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년이 30명, t+50년이 3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50년이 120명, t년이 64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상이 아니다.
- ③ 3중 수혜자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6%, t+50년이 전체 인구의 4%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16%, t+50년이 전체 인구의 14%로 후자는 전자보다 높지 않다.
- ⑤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48명, t+50년이 78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1.5배 이하가 아니다.

### 251 정답: ①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 C는 사회 서비스이다.  
갑국의 t+3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며, 3중 수혜자의 수는 t+30년이 전체 인구의 4%로 t년의 2배이므로 t년의 3중 수혜자의 수 역시 전체 인구의 4%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에 A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8%,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7%이고 A 또는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3%

이므로 A와 B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8+67-83)\% = 12\%$ 이다. 이에 따라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7%,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7%이고 B 또는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0%이므로 B와 C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7+27-80)\% = 14\%$ 이다. 이에 따라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7%, A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8%이고 A 또는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46%이므로 A와 C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27+28-46)\% = 9\%$ 이다. 이에 따라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5%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1%,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45%,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임을, 그리고 비(非)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9%임을 알 수 있다.

t+30년에 A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1%,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0%이고 A 또는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1%이므로 A와 B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1+60-81)\% = 10\%$ 이다. 이에 따라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0%,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5%이고 B 또는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79%이므로 B와 C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60+35-79)\% = 16\%$ 이다. 이에 따라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2%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5%, A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1%이고 A 또는 C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55%이므로 A와 C 중복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5+31-55)\% = 11\%$ 이다. 이에 따라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7%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4%,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38%,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2%임을, 그리고 비(非)수혜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7%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3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므로 t+30년 전체 인구를 200명, t년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A~C 수혜자 또는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1명	28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5명	76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명	24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8명	12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0명	24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명	14명
3중 수혜자	4명	8명
비(非)수혜자	9명	14명

①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t+30년이 44명, t년이 22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②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t년이 17명, t+30년이 34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수는 t년이 8명, t+30년이 24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t년이 전체 20대 청년 실업자 인구의 12%, t+30년이 전체 20대 청년 실업자 인구의 10%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지 않다.
- ⑤ 전체 20대 청년 실업자 인구 중 비(非)수혜자 비율은 t년이 9%, t+30년이 7%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52 정답: ⑤

A는 사회 보험, B는 사회 서비스, C는 공공 부조이다. t년에 A 또는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9%, B 또는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 A 또는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2 \times (A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B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C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text{전체 인구의 } 158\%$ 이다. 따라서  $A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B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C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text{전체 인구의 } 79\%$ 이고,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A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년의 비(非)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50%이므로 비(非)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2a%, 3중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a%로 둘 수 있으며, A와 B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b%, B와 C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c%, A와 C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d%로 둘 수 있다. 이때 A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3a+b+c+d)\% = 21\%$ 이며,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a+b+d)\% = 10\%$ ,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7%이므로  $(a+b+c)\% = 8\%$ ,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이므로  $(a+c+d)\% = 9\%$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3a+2b+2c+2d)\% = 27\%$ 이며,  $(3a+b+c+d)\% = 21\%$ 이므로  $(b+c+d)\% = 6\%$ 이다. 따라서 a=5, b=2, c=1, d=3인 것을 알 수 있다.

t+10년에 A 또는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70%, B 또는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2%, A 또는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이므로  $2 \times (A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B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C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text{전체 인구의 } 160\%$ 이다. 따라서  $A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B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C \text{ 단독 수혜자 비율} = \text{전체 인구의 } 80\%$ 이고,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A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8%,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10년의 비(非)수혜자 대비 3중 수혜자의 비율은 100%이므로 비(非)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e%,

3중 수혜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e%로 둘 수 있으며, A와 B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f%, B와 C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g%, A와 C의 중복 수혜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h%로 둘 수 있다. 이때 A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8%, B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 C 단독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2e+f+g+h)\%=20\%$ 이며,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e+f+h)\%=12\%$ ,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이므로  $(e+f+g)\%=12\%$ ,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e+g+h)\%=10\%$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3e+2f+2g+2h)\%=34\%$ 이며,  $(2e+f+g+h)\%=20\%$ 이므로  $(e+f+g+h)\%=14\%$ 이다. 따라서  $g=2, h=2, f=4, e=6$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국의 t년과 t+10년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둔 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A~C 수혜자 또는 비(非)수혜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0명	48명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9명	22명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0명	10명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2명	4명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명	2명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명	2명
3중 수혜자	5명	6명
비(非)수혜자	10명	6명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과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년이 7명, t+10년이 10명으로 후자는 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t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50명이고, 전체 수혜자 수는 90명이므로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수혜자 수의 50%가 아니다.
- ② t+10년에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22명,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1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수혜자 수는 t년이 10명, t+10년이 12명으로 후자는 전자보다 적지 않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t년이 8명, t+10년이 12명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253 정답: ①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은 진화론이다.

- ㄱ. 진화론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ㄴ.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이다.

254 정답: ⑤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ㄷ.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ㄹ.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풀이

- ㄱ.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다.

255 정답: ④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회 변동 이론은 진화론이다.

- ㄴ. 진화론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ㄹ. 진화론은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ㄱ. 운명론적 관점에 입각해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이다.
- ㄷ.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다.

256 정답: ④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ㄴ.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ㄹ. 순환론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고 한다.

오답 풀이

- ㄱ.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ㄷ.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257 정답: 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ㄷ. 순환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ㄹ.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ㄱ.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ㄴ.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다.

258 정답: ②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진화론이다.

- ㄷ. 진화론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ㄹ. 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ㄱ.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이다.
- ㄴ. 사회 변동이 언제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다.

259 정답: ④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ㄴ. 순환론은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 ㄹ. 순환론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오답 풀이

- ㄱ.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진화론이다.
- ㄷ.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진화론이다.

260 정답: ⑤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이다.

- ⑤ (나)에는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 '예'로 답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는 이에 해당하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이다.
- ②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다.
- ③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 뿐이다.
- ④ (가)에는 순환론만 '예'로 답변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는 진화론만 '예'로 답변할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61 정답: ①

학생의 첫 번째 서술과 두 번째 서술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때 B가 순환론이라면 채점 결과가 2점이라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이고, (가)에는 진화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 ㄱ.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ㄴ.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을 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뿐이다.
- ㄹ. '홍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진화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순환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62 정답: ②

A에 대해 조사한 첫 번째 특징은 순환론, 두 번째 특징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그리고 B에 대해 조사한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모두 진화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이때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이라면 B에서 다른 특징의 주장이 한 가지 존재한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이고, (가)에는 순환론, (나)에도 순환론에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 ㄴ.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모든 사회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 아닌 진화론의 특징이다.
- ㄷ.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63 정답: ①

첫 번째 특징은 진화론, 두 번째 특징은 진화론과 순환론의 특징이다. 따라서 같은 두 번째 특징에 대해 틀리게 분류하였고, 다른 모든 특징에 대해 옳게 분류하였다. 따라서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이다. 이때 옳은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옳게 분류하였으므로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옳지 않게 분류하였다. 따라서 (가)에는 순환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 ①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답 풀이

- ②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③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순환론이다.
- ④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뿐이다.
- ⑤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순환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64 정답: ②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이라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옳이 3점을 얻은 데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이다.

이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모두 '예'가 되고, 이에 따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 된다.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옳은 답변이 되어야 하고, (가)에는 옳은 답변이 '예'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은 답변이다. 그리고 갑은 2점을 얻었으므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갑은 옳은 답변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 ㄱ.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 ㄷ. ㉠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오답 풀이

- ㄴ.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이다.
- ㄹ. 'A는 B와 달리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가?'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65 정답: ②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ㄷ.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풀이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ㄹ.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266 정답: ③

'A는 B와 달리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이고, 이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다.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이 '아니요'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이다.

- ㄱ.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ㄷ. ㉠에 '1점'이 들어간다면, (가)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이 '아니요'가 되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옳은 대답은 '예'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ㄴ.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옳은 대답은 '아니요'이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1점'이다.

267 정답: ①

A는 (가)에 대해 '예'로 답변했는데, A의 답변 '아니요'의 개수는 2개이다. 따라서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와 (나)에 대한 A의 답변은 '아니요'이고,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B의 답변은 '예'이다.

ㄱ.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운명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오답 풀이

ㄴ.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순환론과 진화론의 답변은 모두 '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질문 (가)에 대한 B의 답변이 '예'이고 ㉠에 '1개'가 들어간다면 (나)에 대한 B의 답변은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나)에는 A와 B의 답변이 모두 '아니요'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가?'에 대한 A의 답변은 '예'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268 정답: ②

② ㉠은 '부패 척결'이라는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사회 운동이 아니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에는 해당한다.

③ ㉠은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다수의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은 ㉠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269 정답: ④

④ (나)에는 (가)와 달리 '농민'이라는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다수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는 농민 단체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이 나타난다.

③ (가)에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 (나)에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70 정답: ②

ㄱ. ㉠은 ㉡과 달리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영위에 초점을 맞춘 사회 운동이다.

ㄷ. ㉠은 ㉠과 달리 흑인이라는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운동이다.

오답 풀이

ㄴ. ㉠과 ㉠은 모두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과 ㉠은 모두 사회 체계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71 정답: ③

③ 다음 글의 필자는 사회 운동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불평등,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단적 행동에 나서며, 그들은 스스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운동은 권력이나 제도적 지시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닌, 정확히 그 반대의 것이라는 언급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다.'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음 글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의 기존 권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다음 글에서는 사회 운동의 참여자들이 사회의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단적 행동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글의 필자가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문제 의식이 있다.'를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다음 글에서는 사회 운동이 일정한 네트워크와 조직 구조를 통해 행동을 조율하는 것과 관련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다음 글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과 관련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후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글의 필자가 '기존 사회 질서나 제도, 가치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를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72 정답: ④

ㄴ. ㉠은 흑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권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ㄹ. ㉠은 ㉠과 달리 한 흑인이 체포된 특정 사건이 발단으로 작용해 시작된 사회 운동이다.

오답 풀이

ㄱ. ㉠은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ㄷ. ㉠과 ㉠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다.

273 정답: ②

- ㄱ. A는 사회 구성원, 즉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 ㄴ. C는 난민을 수용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한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ㄴ. B는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으로 진행된 행동이므로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D는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74 정답: ②**

- ② ㉞은 기업인이라는 지위를 가질 것을 예상하며 갑이 수행한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㉞은 갑의 어머니의 성취 지위이나, ㉞은 갑의 성취 지위가 아니다.
- ③ ㉞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㉞은 '갑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 ④ ㉞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㉞이 ㉜을 통해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맞으나, ㉞이 처음부터 ㉜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

**275 정답: ①**

A는 '사회 운동'이다. 첫 번째 답안은 맞는, 두 번째 답안은 맞는, 세 번째 답안은 틀린 내용이므로 채점 결과는 2점 이상 3점 이하이다.

ㄱ. 20세기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ㄴ.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지만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3점'이다.
- ㄷ. ㉠에 '3점'이 들어간다면, (가)에는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 거리 응원을 예시로 들 수 있다.'는 틀린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76 정답: ⑤**

- ⑤ E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행정소송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A,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구직 측면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이 아닌, 취업 이후 직장 생활 측면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 ② (나)에 나타난 사례는 다수의 사람들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점에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A와 D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A가 자국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에 입사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 ④ B는 성소수자 출신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으나, C는 이주 노동자라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277 정답: ③**

- ③ ㉞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다.

오답 풀이

- ① ㉞은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② ㉞에서 희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문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㉞은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없다.
- ④ ㉞은 ○○ 글로벌 식품 기업이 이미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 글로벌 식품 기업의 역할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㉞에는 특정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지구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양상이 나타나 있고, 이에 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특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없다.

**278 정답: ①**

- ① ㉞에는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 다국적 기업 하청 공장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진'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정보 사회에서 주로 활용되는 매체인 SNS로 인해 부조리한 현실이 알려진 것에 해당하므로 ㉞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㉞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급진적 혁명 운동에 해당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③ ㉞은 그 자체로 산업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직 운영 방식인 관료제의 역기능인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관료제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④ ㉞은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저항하기 위한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⑤ ㉞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므로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279 정답: ⑤**

-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다.
- ⑤ (가)에는 산업 사회에서 정도가 강하고 정보 사회에서 정도가 약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산업 사회에서 정도가 약하고 정보 사회에서

정도가 강한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구성원 간 대면 접촉 비중이 낮다.
- ②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불명확하다.
- ③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낮다.
- ④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낮다.

280 정답: ②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 ㄱ.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
- ㄷ. 산업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 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오답 풀이

- ㄴ.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이 높다.
- ㄹ. 정보 사회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81 정답: ②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 ②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시민의 정치 참여 경로가 다양하다.

오답 풀이

- ①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낮다.
- ③ 산업 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정보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지배적이다.
- ④ (가)에는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산업 사회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나)에는 정보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직업의 동질성'은 정보 사회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282 정답: ④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인 경우 갑, 병은 비교 기준을 옳지 않게 제시한 학생이 되어 비교 기준을 옳게 제시한 학생이 옳지 않게 제시한 학생보다 많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고, 옳지 않게 제시한 학생은 을이며,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ㄱ. ㉠은 '을'이다.

- ㄴ.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이 높다.
- ㄷ.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다양성이 크다.

오답 풀이

- ㄹ.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는 옳은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83 정답: ②

A에서는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므로 A는 정보 사회이며, B에서는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므로 B는 산업 사회이다.

- ㄱ.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다양성이 크다.
- ㄷ.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보다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작다.

오답 풀이

- ㄴ.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낮다.
- ㄹ.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느리다.

284 정답: ②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높다. 그리고  $A > B$  구분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므로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이때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높다. 따라서  $A < B$  구분에 대한 채점 결과는 1점 이상 2점 이하이다.

- ㄱ.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낮다.
- ㄷ. 다품종 소량 생산 정도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높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오답 풀이

- 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불명확 정도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높다. 그리고 (나)에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ㄹ. ㉠에 '1점'이 들어간다면 (가)에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면대면 접촉 빈도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85 정답: ⑤

기준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은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대한 비교 결과는  $A < B$ 이나, 이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다. 따라서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 ㄱ.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강하다.
- ㄴ. (가)에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 들어가야 채점 결과가 '1점'이 된다. 그러나 '탈관

료제 조직의 비중은 산업 사회보다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0점'이다.

- ㉡. ㉠에 '1점'이 들어간다면, (가)에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산업 사회보다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286 정답: ㉠

문항 1의 첫 번째 서술은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문항 2의 첫 번째 서술은 산업 사회보다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A가 산업 사회, B가 정보 사회라면 ㉠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라면 ㉠은 최소 2점에서 최대 4점이다.

- ㉡. ㉠에 '0점'이 들어간다면,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오답 풀이

- ㉢. (가)에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지식 산업 정보의 비중'이 들어가고 (나)에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들어간다면, A, B가 산업 사회 또는 정보 사회 중 무엇이건 간에 ㉠에 들어갈 것은 2점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면 '4점'은 ㉠에 들어갈 수 없다.

- ㉣. ㉠에 2점이 들어간다면, A, B가 산업 사회 또는 정보 사회 중 무엇이건 간에 (가)에는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고 (나)에는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은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87 정답: ㉢

A가 산업 사회, B가 정보 사회인 경우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	○
두 번째 질문	○	×
세 번째 질문	?	○
네 번째 질문	?	?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인 경우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	×
두 번째 질문	×	○
세 번째 질문	?	×
네 번째 질문	?	?

- ㉡.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라면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응답은 옳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응답은 옳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가 낮으므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오'이다. 따라서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라면, ㉠에 들어갈 것은 '아니오'이다.

- ㉣.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A가 산업 사회, B가 정보 사회인 경우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	○
두 번째 질문	○	×
세 번째 질문	?	○
네 번째 질문	×	○

그리고 이 경우 옳은 응답의 개수는 갑이 을보다 많을 수 없다. 따라서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고,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	×
두 번째 질문	×	○
세 번째 질문	?	×
네 번째 질문	○	×

이에 따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응답은 옳아야 한다. 그리고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활용 정도가 낮으므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오'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아니오'이다.

오답 풀이

- ㉢.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의 2배라면 A가 산업 사회, B가 정보 사회인 경우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	○
두 번째 질문	○	×
세 번째 질문	○	○
네 번째 질문	○	×

이에 따라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오'가 되어야 하는데,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에 대한 옳은 응답은 '예'이므로 A가 산업 사회, B가 정보 사회인 경우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반면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인 경우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의 2배라면 각 질문에 대한 갑, 을의 응답의 정오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	을
첫 번째 질문	x	x
두 번째 질문	x	○
세 번째 질문	○	x
네 번째 질문	○	x

이때 ㉠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가 되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요'이므로 A가 정보 사회, B가 산업 사회인 경우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응답의 개수가 갑이 을의 2배이고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다.

288 정답: ③

〈1 모둠〉이 발표한 특징은 모두 정보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2 모둠〉이 발표한 특징은 모두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3 모둠〉이 발표한 특징은 모두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4 모둠〉이 발표한 특징은 한 개는 산업 사회에서, 한 개는 정보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5 모둠〉이 발표한 특징은 모두 산업 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 또는 산업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 중 홀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우를

1.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이 2개, 산업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이 1개
2.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이 6개, 산업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이 3개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1번 경우에서 〈4 모둠〉은 산업 사회, 〈1 모둠〉은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것이 되는데, 이때 〈2 모둠〉, 〈3 모둠〉, 〈5 모둠〉이 어떤 것을 배정받느냐에 상관없이 정보 사회를 배정받은 모둠이 옳지 않게 발표한 특징의 개수는 4개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경우이다.

이에 따라 〈1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 〈2 모둠〉과 〈3 모둠〉, 〈5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 〈4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임을 알 수 있다.

③ 〈3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오답 풀이

- ① 〈1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이다.
- ② 〈2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 ④ 〈4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산업 사회이다.
- ⑤ 〈5 모둠〉이 배정받은 것은 정보 사회이다.

289 정답: ④

④ 다음 글의 필자는 각 나라가 자신이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 인류는 유한한 능력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가 가진 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적 특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해진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② 다음 글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③ 다음 글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⑤ 다음 글에서는 국가 간 무역 충돌 가능성의 감소와 평화 유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290 정답: ④

④ (가)에서는 A국의 행동이 B국과 C국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D국의 행동이 F국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 (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국가, 집단의 행동이 다른 국가,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② (가)에서는 'A국', (나)에서는 'D국'이라는 문제 유발의 당사자에 대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해당 국가들이 유발한 문제에 대해 '책임은 지는' 당사자에 대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있어 국제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291 정답: ③

③ 다음 글에서 필자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선진국들에게 원인이 할당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당사자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임과 피해의 영역에서 불균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 필자는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던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 오고, 자원을 과잉 소비하여 지구 환경을 훼손한 데에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글의 필자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를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다음 글에서 필자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드러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다음 글에서 필자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협력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드러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다음 글에서 필자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어 단일 해결책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특징이 드러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92 정답: ④

- ④ 다음 글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당사자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활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조정'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와 소비 체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다음 글에서는 지구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의 수립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를 이미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 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당사자에 대해서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⑤ 다음 글에서는 문제 대응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마련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293 정답: ④

t+1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3배인 것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B가 노년 인구, C가 유소년 인구인 경우가 유일하다. 따라서 A는 부양 인구이다.

t년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t년 대비 전체 인구 상승률은 t+10년이 50%, t+20년이 100%이므로 t+10년 전체 인구는 150, t+20년 전체 인구는 20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노년 인구	10	30	50
부양 인구	60	90	110
유소년 인구	30	30	40
전체 인구	100	150	200

- ④ 노령화 지수는 t년이 100/3, t+10년이 100, t+20년이 125로 t년과 t+10년의 합이 t+20년보다 크다.

오답 풀이

- ① A는 부양 인구이나, B는 노년 인구이다.

- ② t+20년 유소년 인구는 40, t년 노년 인구는 1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노년 부양비는 t+20년이 500/11, t년이 50/3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보다 크지 않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50, t+10년이 100/3, t+20년이 400/11으로 t+10년 대비 t+20년에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기간 동안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294 정답: ②

t년, t+10년, t+20년의 15~64세 인구를 각각 100a, 100b, 100c로 둘 수 있으며, 주어진 기간 동안 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a < b < c$ 로 둘 수 있다.

t년에 노년 부양비는 15이므로 65세 이상 인구는 15a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30이므로 0~14세 인구는 50a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10년에 노년 부양비는 27이므로 65세 이상 인구는 27b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45이므로 0~14세 인구는 60b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20년에 노년 부양비는 36이므로 65세 이상 인구는 36c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75이므로 0~14세 인구는 48c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65세 이상 인구	15a	27b	36c
15~64세 인구	100a	100b	100c
0~14세 인구	50a	60b	48c
전체 인구	165a	187b	184c

- 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약 9%, t+10년에 약 14%, t+20년에 약 19%이다. 따라서 t년은 고령화 사회, t+10년과 t+20년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ㄷ. 전체 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약 30%, t+20년이 약 26%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다.

오답 풀이

- ㄱ. 전체 인구는 t+10년이 187b, t+20년이 184c이다. 그러나  $b < c$ 이므로 전체 인구는 t+10년이 t+20년보다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ㄹ. t년 대비 t+1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27b-15a)/15a\} \times 100\%$ 이고, 0~14세 인구의 증가율은  $\{(60b-50a)/50a\} \times 100\%$ 이다. 그리고  $a=b$ 일 경우에 전자는 후자의 4배인데, 실제로는  $a < b$ 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295 정답: ①

t년에 비해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년 갑국의 전체 인구를 100명, t+50년 갑국의 전체 인구를 15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t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명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6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t년 노년 인구는 10명이다. t+50년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부양 인구는 90명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노년 인구는 45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t년 유소년 인구는 15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공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노년 인구	10명	45명
부양 인구	60명	90명
유소년 인구	30명	15명
전체 인구	100명	150명

① 유소년 인구는 t년이 30명, t+50년이 15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② 부양 인구는 t년이 60명, t+50년이 9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노년 인구는 t년이 10명, t+50년이 45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4배가 아니다.
-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이 40명, t+50년이 6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 ⑤ t+50년 유소년 부양비는 50/3, t년 노년 부양비는 50/3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296 정답: ①

갑국에서 t년 대비 t+10년에 부양 인구는 50% 증가했으므로 t년의 부양 인구를 100, t+10년의 부양 인구를 150으로 둘 수 있다. t년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125%이므로 t년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4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자를 40a, 후자를 10a로 둘 수 있다. 따라서 t년 총부양비는 50a가 되고, 이는 t+10년 총부양비의 75%이므로 t+10년 총부양비는 200a/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40a인데, 이는 t+10년의 노년 부양비와 같으므로 t+10년의 노년 인구는 60a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t+10년의 유소년 인구는 40a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10년 전체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의 500%인데, 전자는 150+100a, 후자는 40a이므로 150+100a=200a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1.5이고, t년 유소년 인구는 60, 노년 인구는 15, t+10년 유소년 인구는 60, 노년 인구는 9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공표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노년 인구	15	90
부양 인구	100	150
유소년 인구	60	60
전체 인구	175	300

① t년의 유소년 인구는 60, t+10년의 유소년 인구는 60으로 전자와 후자는 동일하다.

오답 풀이

② t년 대비 t+10년에 부양 인구는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인

- 구 증가율은 노년 부양비 증가율보다 크다.
- ③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이 30%, t년이 약 9%로 전자는 후자의 3배 이상이다.
- ④ t년 대비 t+1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100%, 부양 인구 증가율은 50%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 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10년이 t년보다 높으므로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의 문제는 t년보다 t+10년에 더 부각된다.

297 정답: ⑤

t년 대비 t+10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50%이므로 t년 전체 인구를 100명, t+100년 전체 인구를 150명으로 둘 수 있다. A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t년 대비 37.5% 감소하므로 50임을, 노령화 지수는 t년 대비 200% 증가하므로 75임을 알 수 있으며, B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t년 대비 75% 감소하므로 20임을, 노령화 지수는 t년 대비 1,500% 증가하므로 400임을 알 수 있다.

t년 유소년 부양비는 80이므로 부양 인구를 5a, 유소년 인구를 4a로 둘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25이므로 노년 인구는 a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5a+4a+a=100명으로, a=10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유소년 인구는 40명, 부양 인구는 50명, 노년 인구는 10명이다. A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를 2b, 유소년 인구를 b로 둘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75이므로 노년 인구는 0.75b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150명이므로 2b+b+0.75b=150명으로, b=40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유소년 인구는 40명, 부양 인구는 80명, 노년 인구는 30명이다. B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20이므로 부양 인구를 5c, 유소년 인구를 c로 둘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400이므로 노년 인구는 4c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150명이므로 5c+c+4c=150명으로, c=15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에서 유소년 인구는 15명, 부양 인구는 75명, 노년 인구는 60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 및 예측에 따른 연령별 인공표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현재)	A	B
노년 인구	10명	30명	60명
부양 인구	50명	80명	75명
유소년 인구	40명	40명	15명
전체 인구	100명	150명	150명

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가 40%, A가 20%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① 부양 인구는 현재가 50명, A가 8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1.5배가 아니다.
- ② 노년 인구는 현재가 10명, B가 6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5배가 아니다.
- ③ 노년 부양비는 현재가 20, A가 75/2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A가 70명, B가 7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298 정답: ①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1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했으므로 t+10년 갑국 전체 인구는 1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대비 t+10년에 을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10년 을국 전체 인구는 15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갑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노년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60이므로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을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이므로 노년 인구는 15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70이므로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35인 것을 알 수 있다.

t+10년 갑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이므로 노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60, 유소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10년 을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노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20이므로 부양 인구는 100, 유소년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20	15	30	30
부양 인구	50	50	60	100
유소년 인구	30	35	30	20
전체 인구	100	100	120	150

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30, t+10년 노년 인구는 3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② 노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40, t+10년 을국이 3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년 을국이 150, t년 갑국이 200/3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상이다.
- ④ 을국의 부양 인구는 t+10년이 100, t년이 50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⑤ 갑국의 t+10년 노년 부양비는 50,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는 약 43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지 않다.

299 정답: ②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t+10년 부양 인구의 80%이므로 전자를 8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갑국의 t년 총부양비는 100이므로 전체 인구는 160,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80임을 알 수 있고, t+10년 총부양비는 140이므로 전체 인구는 240,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14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인데,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비율의 25%이므로 12.5%이다. 따라서 t년 노인 인구는 10, 유

소년 인구는 7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비율은 t+1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37.5%이므로 t+1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3)%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10년 노인 인구는 80, 유소년 인구는 60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노년 인구	10	80
부양 인구	80	100
유소년 인구	70	60
전체 인구	160	240

② t년 부양 인구는 80, t+10년 노인 인구는 80으로 전자와 후자는 동일하다.

오답 풀이

- ① t년 대비 t+1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240-160)/160\} \times 100\% = 50\%$ 이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년이 400/3, t년이 100/7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④ t년 유소년 인구는 70, t+10년 유소년 인구는 6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 ⑤ t년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80, t+10년 부양 인구는 100으로 전자는 후자와 동일하지 않다.

300 정답: ⑤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50%이므로 t+50년 갑국 전체 인구는 150명, 을국이 100%이므로 t+50년 을국 전체 인구는 2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갑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므로 노년 인구는 15명이다. 이에 따라 부양 인구는  $(100-30-15)명 = 55명$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25명이며, 노령화 지수는 60이므로 노년 인구는 15명이다. 이에 따라 부양 인구는  $(100-25-15)명 = 66명$ 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갑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며, 노령화 지수는 100이므로 노년 인구는 30명이다. 이에 따라 부양 인구는  $(150-30-30)명 = 90명$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40명이며, 노령화 지수는 175이므로 노년 인구는 70명이다. 이에 따라 부양 인구는  $(200-40-70)명 = 99명$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15명	15명	30명	70명
부양 인구	55명	60명	90명	90명
유소년 인구	30명	25명	30명	40명
전체 인구	100명	100명	150명	200명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50년 갑국이 60명, t년 을국이 4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55명,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7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총부양비는 t년 갑국이 900/11, 을국이 200/3으로 t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50년 갑국이 200/3, 을국이 1100/9로 t+50년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③ t년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300/11, 을국이 25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 정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④ t+50년 부양 인구 비율은 갑국이 60%, 을국이 45%이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정도는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301 정답: ②

갑국의 t+50년 노년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의 2배이므로 전자를 100명, 후자를 5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년 노령화 지수는 60이므로 t년 노년 인구는 30명이며, t+50년 노령화 지수는 500이므로 t+50년 유소년 인구는 20명이다.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를 a명으로 둔다면 해당 연도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므로  $\{a/(80+a)\} \times 100\% = 60\%$ ,  $a=120$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국의 t+50년 부양 인구를 b명으로 둔다면 해당 연도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므로  $\{b/(120+b)\} \times 100\% = 60\%$ ,  $b=18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노년 인구	30명	100명
부양 인구	120명	180명
유소년 인구	50명	20명
전체 인구	200명	300명

②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50명, t+50년 유소년 인구는 20명이므로 t년 대비 t+5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60%이다.

오답 풀이

- ① 갑국의 t년 노년 인구는 30명, t+50년 노년 인구는 100명으로 t년 대비 t+5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100%가 아니다.
- ③ t년 노년 인구는 30명, t+50년 유소년 인구는 2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t년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5%, t+50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100/3)%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⑥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이 80명, t+50년이 120명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302 정답: ④

갑국의 t+50년과 t+100년 노년 인구는 t년의 3배이므로 전자를 30명, 후자를 1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50년이 20%로 t년의 2배, t+100년의 0.8배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10%, t+100년이 25%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t년이 100명, t+50년이 150명, t+100년이 12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유소년 부양비는 80으로 t+50년의 2.4배이므로 t+50년 유소년 부양비는 100/3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t년 유소년 인구는 40명, 부양 인구는 50명인 것을, t+50년 유소년 인구는 30명, 부양 인구는 9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인데, t+100년 노령화 지수는 t+50년의 3배이므로 30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t+100년 유소년 인구는 10명인 것을, 부양 인구는 8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t+100년
노년 인구	10명	30명	30명
부양 인구	50명	90명	80명
유소년 인구	40명	30명	10명
전체 인구	100명	150명	120명

④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40%, t+50년이 20%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유소년 인구는 40명, t+100년 노년 인구는 3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t+50년 부양 인구는 90명, t년 전체 인구는 10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100년 노년 부양비는 75/2, t+50년 유소년 부양비는 100/3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이 50명, t+50년이 60명, t+100년이 40명으로 t+50년이 t년과 t+100년보다 많다.

303 정답: ⑤

갑국의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인구는 모두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50%이므로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5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인구는 50인 것을, 그리고 t년 노령화 지수는 5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50년 전 대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t+50년, t+100년 모두 100%이므로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t+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00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t+50년의 노년 인구는 100, t+100년의 노년 인구는 20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50년과 t+100년 총부양비는 50으로 같으므로

t+50년 부양 인구는 400, t+100년 부양 인구는 60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t+50년과 t+100년 전체 인구의 합은 t년 전체 인구의 3배이므로 t년 전체 인구를 100a로 둔다면  $1,500=300a$ ,  $a=5$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전체 인구는 500인 것을, 부양 인구는 350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t+100년
노년 인구	50	100	200
부양 인구	350	400	600
유소년 인구	100	100	100
전체 인구	500	600	900

⑤ t+50년 대비 t+10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900-600)/600\} \times 100\% = 50\%$ ,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600-400)/400\} \times 100\% = 50\%$ 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t+100년 부양 인구는 600, t년 전체 인구는 50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 ② t년 노년 인구는 50, t+50년 유소년 인구는 10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100년 노년 부양비는 100/3, t년 총부양비는 300/7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지 않다.
- ④ t년과 t+50년 부양 인구의 합은 750, t+100년 전체 인구는 90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304 정답: ①

갑국의 t+40년의 부양 인구는 t년의 2배이므로 t년의 부양 인구를 100명, t+40년의 부양 인구를 20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이 50%이므로 갑국의 t년 전체 인구는 200명이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t+80년이 200으로 t년의 3배이므로 t년의 노령화 지수는 200/3이고, 이에 따라 t년의 유소년 인구를 3a, 노년 인구를 2a로 둘 수 있다. 그리고 t년의 전체 인구는 200명이므로  $100명+5a=200명$ ,  $a=20명$ 이므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60명, 노년 인구는 4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의 노년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50%인데, 이는 t+40년의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과 같으므로 t+40년의 유소년 인구를 2b, 노년 인구를 3b로 둘 수 있다. 이때 t+40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므로  $\{2b/(200명+5b)\} \times 100\% = 20\%$ ,  $b=20명$ 이다. 따라서 t+40년의 유소년 인구는 40명, 노년 인구는 6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의 노년 인구는 t+80년의 유소년 인구와 같으므로 t+80년 유소년 인구는 40명이고, t+80년의 노령화 지수는 200이므로 t+80년 노년 인구는 8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80년이 5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또는 노년 인구의 비율 역시 50%이고, 이에 따라 t+80년의 전체 인구는 240명, 부양 인구는 120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40년	t+80년
노년 인구	40명	60명	80명
부양 인구	100명	200명	120명
유소년 인구	60명	40명	40명
전체 인구	200명	300명	240명

①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이 100명, t+40년이 10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② t년의 부양 인구는 100명, t+80년의 노년 인구는 8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년의 노년 부양비는 40,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2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t+80년의 노년 부양비는 200/3,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6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30%, t+40년이 (40/3)%, t+80년이 (50/3)%로 주어진 연도 중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연도는 t+40년과 t+80년의 두 연도이다.

305 정답: ①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부양 인구 / 유소년 인구)이므로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이다. 따라서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2이므로 부양 인구는 60임을 알 수 있으며, 노년 인구는 10임을 알 수 있다.

을국의 t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8%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8임을 알 수 있으며,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4이므로 부양 인구는 7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인구는 10임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을국이 140%로 갑국의 0.7배이다. 따라서 갑국의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200%임을 알 수 있으며, 갑국의 t+20년 노년 인구는 30임을, 을국의 t+20년 노년 인구는 24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20년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3이므로 부양 인구를 3a, 유소년 인구를 a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갑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a/4a+30) \times 100\% = 20\%$ ,  $a=3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9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을국의 t+20년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7이므로 부양 인구를 7b, 유소년 인구를 b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을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이므로  $(b/8b+24) \times 100\% = 10\%$ ,  $b=12$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는 12, 부양 인구는 84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에 따른 연

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20년	t년	t+20년
노년 인구	10	30	10	24
부양 인구	60	90	72	84
유소년 인구	30	30	18	12
전체 인구	100	150	100	120

①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갑국이 40, t+20년 을국이 36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②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20년 갑국이 60%, t년 을국이 72%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다.
- ③ t년 대비 t+20년에 증가한 부양 인구는 갑국이 30, 을국이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유소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50, 을국이 25로 t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20년 갑국이 100/3, 을국이 100/7으로 t+20년에도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합은 t+20년 갑국이 120, t년 을국이 90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306 정답: ②

갑국과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t년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50명인 것을 알 수 있고, 을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므로 부양 인구는 4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의 비는 4:1인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4배이므로 전자를 4a명, 후자를 a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5a+50)명=100명, a=10이다. 또한 t년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의 비는 7:5인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1.4배이므로 전자를 7b명, 후자를 5b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12b+40)명=100명, b=5이다.

t년에 비해 t+5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는 80% 증가하였고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50명이므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90명이다. 또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므로 전체 인구를 c명으로 둔다면 (90/c)×100%=60%이므로 c=150이다. 또한 t+50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의 비는 1:3인데, 이에 따라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배이므로 전자를 3d명, 후자를 d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50명이므로 (4d+90)명=150명, d=15이다. 또한 t년에 비해 t+50년에 을국의 노년 인구는 100% 증가하였고 t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25명이므로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명이다. 또한 t+50년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의 비는 1:5인데, 이에 따라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5배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0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이므로 해당 인구를 e명으로 둔다면  $\frac{(10+50)}{(10+50+e)} \times 100\% = 50\%$ , e=60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10명	25명	45명	50명
부양 인구	50명	40명	90명	60명
유소년 인구	40명	35명	15명	10명
전체 인구	100명	100명	150명	120명

② t년 을국의 피부양 인구는 60명, t+50년 갑국의 피부양 인구는 6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40명,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80, t+50년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250/3d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t+50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 t년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75/2로 전자는 후자의 0.5배가 아니다.
- ⑤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t년 갑국이 40%, 을국이 35%로 t년에 갑국이 을국보다 높고, t+50년 갑국이 10%, 을국이 (25/3)%로 t+50년에도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307 정답: ③

갑국 부양 인구는 t+20년과 t+40년이 t년의 1.5배이므로 t년의 부양 인구를 100, t+20년과 t+40년의 부양 인구를 15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t년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50%이므로 해당 연도 전체 인구는 200인 것을, t+40년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50%이므로 해당 연도 전체 인구는 300인 것을 알 수 있다. t+20년 총부양비 대비 노년 부양비의 비는 1/2이므로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와 같은 것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t+20년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므로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도 2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20년 전체 인구는 250,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5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총부양비 대비 노년 부양비의 비는 3/10이므로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의 7/3배인 것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7/3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10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70, 노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t+40년 총부양비 대비 노년 부양비의 비는 3/5이므로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의 2/3배인 것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2/3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40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15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60, 노년 인구는 9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20년	t+40년
노년 인구	30	50	90
부양 인구	100	150	150
유소년 인구	70	50	60
전체 인구	200	250	300

t년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15%이므로 ㉠은 15, t+20년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므로 ㉡은 60, t+40년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30%이므로 ㉢은 30인 것을 알 수 있다.

③ 노년 부양비는 t년이 30, t+20년이 100/3이고 t+40년이 60이므로 t년과 t+20년의 합은 t+40년보다 크다.

오답 풀이

- ① ㉠과 ㉡의 합은 45, ㉡은 6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지 않다.
- ② t년 전체 인구는 200, t+20년 전체 인구는 25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④ t+40년의 노년 인구는 90, t년의 부양 인구는 10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⑤ t+2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3,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40이고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70이다. 따라서 t+20년과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의 합은 t년의 유소년 부양비보다 크다.

308 정답: ②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갑국이 20%이므로 t년 갑국의 전체 인구를 100a, 노년 인구를 20a로 둘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10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20a, 부양 인구는 60a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20%이므로 t년 을국의 전체 인구를 100b, 노년 인구를 20b로 둘 수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을국의 1.5배이고 갑국이 100이므로 을국이 200/3이며, 이에 따라 t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30a, 부양 인구는 50a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20년에 갑국의 총부양비는 변하지 않으므로 t+2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60a이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므로 t+20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20a 초과이다. 이에 따라 t+20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20a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감소하므로 t+2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50b 초과이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t+2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30b이다. 이에 따라 t+2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20b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20a	20b	20a 미만	20b 미만
부양 인구	60a	50b	60a	50b 초과
유소년 인구	20a	30b	20a 초과	30b
전체 인구	100a	100b	100a	100b

② t+2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20a를 초과하고, 노년 인구는 20a 미만이다. 따라서 t+20년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20a 미만/20a 초과)×100=100 미만이므로 100보다 작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100/3이고, 을국이 60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t+20년에 을국의 부양 인구는 50b를 초과하고, 노년 인구는 20b 미만이다. 따라서 t+20년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20b 미만/50b 초과)×100=40 미만이므로 40보다 작을 것이다.
- ④ t년 대비 t+20년에 갑국의 노년 인구는 감소하고, 을국의 노년 인구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2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약해질 것이다.
- ⑤ t년 대비 t+2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는 변화가 없고, 을국의 부양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2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은 갑국에서는 차이가 없고, 을국에서는 강해질 것이다.

309 정답: ④

갑국의 t+50년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의 100%이므로 t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명,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을국이 50%이므로 t+50년 을국의 전체 인구는 150명임을 알 수 있다. t년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25이므로 노년 인구를 a명, 유소년 인구를 4a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노년 부양비는 20이므로 부양 인구는 5a명이다. 또한 전체 인구는 50명이므로 (a+4a+5a)명=50명, a=5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50년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100이므로 노년 인구를 b명, 유소년 인구를 b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노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2b명이다. 또한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b+b+2b)명=100명, b=25임을 알 수 있다.

t년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므로 노년 인구를 3c명, 유소년 인구를 5c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노년 부양비는 25이므로 부양 인구는 12c명이다. 또한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3c+5c+12c)명=100명, c=5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50년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300이므로 노년 인구를 3d명, 유소년 인구를 d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노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6d명이다. 또한 전체 인구는 150명이므로 (3d+d+6d)명=150명, d=15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5명	25명	15명	45명
부양 인구	25명	50명	60명	90명
유소년 인구	20명	25명	25명	15명
전체 인구	50명	100명	100명	150명

④ 갑국의 t년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이고,

t+50년 부양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이다. 따라서 ㉠에 따르면, 갑국은 t년에 비해 t+5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이 강화된다.

오답 풀이

- 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20명, t+50년 노년 인구는 2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을국의 t년 부양 인구는 50명, t+50년 유소년 인구는 15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80, t년 을국이 125/3으로 t년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50년 갑국이 50, t+50년 을국이 50/3으로 t+50년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을국의 t년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이고, t+50년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이다. 따라서 ㉠에 따르면, 을국은 t년에 비해 t+5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증가한다.

**310 정답: ④**

갑국에서 부양 인구는 t+50년이 t+100년의 1.5배이므로 전자를 90명, 후자를 60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50, t+100년이 25이므로 t+50년의 유소년 인구는 45명,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15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이 20%로 t+50년의 2배이나 t+50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10%이고, 이에 따라 t+50년의 노년 인구를 a명으로 둔다면  $\frac{a}{a+(a+135)} \times 100\% = 10\%$ 이므로 a=15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t+50년이 60%인데, 해당 비율은 t+100년의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100년의 전체 인구는 120명, 노년 인구는 45명임을 알 수 있다.

노년 인구는 t+50년이 t년의 75%이므로 t년의 노년 인구는 20명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유소년 부양비는 60이므로 부양 인구를 50b명, 유소년 인구를 30b명으로 둘 수 있다. 이때 t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frac{20}{20+80b} \times 100\% = 20\%$ , b=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50명,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갑국의 연령별 인구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t+100년
노년 인구	20명	15명	45명
부양 인구	50명	90명	60명
유소년 인구	30명	45명	15명
전체 인구	100명	150명	120명

④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t+50년이 60명, t+100년이 6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t+100년 노년 인구는 45명, t년 유소년 인구는 3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② t+50년 부양 인구는 90명, t년 전체 인구는 10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③ 노령화 지수는 t년이 200/3, t+50년이 100/3, t+100년이 300으로 t+100년이 t+50년의 9배이나, t년의 3배는 아니다.

⑤ 노년 부양비는 t년이 40, t+50년이 50/3, t+100년이 75이다. 따라서 노년 부양비는 t년과 t+50년의 합이 t+100년과 같지 않다.

**311 정답: ④**

갑국과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5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100%로 을국의 2배이므로 을국은 50%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t+50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0명, 을국의 전체 인구는 150명이다. t년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25이므로 노년 인구를 a명, 유소년 인구를 4a명으로 둘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80이므로 부양 인구는 5a명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a+4a+5a) = 100$ 명, a=10이다. 또한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100이므로 노년 인구를 b명, 유소년 인구를 b명으로 둘 수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2b명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b+b+2b) = 100$ 명, b=25이다.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총부양비는 변화가 없으므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명이다. 또한 해당 기간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노년 인구는 20명 초과, 유소년 인구는 80명 미만이다. 또한 해당 기간 을국의 총부양비는 감소하므로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75명 초과이고, 노년 부양비는 변화가 없으므로 t+50년 노년 인구는 37.5명 초과, 유소년 인구는 37.5명 미만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단위: 명)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10	25	20 초과	37.5 초과
부양 인구	50	50	100	75 초과
유소년 인구	40	25	80 미만	37.5 미만
전체 인구	100	100	200	150

④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이 25, t+50년이 25 초과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커질 것이다. 또한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이 100, t+50년이 100 초과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의 세대 간 갈등 정도 역시 커질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80,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5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t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10명,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5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명, t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25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5배가 아니다.
- ⑤ 을국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이 50%, t+50년이 50% 초과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갑국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이 50%, t+50년이

50%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312 정답: ②

갑국에서 10년 전 대비 부양 인구 증가율은 t+10년이 20%, t+20년이 25%이므로 t년 부양 인구를 100명으로 둔다면 t+10년 부양 인구는 120명, t+20년 부양 인구는 15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대비 t+20년 전체 인구의 비는 1.5이므로 t년 전체 인구를 100a명으로 둔다면 t+20년 전체 인구는 150a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20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해당 연도 노년 인구는 45a명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는 (105a-150)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년 대비 t+20년 유소년 인구의 비는 1이므로 t년 유소년 인구는 (105a-150)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노년 인구는 (-5a+50)명임을 알 수 있는데, 노년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는 t년이 1.5이므로 (-5a+50)×1.5=(105a-150), a=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유소년 인구는 60명, 노년 인구는 40명이고 t+20년 유소년 인구는 60명, 노년 인구는 90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t+10년이 25%이고 노년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는 t+10년이 1이다. 따라서 t+10년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임을 알 수 있고,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10년 부양 인구는 120명이므로 전체 인구는 240명이고,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60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갑국의 연령별 인구와 전체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노년 인구	40명	60명	90명
부양 인구	100명	120명	150명
유소년 인구	60명	60명	60명
전체 인구	200명	240명	300명

ㄴ. t+10년 노년 인구는 60명, t+20년 유소년 인구는 6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ㄷ. t년 노년 부양비는 (40명/100명)×100=40, t+20년 유소년 부양비는 (60명/150명)×100=4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ㄱ. t년 피부양 인구는 100명, t+20년 노년 인구는 9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ㄹ. t+10년 유소년 부양비는 (60명/120명)×100=50, t+20년 노년 부양비는 (90명/150명)×100=6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313 정답: ③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3배이므로 전자를 30명, 후자를 10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60명이다. 또한 A 기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100%이므로 t+30년 노년 인구는 20명이고, B 기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50%이므로 t+50년 노년 인구는

3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노령화 지수는 100/3이고, A 기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200%이므로 t+30년 노령화 지수는 100이다. 또한 B 기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100%이므로 t+50년 노령화 지수는 200이다. 이에 따라 t+30년 유소년 인구는 20명임을, t+50년 유소년 인구는 15명임을 알 수 있다.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그리고 A 기간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은 -20%이므로 t+30년 유소년 부양비는 40이다. 또한 B 기간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은 -50%이므로 t+50년 유소년 부양비는 20이다. 이에 따라 t+30년 부양 인구는 50명임을, t+50년 부양 인구는 75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t+50년
노년 인구	10명	20명	30명
부양 인구	60명	50명	75명
유소년 인구	30명	20명	15명
전체 인구	100명	90명	120명

③ 유소년 인구는 t년이 30명, t+30년이 20명, t+50년이 15명으로 t년이 가장 많고, t+50년이 가장 적다. 따라서 잠재 성장 가능성은 t년이 t+30년보다 크고, t+30년이 t+50년보다 크다.

오답 풀이

① A 기간에 감소한 부양 인구는 10명, 증가한 노년 인구는 10명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② B 기간에 증가한 부양 인구는 25명, 감소한 유소년 인구는 5명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④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60%, t+30년이 전체 인구의 (50/9)%, t+50년이 전체 인구의 (125/2)%로 t+50년이 가장 높고, t+30년이 가장 낮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정도는 t+30년이 t+50년보다 크고, t년이 t+30년보다 작다.

⑤ 노년 부양비는 t년이 50/3, t+30년이 40, t+50년이 40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는 t+30년이 t년보다 크고, t+30년과 t+50년이 같다.

314 정답: ⑤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a%, C 비율은 3a%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2a%이고 B / (A + C)의 값은 1이므로 B 비율은 2a%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a+2a+3a)%=100%이므로 a=10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0%, B 비율은 20%, C 비율은 30%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b%, C 비율은 b%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4b%이고 B / (A + C)의 값은 1/2이므로 B 비율은 2b%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b+2b+b)%=100%이므로 a=12.5인 것을, 이에 따라 t+50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62.5%, B 비율은 25%, C 비율은 12.5%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3c%, C 비율은 c%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2c%이고 B / (A + C)

의 값은  $1/2$ 이므로 B 비율은  $c\%$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c+c+c)\% = 100\%$ 이므로  $c=20$ 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60%, B 비율은 20%, C 비율은 20%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d%, C 비율은 2d%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3d%이고 B / (A + C)의 값은 1이므로 B 비율은 3d%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d+3d+2d)\% = 100\%$ 이므로  $d=10$ 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0%, B 비율은 30%, C 비율은 2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40이므로 A는 부양 인구, B는 노년 인구, C는 유소년 인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20,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75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62.5%이므로 전체 인구는 120임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율은 12.5%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5, 노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t년 을국에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20, 부양 인구는 6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을국의 노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전체 인구는 100임을 알 수 있으며,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20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연령별, 전체 인구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	20	30	20	30
부양 인구	50	75	60	50
유소년 인구	30	15	20	20
전체 인구	100	120	100	100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갑국이 50, 을국이 40이고 t+50년 갑국이 45, 을국이 50이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은 감소하였고, 을국은 증가하였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30, 을국의 노년 인구는 2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50, 갑국의 노년 인구는 3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년 갑국이  $200/3$ , 을국이 100으로 을국이 갑국의 2배가 아니며, t+50년 갑국이 200, 을국이 150으로 갑국이 을국의 2배가 아니다.
- ⑤ 을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100/3$ , t+50년 노년 부양비는 6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그러나 갑국의 t

년 유소년 부양비는 60, t+50년 노년 부양비는 4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315 정답: ⑤

부양 인구의 비는 갑국 : 을국 : 병국 = 1 : 2 : 2이므로 갑국의 부양 인구를 100, 을국과 병국의 부양 인구를 200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령화 지수임을 감안했을 때,

- 1. A가 유소년 부양비, B가 노년 부양비, C가 노령화 지수
- 2. A가 노령화 지수, B가 노년 부양비, C가 유소년 부양비인 것으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1번 경우에서 갑국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50인 것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80, 노년 인구는 120인 것을, 병국의 유소년 인구는 80, 노년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노년 인구	50	120	20
부양 인구	100	200	200
유소년 인구	50	80	80
전체 인구	200	400	300

이때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의 부양 인구보다 적으므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경우에서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0, 노년 인구는 50인 것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300, 노년 인구는 120인 것을, 병국의 유소년 인구는 50, 노년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노년 인구	50	120	20
부양 인구	100	200	200
유소년 인구	100	300	50
전체 인구	250	620	270

그러나 이 경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의 부양 인구보다 많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경우이고,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는 아래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노년 인구	50	120	20
부양 인구	100	200	200
유소년 인구	50	80	80
전체 인구	200	400	300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갑국이 100, 병국이 10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A는 유소년 부양비, B는 노년 부양비, C는 노령화 지수이다.
- ②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50, 병국의 노년 인구는 2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을국의 노년 인구는 120,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 ④ 노년 인구는 갑국이 50, 을국이 120, 병국이 20으로 갑~병국 중 병국에서 가장 적다.

316 정답: ③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므로 전자를 25명, 후자를 50명으로 둘 수 있으며, 전자는 노년 인구나 같으므로 노년 인구는 25명이다. 이때 A 시기 전체 인구는 증가하므로 t+30년 전체 인구를 100a명(a > 1)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기간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으므로 t+30년 유소년 인구는 25a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t+30년 노년 인구는 25a명 초과, 부양 인구는 50a명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B 시기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으므로 t+50년 전체 인구는 100a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기간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므로 t+50년 유소년 인구는 25a명 미만이며, 또한 해당 기간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t+50년 노년 인구는 25a명 초과임을 알 수 있다. 이때 B 기간 노년 인구는 증가하나,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므로 t+50년 부양 인구가 특정 인구 초과 또는 미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t+50년
노년 인구	25명	25a명 초과	25a명 초과
부양 인구	50명	50a명 미만	알 수 없음
유소년 인구	25명	25a명	25a명 미만
전체 인구	100명	100a명	100a명

- ③ t년 노년 인구는 25명, t+30년 노년 인구는 25a명 초과이고 a는 1보다 크므로 노년 인구는 A 시기에 증가한다. 또한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전체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노년 인구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인구는 A 시기와 B 시기에 모두 증가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t년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5%이고, t+30년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한다. 따라서 A 시기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 ② t+30년 유소년 인구는 25a명이고, t+50년 유소년 인구는 25a명 미만이다. 따라서 B 시기에 잠재 성장 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 ④ t년 부양 인구는 50명, t+30년 부양 인구는 50a명 미만에 t+50년 부양 인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부양 인구가 A 시기에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B 시기에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 ⑤ t년 노령화 지수는 100이고, t+30년 노령화 지수는 (25a명 초과/25a명)×100=100 초과이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A 시기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t+50년 노령화 지수는 (25a명 초과/25a명 미만)×100=100 초과이고 t+50년

노년 인구가 t+30년 노년 인구보다 많으므로 노령화 지수는 B 시기에 역시 증가할 것이다.

317 정답: ①

t년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2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갑국이 50%이므로 t+20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15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대비 t+2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을국이 20%이므로 t+20년 을국의 전체 인구는 120인 것을 알 수 있다.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이므로 해당 인구는 7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같으므로 갑국의 t년 노년 인구는 15, 유소년 인구는 15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t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은 3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칸의 비율은 1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국의 t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은 4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국의 t년 부양 인구 비율은 60%인 것을, t년 부양 인구는 6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을국의 t년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갑국의 t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15%, 을국의 t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 대비 t+20년에 2배로 상승하였으므로 t+20년의 해당 비율은 갑국이 30%, 을국이 40%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은 t+20년 갑국이 60%, 을국이 5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20년 갑국이 30%, 을국이 10%이다. 따라서 t+20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45, 부양 인구는 60, 노년 인구는 45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12, 부양 인구는 60, 노년 인구는 48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15	20	45	48
부양 인구	70	60	60	60
유소년 인구	15	20	45	12
전체 인구	100	100	150	120

- ① t+20년 갑국의 피부양 인구는 90, t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60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이다.

오답 풀이

- ② 갑국과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는 모두 100이며, 갑국의 t+20년 노령화 지수는 100, 을국의 t+20년 노령화 지수는 400이다. 따라서 을국은 t년보다 t+20년 노령화 지수가 크나, 갑국은 t년보다 t+20년 노령화 지수가 크지 않다.
- ③ 갑국은 t년 대비 t+20년 부양 인구가 줄어들었으므로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 증가율보다 노년 부양비 증가율이 크다. 그러나 을국은 t년 대비 t+20년 부양 인구가 변하

지 않았으므로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 증가율과 노년 부양비 증가율이 같다.

- ④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50/7,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3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다. 그리고 t+20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75,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2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크다.
- ⑤ t년 대비 t+20년 감소한 갑국 부양 인구는 10, t년 대비 t+20년 증가한 을국 피부양 인구는 2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318 정답: ④

t+3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유소년 인구는 20일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년 부양비는 60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는 50, 노년 인구는 30일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시기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는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해당 시기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년 인구 역시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시기 노령화 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령화 지수는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 역시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t년 대비 t+3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노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t년의 전체 인구는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모두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양 인구가 t년 또는 t+30년 중 어느 연도에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30년이 같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노령화 지수는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B 시기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t+60년 전체 인구는 100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년 인구 역시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해당 시기 노령화 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소년 인구 역시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t+30년 대비 t+6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노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t+30년과 t+60년의 전체 인구는 같을 것으로 예측되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모두 t+30년이 t+6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양 인구는 t+60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별 인구 예측 양상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노년 인구	30 이상	30	30 이하
부양 인구	알 수 없음	50	50 이상
유소년 인구	20 이상	20	20 이하
전체 인구	100 이상	100	100

- ④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에 비례한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이므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작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유소년 부양비는 t+30년이 40일 것으로 예측되고, t년은 40 미만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30년보다 클 것이다.
- ② 노년 인구는 t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t+30년이 많을 것이며, t+60년이 가장 적을 것이다.
- ③ 노동력 부족 정도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가장 낮고 t+60년이 가장 높으므로 노동력 부족 정도는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작을 것이다.
- 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t년이 가장 크고, t+60년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년이 t+30년보다 크고, t+30년이 t+60년보다 클 것이다.

319 정답: ④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A 지역과 갑국 전체가 15%로 같고, B 지역은 25%, C 지역은 10%이다. 따라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전체 인구는 C 지역이 B 지역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또한 A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a로 둘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A 지역이 15%이므로 A 지역의 노년 인구는 15a인 것을 알 수 있으며, B 지역이 25%이므로 B 지역의 노년 인구는 25인 것을 알 수 있고, C 지역이 10%이므로 C 지역의 노년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노년 부양비는 A 지역이 24이므로 A 지역의 부양 인구는  $(125/2)a$ 임을 알 수 있으며, B 지역이 50이므로 B 지역의 부양 인구는 50인 것을 알 수 있고, C 지역이 16이므로 C 지역의 부양 인구는 125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갑국 전체 노년 인구는  $15a+45$ , 부양 인구는  $(125/2)a+175$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갑국 전체 노년 부양비는 25이므로  $4(15a+45)=(125/2)a+175$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2$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 노년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125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45,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25, C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55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노년 인구	30	25	20	75
부양 인구	125	50	125	300
유소년 인구	45	25	55	125
전체 인구	200	100	200	500

④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A 지역이 75, C 지역이 75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전체 인구는 C 지역이 200, B 지역이 100으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 ② A 지역 유소년 인구는 45, 갑국 전체 부양 인구는 300으로 전자는 후자의 10%가 아니다.
- ③ 갑국 전체 노년 인구는 75, A 지역 유소년 인구는 45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⑤ 노령화 지수는 A 지역이  $200/3$ , B 지역이 100, C 지역이  $400/11$ 으로 B 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320 정답: ①**

분석 1에 대해, 시나리오 A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는 시나리오 A에서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분석 2에 대해, 시나리오 A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그러나 노년 부양비 역시 감소하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감소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t년 대비 t+2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t+20년 대비 t+4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업소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유릉 감소한다. 따라서 t+20년 대비 t+4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한다. 이를 종합했을 때, t년 대비 t+40년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분석 3에 대해, 시나리오 B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업고 노년 부양비는 감소하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는 시나리오 B에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가 감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분석 4에 대해, 시나리오 B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업고 노년 부양비는 감소하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시나리오 B에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t년 대비 t+20년에 부양 인구는 증가한다. 그러나 t+20년 대비 t+4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노년 부양비는 변화가 업으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t+20년 대비 t+40년에 부양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종합했을 때, t년 대비 t+40년에 부양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분석 5에 대해, 시나리오 A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t년 대비 t+20년에 노령화 지수는 증가한다. 또한 t+20년 대비 t+4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업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t+20년 대비 t+40년에 노령화 지수는 증가하고, 이를 종합했을 때 t년 대비 t+40년에 노령화 지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 B에 따르면 t년 대비 t+2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업고 노년 부양비는 감소하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t년 대비 t+20년에 노령화 지수는 감소한다. 또한 t+20년 대비 t+4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노년 부양비는 변화가 업으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t+20년 대비 t+40년에 노령화 지수는 감소하고, 이를 종합했을 때 t년 대비 t+40년에 노령화 지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분석 5의 1개이다.

오답 풀이

- ②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분석 5의 1개이다.
- ③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분석 5의 1개이다.
- ④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분석 5의 1개이다.
- 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의 개수는 분석 5의 1개이다.

